

제 4 호

驪州文化

黃 驪 春 秋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驪 州 文 化 院

『표지』설명 세종대왕어진은 김기창 화백이 그린 표준어진을 영구보존키 위하여 석봉 선생이 다시 도자기 벽화로 그려 구어낸 작품(실물크기 360cm×250cm)

제 4 호

驪州文化

黃 驪 春 秋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驪 州 文 化 院

여

백

제 4 호

여 주 문 화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 문예증흥선언

○ 발간사	여주문화원장/조무호	5
○ 축 사	여 주 군 수/박용국	6

◎ 여주유적화보	7
◎ 여주군의 역사	11
◎ 여주군 연표	13
◎ 여주문화원 연혁	14

◎ 세종대왕 탄신600돌 기념 특집

세종대왕을 기리고 기리며	구상/	18
민족문화의 선구자 세종대왕	이은상/	22
세종대왕의 생애와 인간상	박종국/	27
세종대왕과 한글	이병기/	39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의 창제	임용기/	41
세종대왕과 별의 세계	나일성/	60
성군 세종의 불행과 고뇌	신봉승/	68
세종대왕시대의 이야기3	/	74
풍수지리설로 이름난 영릉	원용문/	81
세종대왕 역사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86

◎ 여주의 명소 소개

석봉도자기 미술관	편집실/	93
목아불교박물관	편집실/	96
◎ 향토사료관 유물소개		99
◎ 문체부가 선정한 97년 문화인물		107
◎ 문화단상		114
◎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세종문화 큰잔치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입상작		121
◎ 97년도 문화원 사업실적		143
◎ 97년도 문화원 사업실적 화보		
○ 여주군 문화재현황		150
○ 여주군골프장 현황		156
○ 편집후기		157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沈滯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を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 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確固한 傳統속에 꽃피우고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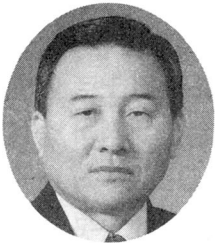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浮刻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活潑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가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精誠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발 간 사



여주문화원장 조 무 호

우리 여주는 삼국통일 이후 민족문화를 하나로 뭉쳐 이룩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왕터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받들어지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시고 남달리 학문을 사랑하시어 정치·문화·예술·과학·천문·지리·의학등의 학문적 기초를 정립하시고 책을 펴내셨으며 그 외에 종교·음악·농경등 각 분야의 진흥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이러한 크신 대왕의 능이있는 왕터 여주는 조선조 17대 효종임금의 영릉(寧陵) 및 신릉사, 명성황후 생가등 수많은 문화유적과 유물 그리고 문화재 등이 산재한 역사의 산 교육장임과 동시에 산세가 아름답고 남한강의 맑은 물이 도시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또한 빛나는 문화유산 외에 이규보, 이색선생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그 정신을 이어 현재 활동중인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역시 앞으로 여주를 빛낸 인물들로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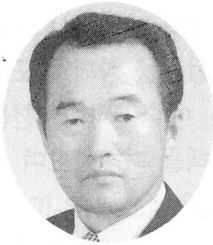
이와같이 귀한 문화유산과 정신, 그리고 새로운 문화명소를 책으로 엮어 소개하는 일을 저희 문화원이 맡아왔습니다만 군민들의 여망에는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저 자신도 부끄러운 마음을 떨칠길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오로 지금 여주 전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관내 저명하신 사학자와 역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조사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므로 알찬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여주문화(驪州文化)는 대내외적으로 여주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창문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주를 이끌어가시는 각계 인사들의 끊임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여주문화지 제4호의 발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한권의 책이 여주 군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온 군민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 사



여주군수 박 용 국

“驪州文化 제4호” 發刊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고장 여주는 옛부터 수려한 景觀과 기름진 沃土로 인하여 先史時代부터 近世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文化遺産이 살아 숨쉬는 歷史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군내에는 옛 先賢들의 얼이 담긴 문화재가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傳統, 文化, 歷史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여주는 歷史的 矜持와 名譽의 자부심속에 2000년대 지역사회발전의 주역이 될 문화도시로서 그기반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社會構造가 산업화됨에 따라 인간은 物質的 豊요로움과 생활의 豊족함을 이룩하였으나 생활의 便利性과 도에 지나친 황금만능풍조에 따른 인간성의 喪失로 많은 社會的 問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어렵게 일구워온 社會倫理를 되살리고 인간본질을 회복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을 追求해 나가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脈絡에서 驪州文化 제4호는 先賢들의 脈搏이 살아 숨쉬는 훌륭한 여주의 文化를 發掘 繼承하여 군민들의 文化意識을 살찌우는 향토종합 예술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길잡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책이 발간되기까지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勞心焦思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군민과 함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驪州文化”를 통하여 여주군의 문화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유적화보



세종대왕능



효종대왕능



고달사지부도(국보4호)



고달사지원종대사 혜진탑(보물 제7호)



고달사지원종대사 혜진탑 귀부 및 이수(보물 제6호)



파사성 성지(사적 제251호)



신륵사전경(일명 보은사 벽절)



신륵사 다층전탑(보물 제226호)



강월헌(신륵사 육각정)과 여강



신륵사 조사당(보물 제180호)



명성황후 생가(유형문화재 제46호)



강한사(도유형문화재 제20호)



여주향교(도 문화재 자료 제3호)



서희장군 묘(지방기념물 제36호)



이완대장묘(도 기념물 제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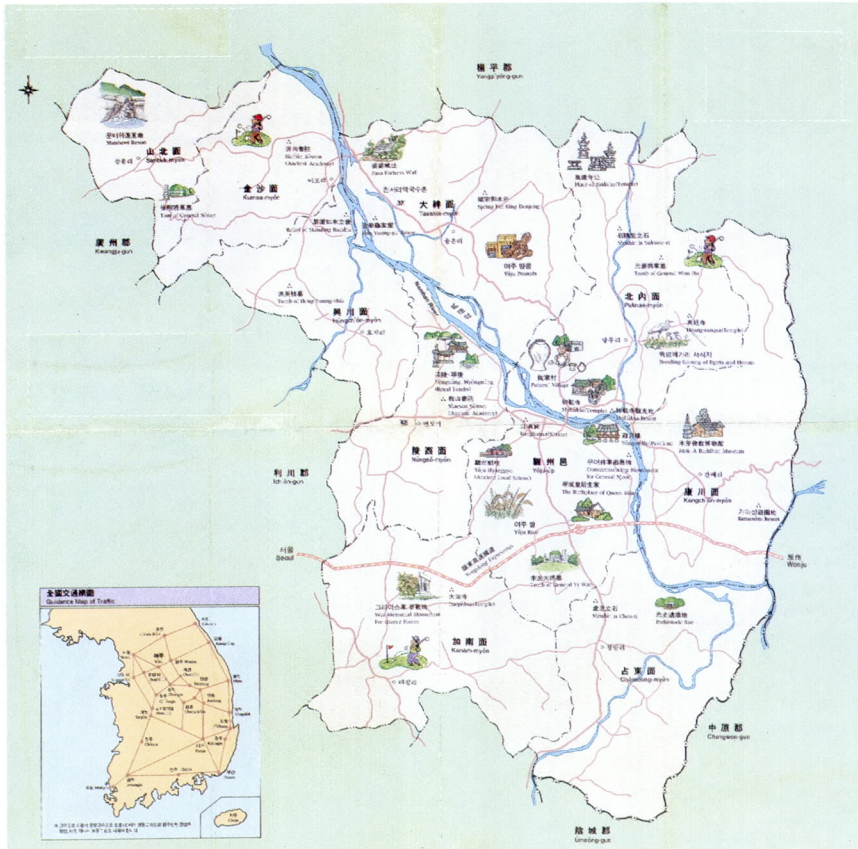


영월루(도 문화재 자료 제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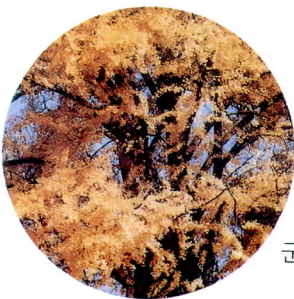


백노왜가리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09호)

여주군 관광안내도



여주군 새·나무·꽃



군나무(은행나무)



군새(백로)



군꽃(개나리)

여주군의 역사(연혁)

[고대]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발견된 바 없으나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파사성에서 마제석촉이 발견되었고, 점동면 혼암리와 여주읍 먹곡리에서 민무늬토기, 마제석부, 빗살무늬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1977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로 확인된 혼암리의 집터와 반월형 석도 갈돌(礪石), 무문토기, 홍도(紅陶)를 비롯하여 탄화된 보리, 조, 수수가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에는 이 지방에서 농경문화가 발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농경문화의 흔적은 우리나라 미작사(米作史)와 벼농사의 전개경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유적으로는 여주읍 매룡리고분군의, 시기를 달리하는 축조양식과 출토된 고배, 도자(刀子), 석침(石枕) 등 7세기경의 토기류가 발견되어 여주군은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큰 세력을 이룬 토하집단이 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온조가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영토확장에 주력할 때 전략전으로 요충지인 여주군은 공방전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22년(온조왕 40)부터 214년(구수왕 1)까지는 술천성(述川城: 지금의 금사면 이포리, 외평리 성지)에 말갈병의 침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백제의 요충지였음을 알수 있다. 광개토왕 때에는 잠시 고구려의 영토였다가 다시 백제에 속하기도 하였으나 장수왕의 남진정책의 한강유역을 점령할 때인 475년(장수왕 63)에는 고구려의 영토에 속하여 골내근현(骨乃斤縣)이 되었다. 그뒤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때인 550년(진흥왕 11)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일부까지도 점유한 562년(진흥왕 23)까지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다. 660년(무열왕 7) 천령군(川寧郡)에 술천성을 축조하여 고구려 방비의 제2선으로 삼았다.景德왕 때에는 황효(黃驍)라 고치고 기천(沂川)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940년(태조 23) 황려현(黃驍縣)으로 개칭하였고, 1018년(현종9) 강원도 원주(原州) 임내(任內)에 이속하였다가 1031년에 다시 경기도로 복구하여 감무를 두었다. 고종 때에 영의(永義)로 1305년(충렬왕 31)에는 여흥(驪興)으로 고치고 원종비(元宗妃) 순경태후(順敬太后)의 내향이라 하여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어 지군사(知郡事)를 두었다. 1388년(우왕14)에 군에서 부로 승격되어 황려(黃驍)라 하였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우왕을 폐위시켜 이곳으로 보내면서 다시 여흥군으로 강등되었다.

[조선] 1401년(태종 1)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내향이라고 해서 다시 부로 승격되었고 음죽현의 어서이촌(於西伊村) 지금의 장호원 어석리 북부)이 여흥군에 병합되었다. 1413년 안성, 양지, 음죽이 충청도로 부터 경기도, 우도에 합치될 때 경기도에 예속되어 도호부로 승격되었

다. 1469년(예종1) 세종의 영릉(英陵)이 천장(遷葬)되면서 천령현을 폐하여 여흥에 병합, 목으로 승격되었다. 이때 판관을 두어 여주(驪州)로 고쳤다. 천령현은 지금의 흥천면, 금사면 전역과 부발면 북부를 합하였던 지역으로 고구려 때에 술천(述川) 성지매(省知買) 신라 경덕왕 때는 기천으로 불렸고 황효(여주) 땅을 영현으로 삼았던 곳이다. 천령현은 1018년 광주에 예속되어 감무를 두었다가 1413년 현으로 되었고, 1469년 고을을 없애면서 여주에 병합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이 고장 출신 강원도 조방장 원호(元豪)가 향병(鄉兵)을 초집(招集)하여 5월에 여강벽사(驪江壁寺, 신록사)에서 이천부사 변응정(邊應井)과 협력, 한강을 내왕하는 왜적을 섬멸, 충주, 원주에 주둔한 왜적이 지평, 양근, 양주, 광주의 길을 취하여 한성과 통하는 길을 차단하였고 6월10일에는 구미포(九尾浦: 지금의 개군면 구미리)에 주둔한 왜병을 기습하여 50여급을 참수하는 전과를 얻었다.

[근대] 1895년 목에서 군으로 강등, 충주부의 속군이 되었다가 1896년 경기도로 환원되어 3등군으로 되었다. 제1차의병활동기인 을미의병항쟁 때는 심상희(沈相禧)가 1896년 2월 여주 장날을 이용하여 수백명의 의병을 지휘, 일본군을 살해하였다. 을사조약 체결로 일어난 제2차의 병항쟁 때는 13도창의대장으로 양주에 연합의병부대를 집결시켜 서울 공격을 지휘하였던 이인영(李麟榮)과 여주의병장으로 이범주(李範疇) 부대가 유명하였고 민궁호(閔肯鎬), 김봉기(金鳳基)도 의병부대를 이끌었다. 1907년 8월10일 여주의병은 한강을 항행하는 일본군 목선을 안창(安倉) 강변에서 기습하여 20여명을 사살하였고 12일에는 여주읍을 점령하여 서울-원주간의 연락을 차단하여 원주의 일본군을 고립상태에 빠뜨렸으며 계속 음죽, 장호원을 장악하는 등 수천명의 의병이 여주에서 활약하였다. 1914년 부, 군, 면이 폐합될 때 원주의 지내면(池內面)과 서면(西面)이 여주군에 편입되었고, 주내면이 여주면으로 개칭되었으며, 북내, 강천, 흥천, 능서, 금사, 개군, 가남, 점동, 대신 등 10개면이 되었다.

3.1운동 때는 4월 1일 이포(梨浦)의 2,000명, 4월5일 북내면의 800명, 곡수(曲水)의 3,000여명의 시위가 있었고, 신록사 승려 김용식(金用植)의 천송리 시위도 있었다. 1941년 10월 1일 여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현대] 1963년 1월 1일 개군면이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70년 12월16일 금사면 산북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4월 산북면으로 승격, 분리 되었다. 1992년 3월2일 북내면 오학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강천면 대둔리가 강원도 원주시로 편입되었다.

여 주 군 연 표

시대	연 대	주 요 사 함
고 대	550	신석기시대-마제석촉, 마제석부, 빗살무늬토기조각 청동기시대-주거지, 반월형석도, 갈들, 탄화미 초기 백제의 요충지 고구려 광개토왕 때 고구려의 영토로 끝내근현이 됨 천령군에 술천성 축조 신라 경덕왕 때 황효로 개칭 기천의 영현이 됨
고 려	940 1018 1031 1305 1388 1389	태조 23년, 황려현으로 고침 현종 9년, 원주 입내에 이속 현종 22년, 경기도로 복구, 감무를 둠 충렬왕 31년, 여흥으로 고쳐 군으로 승격, 지군사를 둠 우왕 14년, 군에서 부로 승격, 황려로 고침 공양왕 1년, 우왕의 적거지가 되어 여흥군으로 강등
조 선	1401 1413 1469 1592	태종1년, 부로 승격, 음죽현의 어서이촌이 여흥군에 병합 태종13년, 도호부로 승격 예종1년, 천령현을 폐하여 여흥에 병합, 여주목으로 승격 선조25년, 원호가 마탄, 구미포에서 왜적 섬멸
근 대	1895 1896 1905 1907 1919 1924 1941	고종32년 군으로 강등, 충주부의 속군이 됨 의병장 심상희가 여주읍에서 일본군 습격 살해 13도항의대장 이인영이 전국연합의병진의 서울공격 지휘 여주의병이 여주읍 점령 3.1운동 전개 (7,000명 만세운동 참가) 원주의 지내면, 서면이 여주군에 편입, 여주군 주내면이 여주면으로 개칭 여주면이 읍으로 승격
현 대	1963 1970 1989 1992 1995	개군면이 양평군으로 편입 금사면 산북출장소 설치 금사면 산북출장소가 산북면으로 승격 북내면 오화출장소 설치 강천면 대둔리가 강원도 원주시로 편입

여주문화원 연혁

◆ 설립 배경

우리나라에서 문화원이 처음 생긴 것은 1950년대 초기로 복지관, 국민문화원, 공보원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유지들의 지원과 원장의 사재로 운영되어 왔으며 1962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던 해에 76개소의 문화원이 설립되어 증가추세에 있었음.

◆ 설립 계기

1967년초에 「여음회」란 모임에서 설립 논의가 있었고 동년 12월 여주복지관에서 문화원 설립을 위한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어

- ▶ 1967. 5. 여주읍 흥문리 15 여광기술학원내에 비법인 세종문화원 사무실을 개설함. (박운한 학원장 무상임대)
추진위원: 안금식, 이일섭, 최진식, 오대근
- ▶ 1968. 1. 여주문화원으로 명칭을 개정
- ▶ 1968. 2. 25 발기인 총회(발기인: 김윤선, 박운한, 정춘식, 안금식)
- ▶ 1969. 4. 11 창립총회, 정관제정
- ▶ 1969. 5. 14 이사회회 개최(원장: 안금식, 이사장: 김윤선)
- ▶ 1970. 2. 26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설립허가(문화공보부장관)
- ▶ 1970. 4. 27 법인설립등기
- ▶ 1974. 6. 14 2대 원장 김효정 선출
- ▶ 1981. 6. 23 3대원장 김덕배 선출
- ▶ 1981. 6. 23 정관개정
- ▶ 1981. 6. 23 사무실이전(중앙감리교회 별관)
- ▶ 1982. 2. 26 4대 원장 안금식 선출
- ▶ 1982. 10. 9 경기도주최 세종문화큰잔치를 여주문화원 주최 행사로 인수(강변봉화, 해촌낙화, 불꽃피우기, 민속가두행렬 등)
- ▶ 1982. 12. 황여문화 창간 제9호까지 발간(90. 12)
- ▶ 1984. 1. 가남본두리 낙화놀이 발굴
(정월 대보름 낙화놀이 체계적 시연 유도 매년 음력 1. 16시연)
- ▶ 1984. 5. 15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 주관
(시조백일장, 국악인초청공연 등)
- ▶ 1985. 11. 원부리 얼 답교놀이 시연 지도(매년 정월대보름 시연)

- ▶ 1986. 1. 31 사무실 이전 (여주읍 흥문리 74-2 군민회관 내)
- ▶ 1986. 2. 7 정관개정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 ▶ 1986. 5. 15 세종벽담 문화상 제정
- ▶ 1986. 7. 마래리 거북놀이 발굴 시연
- ▶ 1986. 12. 20 여강문화 창간호 발간 (72페이지)
계속 6호까지 발간 (90. 12. 20)
- ▶ 1987. 10. 제2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대통령상 수상
- ▶ 1988. 2. 29 여주문화예술코너 개관 (여주읍 하리 15블럭 9롯데)
- ▶ 1991. 8. 17 원장 직무대리 황웅구 선출
- ▶ 1991. 12. 30 사례집략 발간
- ▶ 1992. 4. 6 원장 직무대리 박근출 선출
- ▶ 1992. 5. 6 시범문화원 지정 (문화부장관)
- ▶ 1992. 11. 28 원장 원중재 선출
- ▶ 1992. 11. 28 정관개정 (이사장규정삭제)
1992. 12. 22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 ▶ 1993. 3. 5 여주문화사랑방 개설
(여주읍 흥문리 74-2 군민회관 내)
- ▶ 1993. 4. 9 문화원 처무규정 제정
(직제, 복무, 인사, 보수, 여비,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 ▶ 1993. 12. 30 황여춘추 (제1호) 창간
- ▶ 1994. 7. 29 지방문화원진흥법 (94. 1. 7 법률 4. 718호) 공포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정관변경
- ▶ 1994. 12. 31 황여춘추 (제2호) 발간
- ▶ 1994. 12. 31 여흥문화재대관 발간
- ▶ 1995. 9. 27 원장 조무호 선출
(95. 10. 5 승인 95. 10. 23등기)
- ▶ 1995. 11. 28 정관개정 (대의원제 신설)
96. 2. 29 문체부장관 허가
- ▶ 1996. 1. 12 사무실 이전
(북내면 천송2리 545-1 청소년수련실)
- ▶ 1996. 2. 16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개정 (사용료 변경)
- ▶ 1996. 2. 28 운영규정 제정 (규정 제8호)
회비규정 제정 (규정 제9호)
- ▶ 1996. 5. 15 세종대왕 탄신 제599돌 숭모제전을 제7회 도자기축제와 병합 추진하여 문화행사

- ▶ 1996. 10. 9

를 크게 확대 26개 문화행사 거행
 (전시회 4건, 민속놀이 5건, 가무극 8건등 기타 9건)
- ▶ 1996. 10. 9

세종문화큰잔치, 학생 백일장
- ▶ 1996. 12. 31

여주문화(3호) 발간
- ▶ 1996. 12. 31

지명유래집 발간
- ▶ 1997. 5. 15

세종대왕탄신 제600돌 기념행사
- ▶ 1997. 10. 9

제29회 세종문화큰잔치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 경기도 학생백일장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특집

차 례

세종대왕을 기리고 그리며/구상
 민속문화의 선구자 세종대왕/노산 이은상
 세종대왕의 생애와 인간상/박종국
 세종대왕과 한글/가람 이병기
 세종대왕과 훈민정음과 창제/임용기
 세종대왕과 별의 세계/나일성
 성군 세종의 불행과 고뇌/신본승
 세종대왕 시대의 이야기3/신본승
 풍수지리설로 이름난 영릉/원용문
 세종대왕 약사/(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께서는 1441년(세종23년)에 세자에게
 명하여 측우기를 만들게 하시고,
 1442년 5월에는 측우의 제도를 정하여
 전국에 실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세종대왕께서 세자와 함께
 측우대에 나아가 우량을 측정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광경이다.

세종대왕을 기리고 기리며

- 구 상 -

1



세종대왕의 위대하고 찬란하고 무수한 그 치적과 업적과 공덕의 바탕에는
올곧은 인륜정신이 뿌리한다.

못 백성들이 참된 삶의 길에 눈멀고 제 뜻을 밝히지 못함을 민망히 여겨
한글 창제와 인쇄술의 개량을 이루고 정권의 유지보다 진리 탐구를 앞세워
집현전 학자들에게 연구휴가를 주었으며 정책도 관원들을 교대해가며 협의
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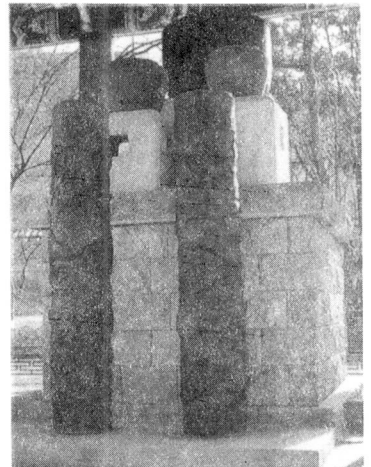
세종대왕의 위대하고 찬란하고 무수한 그 치적과 업적과 공덕의 바탕에는 뜨거운 박애정신이 넘
쳐 흐른다.

짐승이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를 모른체 하기가 가슴
아프거늘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고 탄식하며 천민의 차별과
학대를 몹시 개탄하고 가난, 질병, 불우만 아니라 죄수에게도 자
비를 베풀 것을 교서로서 타일렀다.

3

세종대왕의 위대하고 찬란하고 무수한 그 치적과 업적과 공덕
의 바탕에는 자주적 과학정신이 투철했다.

농업생산의 그 근본적 개량을 위해서 천문관측기구의 제작과
영농서의 발간 국민보건에는 각종 의약서를 편찬하고 국방에는
북방영토를 확충 확정하며 신병기의 개발 및 군용선박을 개량하
고 병서의 간행등으로 국가안보를 다졌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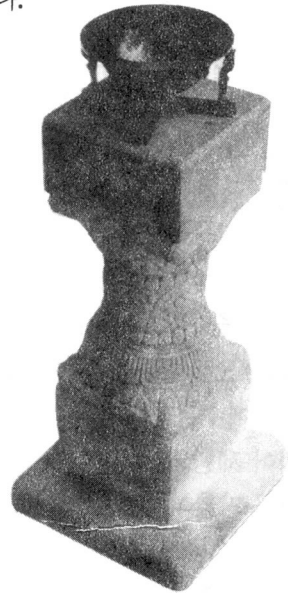
세종대왕의 위대하고 찬란하고 무수한 그 치적과 업적과 공덕의 바탕에는 예술적 창조정신이 발휘됐다.

스스로 지으신〈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해 〈석보상절〉이나 〈용비어천가〉의 국문체와 시가, 설화등 국문학의 탄생을 보았고 한편 향악의 창작을 적극 장려하여 새로운 악보의 제정과 악기의 제작등 국악의 진흥발전에 새기원을 이뤘다.

5

오늘 세종대왕 탄신 6백돌을 맞으며 우리 앞에 가로놓인 현실을 바라볼제 님을 기리기마저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하지만 당신의 넋은 저승에서도 정녕, 이 겨레 이 나라를 굽어 보고 계시리니 우리의 삶과 세상살이 바로잡게 하시고 당신이 바로 실천하고 이룩하고 빛내신 인륜을 바탕으로 한 문화와 과학이 함께 전진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민족 문화의 선구자 세종대왕

노산 이 은 상

(1903 ~ 1982)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1397년 조부 이태조가 새 나라를 세운 지 겨우 6년째 되는 해였다. 미처 나라의 터전이 잡히지 아니하고 또 민심도 채 가라앉지 않은 때에 장차 나라의 기초를 바로잡을 거룩한 이가 태어난 것이다.

아버지는 아직 왕자의 몸으로 있는 31세의 정안군(靖安君=뒤의 태종)이요, 어머니는 민씨(閔氏=뒤의 원경 왕후(元敬王后))이며, 양녕(讓寧), 효녕(孝寧) 다음에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니 이름은 도(陶)요, 자는 원정(元正)이었다.

탄생하신 다음 해에는 아버지 정안군(태종)이 방석(芳碩), 방번(芳蕃) 등 두 아우를 죽이는 왕자끼리의 살육극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조부 이태조는 함흥(咸興)으로 떠나갔으며, 정종(定宗=태종의 형님)이 즉위해서는 도읍을 개성(開城)으로 도로 옮겼다가 아버지 태종이 위에 오른 뒤에 다시 한양(漢陽)으로 천도해 오니 대왕의 9세 때 일이었다.

이같이 어수선한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고, 22세 되는 해 8월에 아버지 태종이 물러났고, 그 뒤를 이어 재왕의 자리에 올라 재위 32년 동안 나라의 기업을 닦고, 민족 문화의 방향을 바로잡기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1450년 2월17일에 54세로 세상을 떠나시었다.

우리 역사상에서 삼국 이전은 잠깐 별문제로 하고, 삼국시대로부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무릇 2천여 년 동안에 2백여 명 재왕을 헤아리게 되거니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군을 말하려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세종대왕을 일컫는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역사상의 인물을 가까운 중국 역사상의 인물에 비겨 말하되, 고려의 최충(崔沖) 선생은 해동의 공자(孔子)라 하고, 또 퇴계(退溪) 선생은 해동의 주자(朱子)라 하며, 충무공은 해동의 제갈 양(諸葛亮)이라 하는 것 모양으로 세종대왕은 해동의 요순(堯舜)이라고 들 해왔다(정인지(鄭麟趾)의 영릉(英陵) 비문)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의 두 분을 비교해 한 말은 무방하겠지마는, 뒤의 두 분, 다시 말하면 충무공을 제갈 양에게, 세종대왕을 요순에게 비기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이 다만 그의 거룩함과 덕과 지혜의 일면만을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다만 그러한 성지(聖知), 인덕(仁德)만으로 그의 인격과 공적에 대한 설명이 끝날 어른은 아니다.

첫째, 학문의 애호자요, 둘째, 독창 문화의 선구자요, 셋째, 민본 사상의 정치가요, 넷째, 과학의 발명자요, 다섯째, 예악(禮樂)의 제정자요, 여섯째, 국토의 개척자로서, 전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저 중국 고대의 요순만으로 비길 수가 있

을 짓이라.

더구나 대왕은 우리 역사를 통하여 민족 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준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계신 어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1) 학문의 애호자

내가 세종대왕의 행적을 통하여 가장 먼저 주의하는 점은 아무 것보다도 '학문의 애호자'라는 그것이다.

누구나 권세의 자리에 앉으면 즐겁고 편안하기를 탐하는 것이다. 조그마한 권세의 자리에도 그렇게 할지며 제왕의 위치이겠느냐.

그러나 대왕은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학문속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려 했고, 좀더 차원높은 사회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대왕은 물론 학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학자 이상으로 학문의 가치를 심각하게 깨달은 이다. 그래서 학문을 국력으로 수호했고, 또 그 기반 위에 차원 높은 정치를 구현했던 것이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전공적으로 직접적으로 학문만을 연구하는 이들 보다 이같이 학문의 가치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이가 훨씬 더 귀한 것이다.

태종대왕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한 말 중에는 “충령군(忠寧君=세종을 이름)은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 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다. 그래서 비록 추운 겨울이나 한더위에도, 밤이 깊도록 글을 읽으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세종 자신도 “내가 두 손 맞잡고 한가히 앉아 있는 때는 한 번도 없다”고 증언했었다.

그리고 또 일상 일과에 있어서도, 매일 인시(寅時=새벽 4시)면 기침하여 날이 밝으면 조회하고, 정사에 집무하며 연연(筵延)에 임하고 경전과 사기를 열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왕의 왕대에 와서, 이른바 '집현전(集賢殿)'의 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또 많은 서적이 간행된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본시 이 집현전의 이름은 고려조로부터 전하는 것이나, 아무런 실적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한 나머지 즉위한 다음 해(24세 때)에 옛 제도를 완전히 살려서 실용에 옮긴 공적은 얼마나 장한 일인지 모른다.

나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아(정원 10명, 15명, 30명까지 갔다가 뒤에는 12명으로 표준이 되었음) 극진한 대우 속에서 안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고려사(高麗史)>등 수많은 서적을 간행함으로써 민족 문화사상에 큰 탑을 쌓은 것이야말로 참으로 특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대왕은 겨울 밤, 자정이 넘어서도 집현전을 순시하며, 거기서 숙직 독서하다가 잠든 신숙주(申叔舟)의 어깨 위에 자기의 갓옷을 벗어서 덮어 주게 했던 이야기는 널리 전하는 미담의 하나다(서거정(徐居正), 필원잡기(筆苑雜記)).

그러나 나는 여기서 대왕이 그같은 <아카데미> 기관을 설치했다거나 성삼문(成三問), 정인지(鄭麟趾) 등 대학자들을 양성해 냈다거나, 또는 역사, 지리, 농학, 의학 등 많은 저술을 간행했다거나

하는 그런 표면적인 사실을 들어 대왕을 예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의 학문을 애호하는 정신이 건전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고, 또 민족 문화의 방향을 제시함이 된 그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다.

(2) 독창 문화의 선구자

어떠한 위인이냐 영웅이든지 그의 일생 업적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는 가장 특기할 만한 대표적인 업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나 지체없이 '한글 창제'로써 대답할 것임이 틀림이 없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서문은 우리가 '한글날' 행사 때마다 외우기까지 하는 글이거니와,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보기로 하자.

① 우리 나라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그들의 글자를 가지고서는 서로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식한 백성들로서는 설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②그래서 나는 그것을 민망히 여겨, 새로 28자로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배워, 날마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3.1독립 선언서에서 정치적 속박을 벗어나려는 민족적 정열과 의기를 발견할 수 있듯이, 훈민정음 서문에서는 한문문화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혁명적인 기제와 그것의 단호한 실천을 볼 수 있는 점에서 나는 그것을 '문화 독립 선언서'라 일컫는 것이다.

더욱이 한글의 창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하여'라는 위대한 표어 밑에서 이루어진 것인만큼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문자사에서도 들어 볼 수 없는 독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글을 일반에 반포한 것은 대왕 28년(1446년) 50세 되던 해였지만, 이미 그 이전 오랜 시간을 통하여 연구를 쌓고 실험을 거듭해 왔던 것이 사실인만큼 그야말로 대왕의 피땀과인 글자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반포하던 때 정인지는 그의 서문에서 "대왕이 지으신 한글은 남의 무엇에서 풀어 낸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고 하였다.

혹시 학자들은 이 한글 창제에 있어서 무엇을 본 뜬 것이라거나, 어디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거나 하고 부질없이 아는체하는 소리들을 적어 내는 이가 없지도 않으나, 결국에는 대왕의 천재적인 창작에 의한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세계에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문자가 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다만 거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하나는 음운학(音韻學)을 비롯하여 과학적 연구를 쌓은 대왕자신의 실력이요, 다른 하나는 최후의 성공을 거두기까지 쉬지 않는 노력의 태도다.

그러므로 최만리(崔萬理)등 반대하는 신하들을 제압함에 있어서도 결코 제왕의 권세로써만 한 것이 아니요, 이론을 전개했던 것을 보는 것이요, 또 노심초사한 끝에 안질을 얻어 청주(淸州)의 초청(초井)에 가서 요양하면서까지 한글연구만은 계속했던 것을 본다.

다시 한 마디로 말해서, 대왕의 한글 창제는 우리 역사상에서 민족 문화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국민 전체를 위한 대중 문화의 기초를 닦고 또 문화의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 할 것이다.

(3) 민본 사상의 정치가

위에서 한글을 창제한 이유의 한 가지로, 국민 전체를 위하는 대왕의 민본 사상을 말했거니와, 실로 그 점에 대왕의 민족 지도자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왕의 모든 정치는 '농민(국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理解) 위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대왕은 항상 이같은 탄식을 뇌었다.

“내가 대궐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낱알이 모르는 게 민망하다.”

“내 자손들이 역시 대궐 안에서 자라며 농사짓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니 참 탄식스럽다.”

그러나 나는 그 말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대왕의 심경이 그랬기 때문에 대왕의 정치가 민생 문제에 기본적 중점을 두었던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적으로도 <농사직설(農事直說)>, <의방유취(醫方類聚)>등을 간행한 것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효용을 본 것이요, 환곡법(還穀法)을 실시하여 빈궁한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도 했던 것이다.

더욱이 종래의 세법(稅法) 실시에는 중간 폐단이 많음을 생각하여 새로 학자들로 하여금 토질의 상하를 따라 이른바 '전분육등(田分六等)'을 정하고, 또 그 해의 흉풍에 따라 '연분구등(年分九等)'을 정하여, 과연 이상적인 조세법을 마련해 놓고도, 오히려 그것이 농민들에게 어떤 불만 불평이 없을까 걱정하여,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수학가 이순지(李純之)와 김담(金淡)등을 시켜 먼저 서울 근교의 땅을 측량 조사케 하고, 다음에 삼남 지방에 가서 역시 토지 조사를 실시케 하면서 새 세법을 조심스레 시험했던 것이니, 그 얼마나 농민을 위하는 진실한 정치였더라.

그리고 또 지방 군수들을 자주 갈아 민폐가 많은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른바 '수령육기(守令六期)'-지방 군수들의 6년 임기-의 제도를 실시한 것도 다만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일념에서 한 일이었다.

더구나 재판, 징역의 제도에 있어서도 세 번 재판하는 3심제도를 실시한 것은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인권 존중의 기본 정신의 발로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태배법(苔背法)'을 폐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척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형벌을 할지라도 등파기를 치는 야만적인 일은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또 그보다도 노비(奴婢)들을 사사롭게 형벌하는 일을 금한 것은 그 당시 양반 사회에 대하여 획기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비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奴婢赤天民)”라 한 대왕의 발언은 양반 사회에 대한 추상 같은 선언이었거니와, 이같이 백성을 표준으로 한 정치가였던 곳에서 대왕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과학의 발명자

옛날이나 오늘이나, 정치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언제나 모든 방면에 가장 귀중한 것은 과학적 방법론이다.

대왕은 학문 중에도 단순히 인문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디부터 과학적 두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대왕의 정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정치이기도 했거니와, 학자 중에서도 과학자들을 더 사랑했으며, 그들로부터 온갖 과학적 발명이 나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주었던 것이요, 또 대왕 자신이 모든 과학적 발명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집현전 설치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낸 많은 서적들이 출판 됨에 있어서 자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쇄술의 개량이다.

과학 문명에 있어서 오늘은 이같이 뒤떨어진 우리 민족이지마는, 실상 역사적으로 따지면 세계의 첫째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니니, 그 증거의 하나가 바로 활자의 발명인 것이다.

서양에서는 활자의 발명은 1450년으로써 최초로 잡거니와, 우리는 실로 고려 고종(高宗) 21년(1234년)에 주자 인쇄가 나왔으므로 저들보다 2세기가 앞선 것이며, 또 조선조에와서도 태종 때 개혁을 본 것은 그만 두고, 세종 2년(1420년) 24세 때에, 이천(李薦)을 시켜 활자를 다시 만들고 인쇄술을 개혁신킨 것만 가지고 말할지라도 서양의 연대보다 오히려 30년을 앞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념해 두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과학 문명에 있어서 서양의 발명 연대보다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측우기(測雨器)의 발명이 또 하나 있다.

서양에서는 이탈리아 사람인 베네데토 가스텔리가 1639년에 발명한 것으로써 최초로 삼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대왕 24년(1442년) 46세때, 완전히 측우기를 발명했던 것이니, 이것 또한 2세기가 앞서는 자랑스런 사실인 것이다.

그 밖에 세계적 기록을 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로서 귀중히 여겨야 할 사실은 천문(天文)역상(歷象)에 대한 연구와 기계 등의 발명이다.

이것을 맡은 과학 기술자는 장영실(蔣英實)이었던 바, 그것에 대한 대왕의 구상을 얼마나 민첩하고 지혜롭게 받들었는지, 그 때 사람들이 장영실을 가리켜 대왕의 과학 발명을 위해서 시기를 타고 나온 사람이라고들 말했던 것이다.

기상 관측하던 '대소간의(大小簡儀)', 천체 측정하던 '혼천의(渾天儀)', 해시계였던 '앙부일구(仰釜日龜)', 물시계였던 '자격루(自擊漏)', 그 밖의 새 역서 편찬, 천문도(天文圖) 제작, 그리고 일식 월식의 관측, 북극(北極)의 고도 측정 등이 그 때의 눈부신 과학적 업적이었던 것이다.

(5) 예악(禮樂)의 제정자

인간 생활에 있어서, 과학과 예술은 실로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대왕이 과학자로서의 일면을 가진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일면도 가졌던 것은 대왕으로 하여금 완벽한 인격을 이룰수 있게 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

대왕 자신은 글씨와 그림에 있어서도 능수이었거니와, 난초와 대(竹) 그림에는 특장을 자랑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엽 말단의 이야기요, 아무 것보다 아악(雅樂)의 제정이 대왕의 예술에 대한 위대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임은 물론이다.

악률이란 예로부터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단순한 음악 예술로서만이 아니라, 이른바 '제례작악(制禮作樂)'이라 하여 정치상에도 중대한 과목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대왕 자신이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항상 저 송(宋)나라 채원정(蔡元定)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탐독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국악을 한번 혁신하고자 많은 고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 방면의 대천재 박연(朴堧)을 만나게 되어, 비로소 역사적 사업을 완성하니 그것이 바로 아악의 제정이었다.

더욱이 아악의 악기 중의 하나인 새로 만든 경(磬)을 들여다가 중국의 경과 그 소리를 비교해 들어 본 대왕은,

“중국의 경은 음정이 맞지 아니하나 새로 만든 우리 경은 소리도 맑고 음정도 맞으나, 다만 12음정 중의 이칙(夷則) 한장의 소리가 잘 안 맞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었다.

박연은 곧 살펴보니 돌을 갈 적에 먹줄 친 데까지 완전히 다 같지 못했던 것이라, 그것을 다 갈고 나서 다시 쳐 보니 음정이 바르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왕의 15년(1433년), 37세 때에 처음으로 조례에 아악을 연주하게 되었고, 또 많은 악곡까지 제정했던 것이어니와, 그것이 지금토록 전하여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동양 최고의 음악으로 자랑하게 된 것은 실로 영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악의 정리자 난계(蘭溪) 박연은 우리 역사상 가야고의 우륵(于勒)과 거문고의 왕산악(王山岳)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높이 받드는 분이거니와, 그로 하여금 그의 지식과 기술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만든 이는 실로 다른 이 아닌 세종대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국토의 개척자

세상에 문(文)에 능하면 무(武)에 어둡고, 무에 능하면 문에 어두운데, 대왕은 문과 무에 다 통했던 것을 본다.

대왕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학자, 문사, 과학, 예술 등 인문 방면에 특이한 발전을 보았던 것은 물론이었거니와, 다른 한편으로 무기를 제조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병선을 개량하고, 병서를 간행하기까지 하여 무비를 갖추기에 전력했었다.

대왕의 8년(30세 때)에는 친히 갑주를 입고 독섬에서 열병식을 거행하기까지 하여, 그 방면의 사기를 돋우시기도 했고,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武)를 강(講)하는 것은 조종으로부터 내려오는 헌법이요, 또 군국의 중대한 일이니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강경히 주장했을 뿐 아니라, 특히 화포(火砲)와 화약(火藥) 제조에 있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의 기술자는 항상 명부에 올려놓고 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언제나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본다.

이같이 안으로 무력을 든든히 한 대왕은 마침내 국경을 확충함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대마도(對馬島)에 대한 정책으로는, 처음에 상왕(上王=태종)이 군권을 쥐고 이종무(李從茂) 등을 보내어 그들의 침략성을 응징한 일이 있었으나, 대왕은 곧 회유책을 써서 그들을 덕화 속에 넣었던 것이다.

그것은 첫째 국경이 연접해 있지 아니하고, 또 둘째 그들이 배주린 짐승 같아서 그같이 침구하는 것이므로, 차라리 장사할 길을 터주어서 얻어먹고 살게 해 주면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으로 회유 정책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서북으로 국경이 연접해 있고, 또 성격이 전연 판이한 야인(野人)들에 대한 정책은 강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인이란 두만강(豆滿江) 안팎의 땅과 압록강(鴨綠江) 바깥지경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 국경을 쳐들어와 도적질해 먹고 사는 무리들인데, 그들 때문에 밤 낮으로 근심을 놓지 못하다가, 마침내 큰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퇴치시켜 국경을 완전히 든든하게 했던 것이다.

대왕의 16년(38세 때), 김종서(金宗瑞) 장군을 두만강으로 보내며 “비록 종서가 있어도 내가 없었다면 또한 이일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오랑캐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두만강 가에 6진을 개척하여 조종의 옛 강토를 보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최윤덕(崔潤德) 장군을 압록강 지역으로 출정시켜 거기 있는 야인들을 퇴치하고, 4군을 설치함으로써 서쪽 국경을 안정시킨 이래 오늘에 이른 것이다.

과연 대왕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에 있어서 나라의 기초를 닦은 것, 문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 과학을 진흥시키고 예악을 제정하고, 안으로는 민본 사상의 정치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강대한 무력으로 국경을 개척하여, 민족사상에 큰 은공을 끼친 것으로써 불멸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세종대왕의 생애와 인간상

박 종 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1) 생애와 업적

세종대왕은 휘(諱)가 도(陶)이고, 자(字)는 원정(元正)이다. 또 존시(尊諡)는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고, 시호(諡號)는 장헌(莊憲)이며, 묘호(廟號)는 세종(世宗) 이시다. 그러므로 세종 장헌 대왕(世宗莊憲大王)이라고도 한다. 태조 6년(1397) 음력 4월 10일(양력 5월15일) 한성부(漢城府) 준수방(俊秀坊) 잠저(潛邸)에서 조선조 제3대 임금인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과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났다. 태종 8년(1408) 음력 2월11일(양력 3월17일)에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동년 동월 16일(양력 3월 22일) 우부대언(右副代言) 심온(沈溫)의 따님과 결혼하였는데, 이분이 곧 소헌왕후(昭憲王后)가 된 심씨(沈氏)이다. 그 뒤 5년째 되는 태종 12년(1412) 음력 5월 3일(양력 6월 20일)에는 충녕대군(忠寧大君)에 진봉되고, 태종 17년(1417년) 음력 9월12일(양력 10월30일)에는 대광보국(大匡輔國)에 올랐으며, 스물 두살 되던 태종 18년(1418) 음력 6월 3일(양력 7월15일)에 양녕대군(讓寧大君) 제(提)가 폐세자(廢世子)됨에 따라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되었다가 같은 해 음력 8월 10일(양력 9월 18일)에 조선조 제4대 임금으로 등극하시었다.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그 용모가 단아하고 자질이 총명하며, 성행이 돈독 근면할 때 뿐아니라 학문을 즐겨 부지런히 하였으며, 또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대왕의 인품이 어려서부터 이러하니, 부왕 태종은 여러 형제 가운데 나라 일을 부탁하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의정부(議政府)·훈신(勳臣)들과 육조(六曹)·대간(臺諫) 등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세종대왕은 임금으로서의 자세를,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고, 정사에 임하시어 나날의 정사를 보살피는 여가에는 학문과 궁리, 창조와 경륜에 마음을 쏟아 잠시도 쉬는 일이 없으심은 물론,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투철한 사상과 정신을 갖고 신중하게 다루었다. 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중점적으로 하되, 장기적인 안목으로 끈질기게 하였으며, 옳다고 여기는 바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관철하시었다. 그리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서른 두 해 동안에 갖가지 새로운 빛나는 문화를 창조하여 우리 배달 겨레의 생존 발전에 영구히 다함없는 은덕을 끼치었다.

세종대왕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한 지 27년째 되는 해에 왕위에 올랐으나 대내외적(對內

外的)으로 볼 때 나라의 안정을 완전히 이룩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때였다. 대내(對內)의 정치적 안정은 그런대로 되었지만, 대외적(對外的)으로 말하면, 우리 본토 동북 지방과 서북 압록강 방면에는 수시로 여진(女眞) 곧 야인(野人)들의 침입이 잦았고, 동남 서해안 방면에는 왜구들의 노략질이 빈번하여 대내의 확고한 정치적 안정과 국토의 방비에 대한 일이란 여간 중요한 당면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임금이 된 즉시 행정 체제 정비에 힘을 기울이심과 아울러 국민 정신 교화에 힘쓰시었다.

세종 2년(1420) 음력 3월 16일(양력 5월 7일)에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集賢殿)을 확충, 대궐 안에 설치하여 장차 유망한 젊은 학자들을 뽑아 모아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전심전력하게 함은 물론, 고려의 법을 중심으로 한 고제도를 연구 검토하게 함으로써 정치와 문물 제도를 정리하여 행정 체제(行政體制)를 확립하였다.

인재를 양성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한 결과 역사·지리·정치·경제·군사·도덕·예의·천문·의학·어학·문학·운학·종교·농사·음악 등에 관한 서적이 저작 간행됨으로써 영구 불멸의 정신 문화를 진흥하였다. 그리고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여 과학 문명의 원천인 인쇄 활자 및 판짜기를 개량, 인쇄술의 발달을 꾀하였던 바 종래보다 수십 배의 능률을 올렸음은 물론, 그 인쇄 활자나 지질 및 장정에 따른 예술성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시의 활자 개량도 독일의 구텐 베르크가 1455년에 서양식 인쇄 활자를 개발한 것보다 앞선 일이다.

세종대왕은 역서(曆書)를 편찬하고, 세종 15년(1433)에는 천체측각기인 혼천의(渾天儀)와 간의(簡儀), 그리고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를 만들고, 세종 16년(1434)에는 해시계인 앙부일구(仰釜日龜)를 발명하여 동년 음력 10월 2일(양력 11월 11일) 혜정교(惠政橋)와 종묘(宗廟) 앞에 설치하여 일영(日影)을 관측하게 하였다. 세종 23년(1441) 음력 8월 18일(양력 9월 12일)에는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測雨器)와 하천수(河川水)를 재는 수표(水標: 量水標)를 발명, 측우기는 이듬해(1442) 음력 5월 8일(양력 6월 24일)에 측우하는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수표는 그해 마전교(馬前橋) 서쪽 수중(水中)과 한강변(漢江邊)의 암석(岩石) 위에 세웠었다. 이 중 측우기의 발명은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가스텔리가 만든 측우기(1639년 제작)보다 거의 2백 년이나 앞섰으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이상의 기구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설(陣設)을 지어서 이를 사열(査閱)하여 익히고, 전함(戰艦)을 더 만들고, 성곽(城廓)을 더 만들고, 화약(火藥)을 양산(量產)하고, 화전(火箭)·화포(火炮)를 개량하여 우리 나라 무기(武器)사상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니, 천자화포(天子火炮)·지자화포(地字火炮)·황자화포(黃字火炮)·가자화포(架子火炮)·세화포(細火炮)의 사정 거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남은 물론 적중률도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도량형(度量衡)의 고정(考正) 실시로 물량 거래(物量去來)의 공정(公正)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경제적인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상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준에 공헌하였으며, 이 도량형의 표준은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준량(基準量)이 되었다.

농상(農桑)에 뜻을 두어 영농술서(營農術書)의 편찬 보급과 제언(堤堰) 개발 및 수차(水車)에

관한 연구로 농사물을 증산하였고,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종래에 모순이 많았던 조세 제도(租稅制度)를 연분 구등(年分九等)·전분육등(田分六等)의 54등급으로 확립,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조선조 5백 년 간의 조세 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의료 기관으로 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 등을 정비하고, 의방서(醫方書)를 편찬하여 향약(鄉藥)을 개발함으로써 의료 활동의 합리화를 기하였으니, 우리나라 의학사상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발간된〈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을 보면 한국산 의약(醫藥)이 광물성 109종, 동물성 220종, 식물성 374종, 도합 703종이나 나타난다. 이것을 볼 때 약재 생산에 있어서도 자주화 정책이 어떠하였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의방유취〉는 153종의 중국 및 우리 나라의 의방서에서 인용된 처방들로 이루어진 동양 최대의 편술(編述)일 뿐 아니라 본서에 인용된 방서들 중에는 그 후 원산지인 중국에서도 이미 망일(亡佚)된 것이 40여 종이나 되니, 이 책은 고전 한의학의 고증적 연구에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의 한방 의학 지식의 일목 요연하게 총괄할 수 있는 동양 의학의 백과사전으로서 우리 나라 의학의 전통적 발전을 자랑할 수 있는 거대한 업적이다. 그런데 이〈의방유취〉가 국내에는 한 책도 없고, 임진왜란 때 일본인 적장(敵將) 가등청정(加藤清正)에게 약탈되어 현재 일본 궁내청 능서부(宮內廳陵書部: 宮內省圖書寮)에 12권을 결(缺)한 2백 54권 2백 52책이 원상(原狀) 그대로 진장(珍藏)되어 있다.

세종 25년(1443)에는 세계 문자사상 획기적 업적인 우리 고유의 글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한글을 창제하여 그해부터 3년 동안 다듬고 이를 실제로 써보아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한 연후인 세종 28년(1446)에 반포함으로써 우리 문자 생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이로써 진정한 국문화를 비롯되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이 글자의 창제 반포에만 그치지 않고 보급에도 더욱 힘쓰시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왕의 정신을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 한문으로 된 경서(經書)와 불경(佛經)을 번역하고, 한자음(漢字音)을 정리하여 널리 백성의 교육 및 교화에 힘쓰시었다. 그 문자 창제의 취지를 밝힌 훈민정음 서문이나, 본인 자신이 지었다는〈월인천강지곡(月人千江之曲)〉에 나타난 한글의 주체 정신은 우리 겨레에게 무엇을 보여 주심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 각성하여야 하겠다.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탁월한 천재로서 박연(朴堧)을 시켜 아악(雅樂)을 정리하고 악기(樂器)를 제작하게 하였다. 특히 유량 악보(有量樂譜)인 정간보(井間譜)의 창제는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가 됨은 물론 서양 음악의 오선보(五線譜)가 15-16세기 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함을 볼 때, 세계 최초의 유량 악보라 할 수 있으며, 세종 악보(世宗樂譜)는 우리 아악(雅樂)의 연총(淵叢)일 뿐 아니라 동양의 고전 음악 연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한편 세종대왕은 박 연의 공을 칭찬하기를,

“그대는 내가 아니었다면 음악을 짓지 못했을 것이고, 나도 그대가 아니었다면 역시 음악을 짓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세종대왕은 회화(繪畵)와 서예(書藝) 및 도자공예(陶磁工藝) 등에도 정성을 모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련되고 격조 높은 발간을 이룩하였으니, 서예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琰)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회화에서는 안견(安堅)과 강희안(姜希顔) 같은 이들이 배출되어 독특한 우리 나라 화풍(畵風)을 형성하여 후대의 조선 화단은 물론 고려 시대와 같이 일본에도 많이 전해졌다. 그리고 한국적 특색을 보다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은 도자기(陶磁器)인데, 이 때는 고려 청자(靑磁)의 전통을 이은 청자가 한편으로 제작되었는가 하면, 그 전통에서 변천된 분청사기(粉靑沙器)와 회고 고운 백자(白磁)를, 도기(陶器)는 분청사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제148-155권)에는 전국의 자기소(磁器所) 139개소와 도기소(陶器所) 186개소, 도합 325개소의 가마터(窯址)가 기록되어 있으니, 이로 보아 당시 도자기의 생산이 얼마나 활발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의 그림으로서 유명한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天理大學圖書館)에 진장되어 있다.

세종대왕은 화재 예방에도 힘써 소방 체제(消防體制)를 확립하였으니, 세종 8년(1426) 음력 2월 20일(양력 4월 6일)에는 소방 시설면에서의 화재 대비책을 세웠고, 동년 동월 26일(양력 4월 12일)에는 방화(防火)·소화(消火) 업무를 전장(專掌)하는 기관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여 백성들이 재산 피해를 막았다. 그 금화도감은 설립된 지 4개월만인 동년 6월 19일(양력 8월 1일) 성문도감(城門都監)과 병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일컬었는데, 여기에서는 소방(消防)과 금화(禁火) 업무 외에 도성(都城)을 수축(修築)하고, 천거(川渠)를 소통시키고, 길과 다리를 수리하는 일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교육 기관으로 중앙과 지방에 성균관(成均館)·사부학당(四部學堂: 東·西·南 中部學堂)·종학(宗學)·향교(鄕校)를 설치하여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과거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기관 중 성균관과 사부학당 및 종학은 중앙에 있는 기관이고 향교는 지방에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성균관은 오늘날의 국립대학격이고, 사부학당은 중등교육과 정격인데 성균관의 부속 학교라 할 수 있다. 이 사부학당은 그뒤 세조 12년(1466) 관제 개혁 때 동·서·남·중학(東·西·南·中學)으로 개칭되어 이후 사학(四學)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사부학당(四部學堂)에다 북부학당(北部學堂)을 포함시켜 흔히 오부학당(五部學堂)이라고도 하나 실제로 북부학당은 개국 당초부터 개설되지 않았고, 세종·성종 때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끝내 개설되지 않았다. 종학(宗學)은 세종 9년(1427년) 음력 9월 4일(양력 10월 3일)이후에 대군(大君) 이하 임금의 8촌까지의 종실(宗室)의 자제와 부마(駙馬)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중앙에 창설한 특수학교로서, 학사(學舍)는 경복궁(景福宮) 동문(東門)인 건춘문(建春門) 밖에 세웠었는데, 종친(宗親)의 자제는 나이 8세가 되면 모두 학교에 들어가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경서(經書)를 글귀로만 풀이하는 것은 학문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마음의 공부가 있어야 만 이에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법률(法律)에 옥송(獄訟)을 밝게 논의하고 공평(公平)하여 형벌이 청정(淸正)하였으니, 이를테면 죄인의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한 사죄 삼복법(死罪 三覆法)의 실시, 법의학서(法醫學書)인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을 편찬 발간함으로 인한 검시(檢屍) 제도의 도입 등이다.

오례(五禮)가 미비된 것을 염려하여 고금을 참작하여서 정례(定禮)를 제정하여 풍속을 바로잡음과 아울러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지어 풍속을 권려(勸礪)하였고, <명황계감(明皇誠鑑)>을 지어 후세에 제왕의 일락(逸樂)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와 <치평요람(治平要覽)>을 엮어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본받도록 하였고, <역대병요(歷代兵要)>를 엮어 전쟁(戰爭)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으로 양로연(養老宴)을 설치하니, 남자는 임금이 친히 임어(臨御)하고, 여자는 왕비가 친히 연향(宴饗)하며, 주·부·군·현(州府郡縣)에 있는 사람은 수령(守令)이 몸소 향연(饗宴)하게 하였다. 일백 세 이상된 늙은이에게는 매달 술과 고기를 주었고, 90세 이상 된 사람에게는 작위(爵位)를 차등있게 내려 주었으며, 이리하여 은사(恩賜)가 미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간각(間閣)의 제도를 세워 국민들로 하여금 그 분수에 넘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생활의 지나친 사치와 침람(侵濫)된 풍습을 막아 온 백성이 비교적 고루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였다.

일에는 크게 작은 것이 없이 반드시 대신들과 더불어 모의(謀議)한 뒤에 시행하였으므로 잘못된 일이 없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열고 간언(諫言)을 구(求)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다 하도록 힘썼으며, 말이 비록 적중(適中)하지 못하더라도 죄를 주지 않으셨다.

전주 출척(銓注黜陟)의 법(法)이 지극히 정밀하고 잘 갖추어져, 요행(僥倖)을 바라는 자가 자취를 감추고 현량(賢良)이 등용되었다.

수령(守令)이 배사(拜辭)하면, 인견(引見)하여 출신(恤民)의 정치를 타일러 사람마다 스스로 면려(勉勵)하게 하였다.

종교에 있어서도 유교를 장려하여 도의정치(道義政治)를 구현하는 한편, 세종 6년(1424) 음력 4월 5일(양력 5월 12일)에는 불사(佛寺)를 정리하여 선종(禪宗)·교종(敎宗) 36사(寺)만을 남겨 불도(佛道)를 정하게 닦도록 하였으며, 세종 30년(1448)에는 경복궁(景福宮) 안에 내불당(內佛堂)을 짓게 하고, 불교 서적의 간행 배포와 과거에 승과(僧科)를 설치하는 등 불교 발달에 노력하여 유교와 불교가 조화된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세종대왕의 위업은 이러한 내치(內治)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내치 못지 않게 눈부신 업적을 남기시었으니, 세종대왕은 명나라와 유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세종 원년(1419)에는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對馬島)를 토벌하게 하여 항복을 받음은 물론 경상도 계림(鷄林)에 예속시켰다. 또 세종 15년(1433)에는 최윤덕(崔閔德)에게 명하여 파저강(波邱江) 일대의 야인들을 토벌하여 사군(四郡)을 설치하고,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동북 변경인 함길도 지방의 여진(女眞)을 토벌하여 육진(六鎭)을 설치함으로써, 동북과 서북쪽의 땅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확장하는 한편, 우리 강토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세종대왕은

국토 방비책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해문(海門)의 방어는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계(器械: 무기(武器))를 수리하고 호령을 엄중히 하여, 항상 적국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하여, 적으로 하여금 감히 우리를 엿볼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대왕은 이와 같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토를 개척하는 한편, 나라 안의 지리(地理)를 조사하게 하여 지리지(地理志)를 편찬하게 하고, 그와 병행하여 정확한 실측지도(實測地圖)를 제작하게 하였으니, 그것이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 등에 의해서 세조 9년(1463년) 음력 5월에 이루어지고 동년 음력 11월 12일(양력 12월 30일) 임금에게 바친 동국지도(東國地圖)이다. 이때 편찬된 지리지나 지도는 군사상·정치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음은 말할 것 없고, 오늘날 우리 국토 개발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제작된 동국지도(東國地圖)는 현재 일본 동경(東京) 내각문고(內閣文庫)에 진장(珍藏)되어 있다.

이렇듯 세종대왕은 겨레 생활을 존중하는 모든 제도의 완성을 이루어 국태 민안, 문화 찬란의 황금 시대를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당시에 해동(海東)의 요순(堯舜)이라고 불렀다.

세종대왕은 약관이 겨우 지난 22세의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시어 3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54세가 되시던 해인 세종 32년(1450) 음력 2월 17일(양력 4월 8일) 대왕의 여덟째 아드님인 영응대군(永膺大君) 염(瑛)의 집 동쪽 별궁(別宮)에서 승하하셨다. 문종(文宗) 즉위년(1450) 음력 6월 12일(양력 7월 29일) 유명(遺命)에 따라 부왕 태종의 능 헌릉(獻陵)의 곁인 경기 광주 대모산(大母山) 기슭(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산13번지)의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가 안장된 영릉(英陵) 서실(西室)에 합장(合葬)되었다.

그 뒤 풍수지리상(風水地理上)으로 볼 때 이 영릉이 길지(吉地)가 못된다 하여 예종(睿宗) 원년(1469) 음력 3월 6일(양력 4월 26일) 여흥부치(驪興府治)의 북쪽 성산(城山)의 남향(南向)한 언덕에 천안(遷安)하였으니, 그 곳이 바로 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83번지의 땅이다.

세종대왕은 돌아가셨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왕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흠모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니, 세종대왕은 배달 겨레와 함께 이 나라에 영원이 살아계시다.

(2) 인 간 상

세종대왕은 우리 나라 반만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다. 외국의 역사기들도 세종대왕을 가리켜, ‘조선조 5백년 동안 여러 임금 가운데 비범한 어진 임금이다’라고 칭찬하였고, 당대의 백성들은 ‘동방의 요순(堯舜)이다’라고 기리었다. 그것뿐만 아니다. 세상에서 역사를 말하고, 문화를 생각하고, 도덕을 탄식하고, 정치를 근심할 때마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세종대왕을 생각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세종대왕은 항상 백성의 가난과 무식을 없애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민본주의 사상을 정치의 이상으로 삼아 임금 자리에 계신 32년 동안 이 나라의 발전과 겨레의 번영을 위하여, 문화, 경제, 정치, 과학, 교육, 군사 등 여러 방면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이러한 위업 때문

에 우리 국민들은 세종대왕을 우리 역사상 최대의 위인이요 최고의 은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이 세종대왕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이요, 또 겨레의 큰 스승으로 받드는 까닭은, 한 지도자로서 정치를 잘하여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겨 우리 민족에게 혜택을 준 한 임금의 지력만으로도 아니라, 그분의 인간성과 학문의 바탕이 어느 누구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남다른 성현(聖賢)이 덕성과 인격을 아울러 갖춘 어른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세종대왕은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침묵(沈默)하고 말이 적어 깊고 그윽한 용자(容姿)가 있었다. 태종은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총녕대군을 불러서 처리하게 하여 시험해 보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임금이 되심에 미쳐 총명하고 예지(叡智)함은 여러 물건을 먼저 만들어 내는 거룩함이었고, 관유(寬裕)하고 온유(溫柔)함은 백성을 포용하고 중생(衆生)을 기르는 덕(德)이었다. 이리하여 정치가 시행되지 않는 바가 없었고,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었다.

세종대왕의 위업과 정신에 대하여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바이나, 그분의 인품인 인간상에 대하여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대왕이 남긴 불후의 업적과 문헌에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대강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세종대왕은 효성이 지극한 분이시었다. 대왕이 일찍이 말씀하기를,

“아버이의 사랑은 하늘 같이 높고 땅 같이 두터워서, 그치고 넘치는 은덕은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 된 자의 지극한 정리로서는 오로지 아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대왕은 대비(大妃)가 승하하였을 때 상제(喪制)에 대한 말을 듣고 예조 판서 허조(許稠)와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 변계량(卞季良)을 불러 말씀하기를,

“내가 듣건대, 나로 하여금 역월지제(易月之制)를 행하여 13일 만에 복을 벗으라 하니, 참말인가? 이것이 비록 송(宋)나라 제도이나, 나는 일찍이 이는 야박한 행실이라 하였는데, 이제 이에 나로 하여금 이를 행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은 국사로 바쁜 몸이지만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하여야 한다는 마음에서 역월지제(易月之制)를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 조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 입는 것은 예경(禮經)에 적혀 있고, 역월지제는 행한지 오래이며, 또 상왕 태종의 선지(宣旨)를 받들어 이미 상제(喪制)를 정하였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관례를 너무 무시하거나 부왕의 선지를 거역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에 한걸음 양보하여 본인만은 산릉(山陵) 후에 최질(衰絰)을 벗을 터이니, 백관들은 13일만에 최복을 벗고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로 바꿈이 어떠한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허조는 세종대왕의 효심에 감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지극하시니, 신들이 어찌 감히 다시 아뢰겠습니까? 백관들도 역시 마땅히 산릉 후에 최복을 벗겠습니다.”하였다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바쁜 정사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는 혼정 신성(昏定晨省)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

또 세종대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 이를 반대하다가 귀양살이를 간 황희(黃喜)·이직(李穡) 등을 다시 불러 중하게 썼는데, 이는 곧 세종대왕의 넓고 큰 도량을 보여주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왕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황희 같은 이는 거의 20여 년간 줄곧 영의정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세종시대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큰 구실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세종대왕은 또 선조(先祖)를 경애하는 뜻으로 <용비어천가>를 지어 의식 때마다 이것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시었다.

이렇듯 세종대왕은 아버지를 받드는 데 있어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받들었고, 아버지가 살아 계신 날을 아낄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며, 부모의 뜻을 그 돌아가신 뒤에도 그대로 받들고 조금도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세종대왕은 우애가 지극하신 분이시었다. 만형 양녕대군(讓寧大君)은 천성이 유량하며 풍류를 즐기는 기질이라 일찍이 여색으로 인하여 폐세자되어서 광주(廣州)에 내침을 받아 있는 것을 신하들이 없애도록 줄곧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왕께서는 그럴 때마다 혹시나 양녕에게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뒤로 보살펴줌은 물론, 서울로 불러들여 사랑으로 비호(庇護)하여서 일생을 고이 지내게 하였다. 중형(仲兄) 효령대군(孝寧大君)의 병이 위중하였을 때에는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시었을 뿐만 아니라 효령대군의 별서(別墅)에 들러 정자의 이름을 희우(喜雨)라 지어주고 위로연(慰勞宴)도 베풀어 주었다. 또한 아우 성녕대군(誠寧大君)의 병이 심해지자, 의원(議員) 원학(元鶴)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항상 동생의 곁에 있으면서 방서(方書)를 궁구(窮究)하여 일찍이 손에서 놓지 않고 친히 약(藥餌)을 잡아 병을 구료(求療)하니, 부왕과 모후가 그 지성에 감복하였다.

일찍이 지신자(知申事) 원숙(元肅)이 세종대왕께 아뢰기를,

“양녕대군이 전하의 우애가 지극함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몸쓸일만 하여 주상의 덕을 손상시키니, 매와 개와 마필(馬匹)을 거두어들여 앞일을 방비하여야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의 몸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전하가 비록 보전하려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하니, 세종대왕께서 말씀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마는 무슨 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오로지 정욕(情欲)을 금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니, 노성(老成)하여지면 이런지는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젊어서는 주색(酒色)에 대한 욕망을 이기기가 어렵고, 나이가 들어서에는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사람들에게는 극기(克己)의 수양(修養)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곧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요한 정적(靜的)인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은 욕망을 극복하고 이성을 되찾는 자기 수양의 공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정욕을 이

기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세종대왕은 사람의 모든 죄악이 정욕을 금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간파(看破)하고 국민 교화에 힘쓰셨으니,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근본을 둔 유교의 이념을 가르쳐 사람의 마음을 순화(醇化)시켜서 정욕을 억제하게 하는 한편, 불교의 힘도 빌려 인간의 마음을 정화(淨化)시키는 데 힘썼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참제한 훈민정음을 가지고 불경(佛經)과 경서(經書)를 언해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세종대왕은 호학(好學)의 임금이다. 왕자로 있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충녕군(忠寧君)으로 있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일찍이 경미한 병환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독서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태종(太宗)이 근심하여 환관을 시켜서 그 서책을 다 가져다가 감추게 하였는데, 그 사이에 구소수간(歐蘇手簡: 송나라 구양수(歐陽修)와 소식(蘇軾)의 편지를 추려 뽑아 만든 책) 한 권이 남아 있어, 드디어 이 책을 다 보시었다. 즉위하심에 이르러서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비록 수라(水喇)를 들 때라도 반드시 책을 펼쳐 좌우에 놓았으며, 혹은 밤중이 되도록 힘써 보시고 늦게 잠자리에 드시고도 매일 사야(四夜: 사경(四更))면 옷을 입고, 날이 환하게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政事)를 보고, 다음에 윤대(輪對)를 행하고, 다음에 경연(經筵)에 나아갔으며, 이어서 내전(內殿)에 들어가 경전(經典)과 사서(史書)를 열람(閱覽)하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근신(近臣)에게 말하기를,

“내가 궁중에 있으면서 손을 거두고 한가롭게 앉아 있을 때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러하기 때문에 경적(經籍)에 널리 통하시었고, 역사(歷史)에 이르기까지 보시지 않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치통감훈의(自治通鑑訓義)> 찬술 당시에는 늘 밤늦도록 교정을 하였고, <강목(綱目)> 편찬 때에는 하나하나 재단(裁斷)하였다. 심지어는 <자치통감훈의>를 손수 보기 때문에 윤대(輪對)를 정지시키기 까지 하였다.

또 근신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서적을 본 뒤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시었으니, 태종의 말씀과 같이 그 총명하심과 학문을 좋아하시는 것은 천성(天性)이 그러하셨던 것이다.

또 처음으로 집현전(集賢殿)을 두고 글 잘하는 선비를 뽑아 고문(顧問)으로 하고, 경서와 사기를 열람할 때에는 즐거워하여 싫어할 줄을 모르고, 희귀한 문적이나 옛사람이 남기고 간 글을 한 번 보면 잊지 않으며, 증빙(證憑)과 원용(援用)을 살펴 조사하여서, 힘써 정신차려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다. 이로써 문(文)과 무(武)의 정치가 빠짐없이 잘 되었고, 예악(禮樂)의 문(文)을 모두 일으켰으며, 종률(鍾律)과 역상(歷象)의 법 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그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것인데, 모두 세종대왕 때에 발명한 것이다.

세종대왕의 학문은 이와 같이 어느 분야건 통하지 않는데가 없었으니, 자신의 몸 관리에 대하여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당시의 대제학 윤희(尹淮)는 세종대왕에게 말씀드리기를,

“밤에 잔 글씨를 보면 눈병이 나실가 두렵습니다.”

라 하였다. 세종대왕은 공부를 계속하는 바의 유익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금은 늙어서 능히 기억하지 못하나 지금에도 오히려 글 읽는 것을 치우지 않은 것은, 다만 글을 보는 동안에 생각이 일 깨워져서 여러 가지로 정사에 시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넷째, 세종대왕은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이시었다. 부왕 태종에 의해 외삼촌 4형제(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민무회(閔無悔)·민무휼(閔無恤))가 모두 멸문(滅門)의 화(禍)를 입고, 또 대왕 자신도 처가 일문이 멸족(滅族)을 당하였지만, 태종이 승하한 뒤에도 아버지의 뜻을 높이 받들어 외가와 처가의 신원(伸冤)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그 옥사에 가담하였던 반대파 몇몇 중신들이 간신들의 잘못을 꾸우치고 신원(伸冤)하기를 상소까지 하였는데도 아버지께 대한 효심을 지키기 위하여 끝내 부왕의 처사(處事)를 존중하고 윤택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벌을 주기를 청하는 대간(臺諫)의 끈질긴 언론(言論)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형제의 도리를 다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 24년(1442)에는 첨사원(添事院: 동궁 첨사원(東宮 添事院))을 설치하였다. 또한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의 문자 참제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참제 반포하였으며, 조정(朝廷)의 신하들과 성균관 유생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경복궁 안에 내불당(內佛堂)을 지었다. 고제도 연구의 결과도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알맞는가를 따져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다.

세종대왕이 말씀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 다스린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신중한 전력을 다하였다. 세종 시대의 모든 눈부신 업적은 세종대왕이 이렇듯 신중을 기함은 물론 전력을 다한 결과 이룩된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은 옳다는 바는 끝까지 관철하는 강한 신념(信念)의 소유자이었다.

다섯째, 세종대왕은 인정이 두터우시며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시었다. 옥(獄)이란 원래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닌데, 옥에 갇힌 죄인이 병들어 죽는 이가 많음은 자기의 본뜻이 아니라 하시고, 옥관으로 하여금 추위와 더위와 질병과 주립이 없도록 옥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며, 병든 이가 있으면 치료하게 하고, 갇힌 자의 가족이 곤란한 이는 옷과 양식을 주게 하였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아전이 있으면 엄벌에 처하였다.

세종대왕은 외직관(外職官)이 하직할 때마다 말씀하기를,

“형벌을 삼가고 백성을 사랑하라.”

고 하였다. 또 세종대왕은 사간원 장무관(掌務官)에게 말씀하기를,

“선(善)을 선하게 여김은 길게 해야 하고, 악(惡)을 미워하는 것은 짧게 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남형(濫刑)을 금하고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삼심제도(三審制度)인

삼복법(三覆法)을 실시하였고, 배태법(背苔法)을 둔태법(臀笞法)으로 바꾸어 등과 같은 인체의 중요 기관을 치는 고문을 엄금시키었다. 또 법의학서(法醫學書)인〈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을 편찬 발간함으로써 인명 치사(人命致死)의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살상검증(殺傷檢證)에 관한 검시(檢屍)의 제도를 실시하게 되니, 형정(刑政)에 획기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15세 미만인 어린이와 70세가 넘는 늙은이는 살인죄나 강도죄가 아니면 가두지 못하며, 10세 이하와 80세 이상인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더라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천민인 노비(奴婢)라 하더라도 노비에게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관에 진고(陳告)함이 없이 주인 마음대로 구타 살해함을 금지시키었다.

옛적에 관비(官婢)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었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이를 딱하게 여겨 일찍 1백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분만 전 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쳐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그러자 세종대왕은,

“만약 산기에 임하여 1개월 간의 복무를 면제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의논하여서 법을 제정하게 하니 성정소에서 아뢰대로 아이를 낳을 달과 생산 후 1백일 동안을 관비(官婢)의 분만 휴가로 정하였다.

신하들이 병이 나면 약(藥餌)을 내려 주거나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선비를 부려 쓰되 생활에 구애됨이 없게 하는 등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두터운 인정을 베푸심은 물론 신의를 보 이켰다. 세종대왕은 말씀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덕(薄德)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생민(生民)의 주(主)가 되었으니,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무수(撫綏)하는 방법만이 마음 속에 간절하여, 백성에게 친근에 관원을 신중히 선택하고 출척(黜陟)하는 법을 거듭 단속하였는데도 오히려 듣고 보는 바가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된다.”

라고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신(信)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대왕은 전대(前代) 선악의 권징(勸懲)이 될 만한〈치평요람(治平要覽)〉을 편찬하여 후세의 백성에게까지 악정을 예방하시었고, 〈명황계감(明皇誠鑑)〉을 만들어 좌우명(左右銘)으로 삼을 뿐 아니라 후세의 사나운 임금을 예방하게 하시었다.

또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것이라든가 해시계인 양부일구(仰釜日龜) 등을 만든 것도 백성을 깊이 생각한 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겠으니, 얼마나 인권을 중하게 여겼으며 정의감이 투철하였나를 알 수 있다.

여섯째, 세종대왕은 과학적인 두뇌를 갖춘 과묵한 분이시었다. 세종조의 문화가 우리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은 세종을 보좌하는 여러 신하(왕자 포함)의 노력도 컸지만,

그보다도 세종 자신의 무한한 노력에 의한 학문의 비탕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치밀한 계획 아래 정책을 세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 안목으로 끈질기면서도 지성스럽게 일을 진행시킨 성과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결과는 명철하고도 과학적인 두뇌를 갖춘 과묵한 지도자의 옳은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왕 태종은 일찍이 세종대왕을 평하기를, ‘관홍장중(寬弘莊重)하다’라고 하였다.

세종대왕은 말씀하기를,

“대개 그 일을 쉽게 여기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나, 그 일을 어렵게 여기고 하는 이는 이를 반드시 이룬다.”

라고 하였으니, 그 일하는 자세가 어떠하였나를 알 수 있다.

이 밖에는 세종대왕은 부부의 정이 두터우신 분이며, 생활은 검소 절약을 우선으로 한 분이시다.

세종대왕은 부왕이 처리한 처가 일문이 멸족 당한 일의 진상을 잘 알면서도 아버지의 처사를 존중하여 끝끝내 신원(伸冤)을 운허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당신의 답답한 심정을 비(妃) 소헌왕후(昭憲王后)에게 털어놓고 왕후를 위로하였던 것이다. 그때마다 왕후는 오히려 대왕의 훌륭한 인격과 효심(孝心)에 감동하고, 그 넓고 두터운 사랑에 감읍(感泣)하였다. 이것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가 서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길을 효심과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 사랑을 지고(至高)의 경지까지 승화시킨 부부애(夫婦愛)의 영원한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또 세종대왕은 소헌왕후가 돌아가자 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짓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아들들에게 경계하기를 ‘무릇 사람이 젊어서 호화로우면 장성하여 교만하고, 젊어서 고생을 겪으면 커서 성취함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 세종대왕은 상림원(上林園)의 관원이 화초(花草) 그릇을 비치하기를 청하니 말씀하기를,

“나는 천성이 화초를 좋아하지 않는다. 유사(有司)는 마땅히 뽕나무·닥나무·과실나무를 채우기에 힘써야 할 것이니, 이것들은 모두 일용(日用)에 긴요한 것들이다.”

하였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생활의 지나친 사치와 참람(僭濫)된 풍습을 막기 위하여 분수에 넘치는 가옥을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관청의 경비 절약을 호조판서에게 이르게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함부로 써도 안되고 또 인색하게 아껴도 안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의 용도가 혹 지나치게 허비하는 것이 있는가 염려되니, 자상하고 밝은 관리를 택하여 각사(各司)의 경비(經費)와 식례(式例)를 상정(詳定)하여 아뢰라.”

하고, 드디어 식례색(式例色)을 두었다.

이와같이 세종대왕은 자기 수양으로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찾았으니, 거의 완전한 인격자이시다. 끊임 없는 독서로 자기를 발전시켜간 실천가이시며, 온갖 미덕과 선정을 베푸신 어른이시다. 세종대왕의 인품은 한 마디로 말해서 아주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가지신 성군(聖君)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과 한글

가 략 이 병 기

(1891~1968)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지마는, 우리에게 가장 고마우신 이는 세종대왕(世宗大王). 그러하신 이가 만일 아니 나셨더라면 즐풍목우(櫛風沐雨)하던 태조(太祖)의 창업(創業)도 어찌 되었을는지, 그건 그만 두더라도 한글과 같은 막대 막중한 보배가 있을는지 모를 것이다. 이러하신 이의 행적(行蹟)과 또는 한글을 만들어 내시던 때의 그 고심(苦心)은 어떠한지 그걸 이루 다 들어 말할 수는 없으며, 비록 단편적이거나 그 몇 가지라고 알아둬도 그다지 불필요한 일은 아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조 태조 6년(1397) 정축(丁丑) 4월 10일, 한양(漢陽) 잠저(潛邸)에서 태종(太宗)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시고, 재위(在位) 32년 보령(寶齡) 54세 되시던 해(1450) 2월 17일에 승하(昇遐)하시어, 여주(驪州) 서북산(西北山)에 장(葬)하셨다.

세종대왕께서는 처음에는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봉(封)하였다. 태종 18년(1418) 6월에 세자(世子)가 되시었다. 여기에 대하여 속전(俗傳)하는 여러 말들이 있으니,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다.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세자 제(提: 태종이 큰아들인 양녕대군(讓寧大君))가 실덕(失德)하였다고 폐하기를 청한즉, 태종은 제(提)의 큰아들을 세워 사속(嗣續)하고자 하였다.

군신(群臣)이 모두 말하되,

“전하(殿下)께서 세자를 교양(教養)함에 지극하셨어도 그러한데, 지금 어린 손자를 세우시고 어찌 될는지 알 것이며, 더구나 그 아비를 폐하고 아들을 세우는 도리가 있으리까. 어진 이를 택하여 세우소서.”하였다. 태종은 가로대,

“경(卿)들이 마땅히 어진 이를 택하여 말하라.”하니, 군신은 또 말하되, “아드님 아시기는 군부(君父)와 같으신 이가 없으니, 몸소 택하옵소서.”하였다. 태종은 가로되,

“충녕(忠寧)은 천성이 총민(聰敏)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성한극서(盛寒極暑)라고 밤새도록 글을 읽으며, 손에서 책을 놓을 때가 없으며, 치체(治體)에도 통달하니, 나는 충녕으로서 세자를 삼고자 하노라”하매, 군신은 하례하되,

“신들, 이른바 어진 이를 택하시라는 것도 또한 충녕(忠寧)을 가리킴이라.”하고, 즉시 세워 세자를 삼았다.

서상(敍上)한 것만으로도 세종대왕의 성격과 더욱이 학문을 좋아하시고, 독서를 즐기시고, 만기(萬機)를 밝게 살피시던 거룩한 성군(聖君)이심을 넉넉히 짐작하려니와, 궐내(闕內)에 집현전(集

賢殿)을 두어 문인(文人) 학사(學士)를 양성하고 찬술(纂述) 제작(製作)이 많으며, 해적(海賊)과 야인(野人)을 치고 사군(四郡)을 두고 육진(六鎭)을 개척하는 등, 업적이 163권 154책(冊)이나 되는 거대한 보록(寶錄)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물론 한글을 만들어 반포(頒布)한 일이다.

〈실록(實錄)〉을 보면, 세종(世宗) 25년 12월 상(上)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으시었다 하고, 세종 28년(1446) 9월 29일조(條)에는 “시월훈민정음성(是月訓民正音成)”이라 하였는데, 〈용재총화(慵齋叢話)〉를 보면 신라(新羅) 때부터 이두(吏讀)가 있어 관부(官府), 민간이 써 오나 그 건 모두 한자를 빌어 쓰므로 껍 난삽(難澁)하고 또는 몽롱(朦朧)한지라, 상(上)이 이르되, “제국(諸國)이 각기 문자를 지어 제 국어를 기록하나, 우리나라는 없다.”

하시고, 자모(字母) 28자를 만드시고, 금중(禁中)에 청(廳)을 두고,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들을 명하여 선정(選定)하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하며, 〈앙엽기(盎葉記)〉에는 세종대왕이 뒷간에 가시어 뒤를 보다가 뒷나무(廁壽=廁木)를 배열해 보시고 만들었다고 지금까지도 전하는 말이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만드실 때 이러하신 일도 있을 듯하다. 이것이 일조일석에 얼른 되어질 것이 아니매, 여러 해포를 두고 어느때 어느 곳에든지 끊임이 없는 연구를 쌓으셨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성삼문 같은 학사와 더불어 의논도 하여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이런 글을 만드심을 껍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문자(한문)와는 조금도 간섭이 없는 위항열어(委巷淫語)를 전용(專用)하는 것이라고 강경히 항소(抗疏)를 하는지라, 그 때 부제학(副題學) 최만리(崔萬理), 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 직전(直殿) 김문(金汶),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 부교리(副校理) 하위지(河緯地), 부수찬(副修撰) 송처검(宋處儉), 저작랑(著作郎), 조근(趙瑾)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야 훈민정음(한글)을 반포하였다.

정음(正音)을 한 번 반포한 뒤로는 더욱 그 사용함을 장려하여 관문서(官文書)에도 쓰게 하고, 이조(吏曹)의 이과(吏科), 이전(吏典)을 취재할 때에는 이것으로써 시험을 보게 하였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남명집(南明集)〉, 기타 불경(佛經) 번역 등 굉장한 찬술(纂述)도 있었다. 남명집과 같은 것은 세종대왕께서 친히 30여 수(首)를 번역까지 하셨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문화사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큼직한 자취를 놓았고, 이 자취를 밝고 영원히 그 광(光)을 저버릴 수 없다.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의
창제

임 용 기
(연세대학교 교수)

I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관해서는, 1446년에 간행된〈훈민정음〉해례본의 어제 서와 정인지 서, 1454년에 간행된〈세종장헌대왕실록〉권제102의 25년(계해) 12월의 기사, 그리고 1478년에 편찬된〈동문선〉에 나오는〈직해동자습〉의 성삼문 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매우 설득력 있는 글도 이미 여러 편 발표된 적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이제 별다른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것을 선뜻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세종대왕 같은 성군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역사발전의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도 맞지 않으므로, 한번쯤은 마땅히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대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훈민정음〉해례본과 이 책의 간행 전후에 나온 몇 가지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아가 훈민정음 창제는 물론 그 이후의 세종대왕의 일련의 어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간행된〈동국정운〉,〈사성통고〉,〈홍무정운역훈〉,〈직해동자습〉 등의 편찬 과정과 이

사업에 관여한 이들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타당성을 밝히려 고 한다.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의 우리말 표기 체계인 넓은 의미의 이두와, 중 국의 한자음 표기 방법인 반절법이 훈민정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 자 체계로서의 훈민정음이 갖는 특징은 물론, 이것을 통하여 훈민정음의 창제는 적어도 그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소리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과 방법, 곧 당시의 중국 성운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음운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훈민정음 창제는 물론, 그와 관련있는 일련의 어문정책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음운학자로서의 능력과 과단성 있는 실천력을 갖춘 이가 아니고서는 불가 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II

훈민정음 창제와 그것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일련의 어문정책 사업에 관여한 이 들은, 그들이 한 역할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곧 첫째는 훈민정음을 만든 이이고, 둘 째는 훈민정음 창제는 물론, 창제 이후의 일련의 어문정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납 등 그 사업에 필요한 일반 서무를 관장하는 이들이고, 셋째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사업인 <훈민 정음> 해례본, <동국정운>, <사성통고>,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등의 편찬에 직접적으로 참여 한 이들이다.

이 세 부류 가운데서, 먼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훈민정음을 창제 한 이는 세종대왕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1447년에 편찬된 <동국정운>의 신숙주서에 보이는 “어제 훈민정음”이란 표현과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 권두에 실린, 이른바 <훈민정음> 언해본의 첫 머리에 나오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란 글제 밖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헌 자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더불어 서로 통하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수 없는 이가 많으므로,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어,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위의 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제 서에서 따온 것인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글은 세종대왕이 친히 쓴 글이고, 또 여기서 훈민정 음 스물여덟 글자를 당신이 손수 만들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훈민정음의 세종대왕 친제는 아주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에는 훈민정음의 세종대왕 친제 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리 동반의 예악과 문물이 중국에 나란히 견줄 만하지만, 다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가 더불어 같지 못하여, 글을 배우는 이는 한문의 뜻의 깨닫기 어려움을 걱정으로 여기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이는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병통으로 여긴다. 신라의 설총이 비로소 이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쓰고 있지만, 그리고 한자를 빌어서 씀이 혹은 껌껌하고, 혹은 막히어, 다만 비루(鄙陋)하기가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 이르러서는 능히 만분의 일도 통달하지 못한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에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예의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름을 지어 훈민정음이라고 하시었다...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리신 성군으로 문물과 제도를 만들고 베푸심이 못 왕들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을 지으신 조술(祖述)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이루신 것이다.

위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훈민정음 28자를 세종대왕이 친제하였음은 물론, 새로 만든 글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은 이도 세종대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종 당신은 물론,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인식도 아울러 알 수 있다. 곧 한문의 어려움은 물론, 당시 우리말을 적는 수단의 한 가지였던 이두의 불완전함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훈민정음은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창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친히 창제했다는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에 나오는 '예의(例義)'와 '해례(解例)'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침내 자세하게 해석을 더해서 못사람들을 깨치게 하시니, 이에 신과 집현전 응교 신 최항, 부교리 신 박팽년, 신 신숙주, 수찬 신 성삼문, 돈녕부주부 신 강희안, 행집현전부수찬 신 이개, 신 이선로 등이 삼가 제해(諸解)와 예(例)를 지어 그 대략을 서술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승에게 본받지 않더라도, 저절로 깨닫게 하였다. 그러나 그 연원과 자세한 뜻의 묘함 같은 것은 신 따위들이 능히 발휘할 바가 아니다.

곧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보였는데, 그것을 누구나 스승이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것이 '해례'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훈민정음의 연원과 자세한 뜻의 묘함 같은 것은 신들이 말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친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세종실록〉 권제 102의 25년 12월 기사에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친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이 글은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아주 간결한 기사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친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28자를 만드셨는데, 이 글자는 고전(古篆)을 닮았다. 그것을 나누면, 초성, 중성, 종성이 되는데, 그들을 합한 뒤에야 글자가 이루어진다. 무릇 문자 및 우리말까지 적을 수 있다. 글자는 비록 간요하지만, 전환이 무궁한데, 이를 훈민정음이라 한다.

신숙주가 쓴 <홍무정운역훈>서에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말소리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우리 세종 장헌대왕께서는 운화(韻學)에 마음을 두시고, 그 저운(底蘊)을 궁극히 연구하셔서, 훈민정음 약간 자를 창제하시니, 사방 만물의 소리를 전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었다. 우리 동방의 선비들이 비로소 사성과 철음이란 제대로 갖추지 않는 데가 없어서, 특히 자운(字韻)만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

성삼문이 쓴 <직해동자습>서에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친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직해동자습>은 중국어 교습서인데,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 말미암아 편찬이 가능하게 된 일종의 중국어 입문서이다.

우리 동방은 해외에 있으므로, 언어가 중국과 더불어 다르다. 따라서 번역을 통해서만 통한다. 우리 조종으로부터 사대하기를 지성으로 하여 왔으므로, 승문원을 두어서는 이문을 맡기시고, 사역원을 두어서는 역어를 맡기시어, 그 일을 오로지하게 하시고, 또 그 임무를 오래도록 하게 하시니, 그 생각하시는 것이 두루 미치지 아니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한음을 배우는 이가 골라서 전하는 나머지를 얻어서, 이어받고 전해 줌이 이미 오래되어, 그릇됨이 점점 많아져서, 세로로는 사성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로로는 철음의 청탁을 잃어도, 또한 중원의 학사가 옆에 있어서, 바로잡아 주는 것도 아니다. 숙유(宿儒)나 노역(老譯)이라 일컫는 이들도 종신토록 그대로 가서, 고루한 가운데 마치고 만다. 우리 세종과 문종께서 이것을 개연히 생각하시어, 이미 훈민정음을 만드셨으니, 천하의 소리를 비로소 다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었다.…… 두분 성인의 제작의 묘함이 높이 백대에 뛰어 나시며, 이 책의 번역도 외천보국(外天報國)을 위한 지극한 계획이 아닌 것이 없음을 볼 수 있거니와, 우리 성상의 선계선술(善繼善述)의 아름다우심도 또한 극진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글에는 훈민정음이 우리 말 밖에 중국의 한자음까지도 적을 수 있는 글자라는 것과 함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앞에서 인용한 글들과는 달리, 세종대왕 밖에 문종 또한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문종이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한 사실은 세종실록 권제103의 26(갑자)년 2월 20일(경자) 기사, 곧 최만리 등의 정음 창제 반대 상소에도 나타난다.

선유가 이르기를 무릇 백 가지의 보배스럽고 보기 좋은 물건이 모두 뜻을 빼앗는다고 하니, 서찰에 이르러는 유자의 일에 가장 가깝다고 하여도 줄곧 즐기어서는 또한 스스로 뜻을 잃게 되니 것입니다. 이제 동궁에서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더라도, 아직 마땅히 성화에 잠심하셔서, 더욱 그 이르지 못하신 것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비록, 말하기를,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선비의 육예의 하나일 뿐이거든, 하물며 치도에는 만만일리가 없는데도, 정신을 쓰시고 생각을 허비하심에, 날이 미치고, 때가 옮기니, 실로 시민(時敏)의 학문에 손됨이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는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훈민정음 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곧 “정신을 쓰시고, 생각을 허비하심에, 날이 미치고, 때가 옮기니”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대왕의 답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 내 나이가 많아서, 국가의 서무를 세자가 오로지 맡아서 하는 터에,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참결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또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부터 세종대왕을 도와 성운(聲韻)을 참정(參定)했다는 사실은 <홍무정운역훈>서에도 나타난다.

무종 공손대왕은 동궁에 계실 때로부터 성인으로서 성인을 도우시어, 성운을 참정(參定)하신 터라, 보위를 이으심에 미치어는 신 등과 전판관 신 노삼과 지금의 감찰 신 권인과 부사정 신 임원준을 명하셔서, 거듭 수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직해동자습>서와 <세종실록>의 최만리 등의 상소, 그리고 <홍무정운역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대왕만이 아니라, 문종 또한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종대왕만의 친제와는 얼마간 거리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종대왕의 친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훈민정음 창제에 문종 또한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일 뿐, 그 이상의 무언은 아니다. 아마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친제에 직접 관여한 이는 문종 뿐인 것으로 짐작되는데, 창제 과정에서 문종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 <운회>의 번역을 관장하고, 또 한자의 성과 운을 참정한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문종이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하는 운서의 번역 등의 일에 보다 더 깊숙히 관여한 것을 보여준다. 아 물론,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곧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는 세종대왕인데, 이와 관련한 일련의 어문정책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문종이 깊이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어문정책 사업에 관여한 이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세종실록> 권제103의 26년(갑자) 2월 16일(병신) 기사를 살펴 보기로 한다.

집현전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녕 부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시고, 동궁과 진양대군 유, 그리고 안평대군 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 임금님의 결재를 받았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운회>를 번역하는데 직접 관여한 이는 최항, 박팽년, 신숙주 등이고, 그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번역 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무를 관장한 이들은 동궁과 수양대군, 그리고 양평대군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할한 이는 세종대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홍무정운역훈>의 신숙주서에 보이는 <홍무정운>번역 사업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 동국은 대대로 중화를 섬기나, 어음이 통하지 못하여, 반드시 전역(傳譯)에 힘입어야 하므로, 맨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지금의 예조참의 신 성삼문, 전농소윤 신 조변안, 지금 산군사신 김증, 전행통례문봉례랑 신 손수산 및 신(臣) 숙주 등으로 하여금, 계고증람(稽古證覽)하게 하시고, 수양대군 휘(諱)와 계양군 신(臣) 증으로 하여금 출납을 감장(監掌)케 하시고, 친히 과정(課定)에 임하시어 철음으로 맞추고, 사성으로 고르고, 청탁으로 해협(諧協)하게 하시니, 가로와 세로, 경과 위가 비로소 달라져서 어지러짐이 없습니다.

<홍무정운>의 번역 사업에 관여한 이들도 <운회>의 번역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맡은 임무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성삼문과 신숙주 등은, 옛 문헌을 상고하고 검열하여, <홍무정운>을 직접 번역하였고, 수양대군과 계양군은 번역 사업에 필요한 재정 등 제반 출납에 관한 실무를 맡아 보았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친히 철음, 사성, 청탁 등을 고르는 성운학에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직접 맡아보는 한편, 번역 사업 전반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 이와 관련있는 세종대왕의 어문정책 사업은 철저하게 그 역할을 삼분하여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운서 등의 번역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필요한 출납에 관한 실제적인 서무는 모두 동궁과 수양대군, 안평대군, 계양군 등 당신의 권속들에게 맡기고 있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직해동지습>의 성삼문서에도 보인다.

직해동자습역훈평화는 이 곧 화어(華語)를 배우는 문호라고 하시어, 지금의 우부승지 신 신숙주, 겸승문 원교리 신 조변안, 행예조좌랑 신 김증, 행사정 신 송수산 등에게 명하시어 정음으로 한훈(漢訓)을 번역하여, 글자마다 그 아래 세서(細書)하고, 또 방언을 써서, 그 뜻을 풀게하시며, 이어서 화의군 신 영과 계양군 신 증에게 명하시어, 그 일을 감장하게 하시고, 동지중추부사 신 김하와 경창부윤 신 이변에게 그 의심나는 곳을 다져서, 두 가지로 써 두게 하시니, 음의(音義)가 밝아져서,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직해동자습〉의 편찬은 세종대왕 재위 때 시작된 사업인데, 문종인 선왕의 뜻을 이어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일에 세종대왕이 끝까지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체제는 전과 다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출납에 관한 제반 서무는 역시 화의군과 계양군의 몫이었다.

위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의 일련의 사업들, 곧 〈운회〉의 번역과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등의 편찬에 있어서, 출납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무는 모두 세종대왕의 친권들이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 일련의 어문정책 관련 사업에 번역 또는 편찬 등의 일에 직접 참여한 이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운회〉의 번역과 〈훈민정음〉 해례본,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의 편찬에 참여한 이들은 앞에서 인용한 여러 글에 그 명단이 이미 밝혀져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선유(先儒)를 높이시고, 도를 중하게 여기셔서, 문(文)에 힘쓰시고, 화(化)를 일으키어, 극진히 하지 아니한 바가 없습니다. 만기(萬機)의 겨를에 개연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시어, 이에 신(臣) 숙주와 수집현전직제학 신 최항, 수집현전 신 성삼문, 신 박팽년, 수집현전교리 신 이개, 수이조정랑 신 강희안, 수병조정랑 신 이현로, 승문원교리 신 조변안, 승문원부교리 신 김증을 명하시어, 옆으로 속습을 채집하고, 널리 전적을 상고해서, 두루 쓰는 음을 근본을 삼고, 고운(古韻)의 반절에도 맞추어, 자모, 칠음, 청탁, 사성에 그 원위(源委)를 고구하지 않음이 없이, 바른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니, 신 등은 재식(才識)이 얕으면서 짧고, 학문이 고루하여, 봉승함이 달(達)치 못하기 때문에 늘 지고(指顧)를 번거롭게 하여 왔습니다.

이제까지 훈민정음 창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창제 뒤의 여러 어문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번역과 편찬의 일을 직접 맡은 이들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곧 〈운회〉의 번역에 참여한 이는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 강희안 등이다. 〈훈민정음〉 해례를 짓는 데 참여한 이는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이고, 〈동국정운〉 편찬에 참여한 이는 신숙주, 최항, 성삼문, 박팽년, 이개, 강희안, 이현로, 조변안, 김증 등이다. 〈홍무정운역훈〉 편찬에 참여한 이는 신숙주, 최항, 성삼문, 박팽년, 이개, 강희안, 이현로, 조변안, 김증 등이다. 〈홍무정운역훈〉 편찬에 참여한 이는 신숙주, 성삼문, 조변안, 김증, 송수산, 노삼, 권익, 임원준 등

이다. 그리고 <직해동자습> 편찬에 참여한 이는 신숙주, 성삼문, 조변안, 김증, 손수산, 감하, 이변 등이다. 우리는 앞에서 훈민정음 창제 및 그 이후의 어문정책 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었는데, 그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곧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는 세종대왕인데, 그는 훈민정음을 친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훈민정음> 해례,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사성통고> 등을 편찬하는데 직접 관여하여, 모든 일을 관할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운화에 관련한 문제들은 일일이 자문에 응하였다. 다만 <홍무정운역훈>과 <직해동자습>만은 승하한 뒤의 일이라 끝까지 관할하지는 못하였다.

문종은 동궁으로 있을 때는 <운회>의 번역에 직접 관여했고, 세종대왕을 도와 한자음을 참정하기도 하였다. 왕위에 오른 뒤에는 선왕의 뜻을 이어서, 단종 3년(1445)에 간행된 <홍무정운역훈>의 편찬을 독려하면서, 그것의 수교(讐校)를 명한 적도 있다. <직해동자습>은 그의 관할 아래 편찬되었다. 그밖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훈민정음 창제와 함께 한자음을 바로잡는 데 직접 참여하는 등, 특히 창제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종대왕 다음으로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일련의 어문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출납에 관한 제반 서무는 동궁(문종), 진양대군(수양대군), 안평대군, 계양군, 화의군 등이 관장하였는데, 수양대군은 <운회>와 <홍무정운역훈> 편찬에, 계양군은 <홍무정운역훈>과 <직해동자습> 편찬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운회> 편찬에, 화의군은 <직해동자습> 편찬에만 관여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어문정책 사업 가운데, 특히 번역과 편찬에 참여한 이는 모두 열 일곱 사람인데, 그 가운데 성운화에 밝은 신숙주는 모든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고, 성삼문은 <운회>의 번역에만 참여하지 않았을 뿐, 그 밖의 번역 사업에는 모두 참여하였다. 그리고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개, 조변안, 김증 등이 주로 참여하였다.

III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의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리신 성군으로, 문물과 제도를 만들고 베푸심이 못 왕들을 초월한다.”라는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세종대왕이 재위 기간동안에 이룬 업적은 다른 못 왕들에 비할 바가 아닌, 뛰어난 성군임은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특히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문화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우리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의 우리의 문자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거나, 오늘날 우리 말을 적는 표기 수단인 한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훈민정음이 지닌 진정한 가치와 그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그 당시까지의 우리 문자 생활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그것들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환히 알고 있었다. 곧 당시까지 우리 말을 적는 표기 수단이었던 이두등 차자표기법의 불완전함은 물론 당시 외래어로서의 한자말의 조선 한자음이 너무

어지럽고, 또 당시 우리나라의 중국 한자음이 중국의 정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아무런 방법이 없었음을, 그리고 당시의 한자음 표기 방법인 반절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환히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분명한 인식은 그들의 지혜로움을 널리 드러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당시인들의 우리 문자 생활에 대한 현실 인식이 새로운 문자 체계, 곧 훈민정음의 창제로 이어진다. 그런데 새로 만든 훈민정음은 소리글자이다. 소리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표기 대상 언어의 말소리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음운 이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곧 말소리의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이는 음운 이론에 밝은 음운학자가 아니면 안 된다. 당시의 음운 이론으로는 중국의 발달된 성운학이 있었는데, 이것은 운서 편찬을 위한 편운학과 등운도(等韻圖) 작성을 위한 등운학으로 나누어진다. 이 학문은 중국의 전통적인 자학(字學)의 하나로, 수나라 때 육법언 등이 지었다고 하는 <절운>의 편찬 이후 발달된, 오랜 연구의 역사를 가진 학문이다. 세종대왕은 이미 그 학문에 정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운회거요>, <홍무정운>, <황극경세성음창화도>, <절운지장도> 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었던 것 같다. 곧 세종대왕은 당시 뛰어난 성운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등의 서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아래에서는 성운학자로서의 세종대왕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국정운>의 신숙주 서에서는 말소리, 곧 성운을 연구하는 까닭과 세종대왕이 성운이 지남(指南)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물며 서계(書契)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인의 도가 천지에 붙어있고, 서계가 만들어진 뒤에는 성인의 도가 방책(方策)에 실렸으므로, 성인의 도를 고구하려면, 마땅히 글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 뜻의 뜻을 알려면, 마땅히 성운으로부터 비롯해야 한다.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초이지만, 또한 어찌 쉽사리 능할 것인가. 이 때문에 우리 성상께서 성운에 마음을 두시고, 고금을 집작하시어, 지남을 만들어서, 억재(億載)의 못 어리석음을 깨우치신 것이다.

세종대왕이 성운을 깊이 연구하여, 철음과 사성의 원위(源委)를 밝힌 사실은 <홍무정운역훈>의 신숙주 서에 나타나 있다.

우리 세종대왕은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고명박달하셔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서, 성운의 근본과 여줄 가리까지 모조리 궁구하시었다. 집작 재정하심을 힘입어, 철음과 사성의 한 경(經)과 한 위(緯)가 마침내 바름에 돌아간지라, 우리 동방에서 천백년의 알지 못하던 것을 불과 열흘 안에 얻을 수 있으니, 진실로 침잠반복(沈潛反覆) 해서, 여기서 얻음이 있을 것 같으면, 성운의 학문인들 어찌 정통하기 어려울 것입니까.

<사성통고>는 현재 전하지 않는데, 다만, 그 책의 일부분인 “사성통고 범례” 만이 증종 때 최세

진이 지은 <사성통해> 끝 부분에 부록 형식으로 실려 있다. 이 범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은 이가 바로 세종대왕이었다. 신숙주가 쓴 <홍무정운역훈>서에 그런 기록이 보인다.

또 세종께서 정하신 사성통고를 따로 첫머리에 붙이고, 다시 범례를 만들어서 지남을 삼는다.

<사성통고>는 문서이기 때문에 성운학자가 아니고서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대왕은 성운학의 이론과 실제로 아주 밝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의 편찬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사성통고>를 지은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꽤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그것을 지은 이가 세종대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성운학자라는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있어온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의 경위를, 홍기문(1946:120-121)의 말을 빌어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지나친 역측의 오해를 벗고자 한다.

이 범례는 사성통해 권말에 부간(附刊)되어 있다. 이 범례가 부간되어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성통해의 문헌상 귀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래 홍무정운역훈 서에는 세종 소정(所定)의 사성통고를 그 앞머리에 붙이고, 다시 그 범례를 만들어서, 지남을 삼는다고 하였다. 신숙주 자신도 결코 그 통고나 그 범례를 자기의 단독 저작으로 명기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당연히 홍무정운역훈을 찬수한 사람들의 공동 저작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세진의 사성통해 서에서, 세종이 고령 부원군 신숙주를 명하여, 사성통고를 만들었다 한지라, 다소 이 범례조차 그의 단독 저작으로 오해될 우려가 없지 않다. 사실로 정동유와 같은 이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의 하나니, 심지어 그는 신숙주가 범례를 만든 그 통고와 세종 소정의 통고를 동명의 이서로까지 상정하였다. 그러나, 세종의 소정이란 그의 예재(睿裁)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어제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요, 최세진이 신숙주만을 든 것은 성삼문을 말하기 꺼리고, 또 그 이하의 다른 사람을 열거하기를 피한 것이다. 최세진의 서문도 구경 신숙주 자신의 말과 하등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원문의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 등을 글쓴이가 일부 손질하였음).

세종대왕이 성운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사실은 최만리 등의 정음 창제 반대 상소에 대한 당신의 답변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세종실록> 권제103의 26년(갑자) 2월 20일(병신)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또 너희들이 문서나 아느냐. 사성과 칠음에다가 자모는 몇이나 있느냐. 만약에 내가 문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

위의 인용 부분은 아주 간략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운학자로서의 세종대왕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좋은 보기라 할 수 있다. 특히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누가 바로 잡을 것이냐”라고 한 부분에서는, 당시의 어지러운 한자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세종대왕의 의지, 그리고 자신에 찬 태도 등을 엿볼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로 <동국정운> 서와 <홍무정운역훈>서에 나타나는 신숙주의 설명과 세종대왕 당신의 답변을 통하여, 성운학자로서의 세종대왕의 일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아래에서는 당신이 직접 계획한 일련의 어문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운서의 번역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한자음을 바로잡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적극적인 태도를 통하여, 당신의 성운학자로서의 또 다른 일면과 의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동국정운>서에 드러나 있는 것과 같이, 세종대왕은 신숙주 등에게 가로로는 당시 한자음의 속습을 널리 채집하고, 세로로는 그때까지 전해오는 여러 운서들을 상고해서, 두루 쓰는 음을 근본으로 삼고, 옛 운서들의 반절에도 맞추어, 자모, 철음, 청탁, 사성 등의 한자음의 근본이 되는 것과 그 나머지 여줄거리까지 모두 살펴서, 바른 음, 곧 정음을 되찾으라고 명한다.

<홍무정운역훈> 서에서는 세종대왕의 한자음 정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주관하는 세종대왕은 물론, 운서 번역 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의 노력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이미 다르다, 전와가 또한 심하므로, 이에 신 등을 명하셔서, 중국의 선생, 학사들에게 질정케 하시는지라, 왕래가 일고 여덟번에 이르렀다. 더불어 질문한 자가 약간인이며, 연도(燕都)는 만국회동의 땅이요, 그 왕반(往返)의 먼 길에서 일찍이 더불어 주선강명(周旋講明)한 자가 또한 적지 아니하니, 수방이 역(殊方異域)의 사신이나 석로졸오(釋老卒伍)의 미천한 데에 이르기까지 서로 만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서, 정속이동(正俗異同)의 변천을 다하였으며, 또 천자의 사신이 나라에 이르되 선비거든 다시 나아가서 질정하니, 무릇 원고를 베끼기 십여 회째 신근이 되풀이하여, 마침내 여덟 해의 오람을 지나 전날 발라져서 이 지러짐이 없다는 것이 더욱 의심없는 것 같습니다.

성운의 질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은 <세종실록>에 자세하게 나타난다.

집현전부수찬 신숙주, 성균관주부 성삼문, 그리고 행사용 손수산 등을 요동에 보내서, 운서를 질문하여 오게 하였다(권제107, 27년 9월29일)

동국정운을 여러 도와 성균관, 사부학당 등에 반사(頒賜)하였다. 이에 교지를 내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속운에 익숙한 지가 오래되어,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역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는 사람 뜻대로 하라고 하였다(권제112, 30년 10월 17일).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 또 사신이 모두 유자라 하여, 신숙주 등이 교정한 운서를 질정케 하고자, 사

신이 입경한 뒤, 신숙주, 성삼문 등으로 하여금, 태평관에 왕래하게 하고, 또 손수산, 임효선을 통사로 삼았다. (권제126, 31년 12월 28일)

집현전 성삼문, 응교 신숙주, 봉례랑 손수산 등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운서를 묻게 하였다. …… 삼문과 숙주가 홍무운을 한참 동안 강론하였다 (권제 127, 32년 윤1월 3일).

이제 다시 <홍무정운역훈> 서를 통하여, 운학의 정통하기 어려움과 세종대왕의 어문정책 실현의 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왕복 질정함이 이미 여러 번이지만, 마침내 한번도 운학에 정통한 자를 만나서, 유섭(紐攝)을 조협(調協)하는 묘함을 분변치 못하고, 특히 그 언어독송(言語讀誦)의 나머지에 인하여, 청탁과 개합의 근원을 소구해서는, 이른바 가장 어려운 바를 정통하게 하고자 하니, 이것은 곧 신근함을 오래 지내고서만 겨우 얻게 된 것입니다. 신 등은 배움이 얇고, 얇이 용렬하여, 지극히 궁극한 것을 낚고 찾아, 임금의 계책을 현양치 못하였 습니다.

위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운서 번역 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의 성운학에 정통하기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데, 세종대왕은 이미 이 학문에 정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자체가 이미 유섭을 조협하는 묘함을 분변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앞에서 이미 인용한 적이 있는, 바로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뒤잇는 <홍무정운역훈> 서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대왕은 이미 성운의 원위를 모두 궁구하여 재정(裁定)하고, 철음과 사성의 경위를 바로잡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세종대왕은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운학자이면서, 실천가였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두 및 반절법과 훈민정음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훈민정음의 특징을 드러내고, 나아가 훈민정음 창제를 가능하게 한, 세종대왕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당시의 음운 이론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IV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배계층에서는 한문을 사용하고, 중인계층에서는 공식문서 작성 등에 이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록 훈민정음이 한문의 어려움이나 이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말 표기체계로서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일차적인 목적이, 적어도 한자 또는 얼마간의 한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두와 학문을 쉽게 부러낼 수 없는 일반 서민계층의 문자 생활의 불편함이 덜어주는 데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제서이다. 곧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쉽게 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에,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상 문자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다. 이처럼 훈민정음은 일반 서민 계층을 위하여 만든 글자이지, 지배계층이나, 중인계층을 위하여 만든 글자는 아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유용하게 부러낼 수 있는 편리한 글자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한문은 물론 이두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이다. <훈민정음> 정인지 서에서는 훈민정음의 그러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스물여덟 글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예의를 들어보이시면서, 이름을 지어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꼴을 본뵈었는데, 글자가 고전(古篆)에 비슷하고, 음은 칠조(七調)에 맞아,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묘합이 해괄(該括)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스물여덟 글자로서도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精)하고도 통(通)하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에 통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열흘이면 배울 것이다. 이것으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써, 송사(訟事)를 들으면,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자운(字韻)으로는 청탁이 능히 분간되고, 악가(樂歌)로는 율려가 능히 고르게 되며, 쓰는 데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 없고, 가서 통달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비록 바람소리, 화의 울음, 닭의 화 침, 개의 짖음 따위도 모두 적을 수가 있다.

훈민정음의 성격은 이 밖에 <동국정운>서, <홍무정운역훈>서, <직해동자습>서 등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훈민정음의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글자는 상형을 했는데 고전을 닮고, 소리는 칠조에 맞아, 천.지.인 삼재와 음양의 이치를 다 갖추고 있으며, 28자밖에 되지 않지만, 전환이 무궁하고, 간요하면서도, 정하고 통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해서와 송사는 물론, 한자음을 적거나, 노랫말로 쓰더라도, 청탁과 율려에 다 맞는 그런 글자가 훈민정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쓰는 데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서조차 그 첫머리에서 “언문의 제작은 지극히 신묘하여, 창물운지(創物運智)가 멀리 천고에 뛰어난다”라고 했던 것이다.

한편 세종대왕은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문자의 창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필수적인 중국어의 학습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사실은 앞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 <직해동자습>서에 잘 나타나 있다. 곧 “우리 동방은 해외에 있으므로, 언어가 중국과 더불어 달라서, 통역에 의해서만 통하기 때문에, 우리 조종으로부터 사대에 지성이시므로, 승문원을 두어서는 이문을 맡기시고, 사역원을 두어서는 역어를 맡기시어, 그 일을 오르지하게 하시고, 또 그 직분을 오래게 하시니, 그 생각하시는 바가 주도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당시 우리 나라의 혼란스러운 중국 한자음을 바로잡고, 또 중국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홍무정운>을 번역하고 <직해동자습>을 편찬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한자음을 바로잡아, 정운(正韻)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표기할

수 있는 표기체계가 당시에는 없었다. 당시 한자음을 적는 방법으로는 반절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 방법 자체가 한자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었다. 더구나 외국인으로서 어떤 일정한 한자의 음을 또 다른 두 글자의 한자음으로 반절한 것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자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기존의 반절법이 아닌, 새로운 표기체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의 또 다른 목적은 여기에도 있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은, 대내적으로는, 일반서민계층을 위한 우리 말을 적는 문자 체계를 만드는 데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한자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자체계를 만드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은 나라 안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 밖의 문제로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 또한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새로 만드는 문자체계는 우리말은 물론, 한자음까지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훈민정음이 갖는 문자체계로서의 이중성은 바로 여기에 그 까닭이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한편으로는, 창제 이전까지는 우리 말을 적는 유일한 표기체계였던 이두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자체계이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한자음 표기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반절법의 결함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자체계이어야 했음은 물론이다. 바로 앞에서 인용한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에는,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훈민정음의 성격을 “스물여덟 글자로서도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면서도 요긴하고, 정하고도 통하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에 통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열흘이면 배울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글자는 그들이 쉽게 깨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어서는 안되었다. 그리고 한자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의 특징을 “자운으로는 청탁이 능히 분간되고 …… 쓰는데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 없고, 가서 통달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비록 바람소리, 학의 울음, 닭의 화침, 개이 짖음 따위도 모두 적을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한자음 표기뿐만 아니라, 당시의 조선 한자음 표기 또한 세종대왕에게는 커다란 문제거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곧 우리 말을 적는 새로운 문자체계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이미 우리 말 속에 상당수 들어와 있던 외래어로서의 한자말들의 음이 모두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당시의 조선 한자음의 현실을 <동국정운> 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먼저 그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조선 한자음이 바뀐 까닭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등반은 안팎으로 산하가 제대로 한 구역이 되어, 풍기(風氣)가 이미 중국과 틀리거든, 호흡이 어찌 화음(華音)과 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음이 중국과 더불어 다른 것은 이치가 그러려니와, 문자의 음에 이

르려는 마땅히 화음과 서로 합함 직하되, 그 호흡의 선전하는 사이에 경중합벽(輕重翕闕)의 기틀이 반드시 저절로 어음에 끌리게 되나니, 이것이 곧 자음이 또한 따라서 변한 까닭입니다.

〈동국정운〉서를 쓴 신숙주는 조선의 한자음이 바뀐 이유를 중국의 전통적인 ‘풍토설’에 돌리고 있다. 풍토설이란, 말은 호흡이 다르면 달라지게 되는데, 호흡의 차이는 풍기의 차이에서 오며, 풍기는 또한 자세의 차이에서 온다고 하는 언어관이다. 이 때문에 우리 말이 중국말과 다른 것은 물론, 한자의 음까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뒤 이어, 그 곳에서는 조선 한자음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음은 비록 변했어도, 청탁과 사성은 옛과 같으려만, 일찍이 책을 만들어서, 바른 것을 전하지 못했으므로, 용열한 스승과 숙된 선비들은 절자(切字)의 법도 모르고, 유섭(紐攝)의 요지에도 어두워서, 혹 자체가 비슷하면 한 음을 만들고, 혹 앞 대의 피휘(避諱)로 다른음을 빌고, 혹 두자를 합해서 한자로 만들고, 혹 한 음을 나누어서는 둘도 만들고, 혹 다른 자도 차용하고, 혹 점과 획을 가감하고, 혹 한음(漢音)에 의하고, 혹 이어(俚語)에 따라서, 자모, 철음, 청탁, 사성에 모두 변함이 있는 것입니다.

위의 글을 보면, 당시의 조선 한자음의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중국의 정운에 비교해 보면, 자모 철음, 청탁, 사성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중국과는 호흡이 다르므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당시의 그들의 ‘정음관(正音觀)’에 비추어 볼 때, 자모, 철음, 청탁, 사성 등의 변화까지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 한자음의 교정과 그것의 바른 표기의 필요성은 여기서 비롯한다. 물론, 풍토설에 기대어, 우리 말소리의 체계에 이끌린 대로만 적으려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당시 세종대왕 및 집현전 학자들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정음관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시의 풍토설과 정음관이 서로 부딪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들에게는 정음관이 보다 중요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음관은 훈민정음의 창제에는 말할 것도 없고,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등의 편찬에 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당시의 일련의 어문정책의 결과로 나온 업적들을 연구하거나 다룰 적에는 반드시 명심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제 우리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곧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우리 말을 표기하는 것은 물론, 한자음까지 바르게 표기하는 데 있었다. 여기에는 중국 밖의 다른 외국말 표기까지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동국정운〉 〈사성통고〉,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등의 편찬 목적과 그것들이 모두 세종대왕의 일련의 어문정책 사업으로 한 데 묶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숙주, 성삼문 등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갖은 어려움을 다 겪어 가면서, 한자음을 질정하려고 했

는지, 그것의 진정한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이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 한자음의 정리보다는 차라리 관공문서에 써 오던 이두를 훈민정음으로 대체하는 데 힘을 기울였더라면, 훈민정음의 발달이 오히려 좀더 활발했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 한문의 상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이유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아래에서는 이두의 불완전함과 반절법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용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세종대왕 등은 이두는 실총이 그것을 만든 이후 지금까지, 관부에서는 공용문서를,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사사로운 문서 따위를 작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자를 빌어 쓴 것이라, 꺾꺾하고 막히는 데가 많아서 우리말을 적는 글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 이르러는 능히 민분의 일도 통달할 수 없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자 또한 소리를 적는 글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 곧 한자의 표음성(表音性)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반절법 또한 한자음 표기 방법으로서로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홍무정운역훈>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범음(梵音)은 중국에서 행하되, 우리 부자(夫子)의 경은 발제하(跋提河)를 넘지 못하는 것이 글자로서이지 소리로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저 글자가 있으면, 이에 소리가 있는 것이거니, 어찌 소리 없는 글자가 있겠는가.

홍기문(상, 1946:230)에 따르면, “옛 사람이 이르기를 범음은 중국에서 행하되, 우리 부자의 경은 발제하를 넘지 못하는 것이 글자로서이지 소리로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고금운회거요>의 유진옹(劉辰翁)의 서에서 따온 것인데, 그 중에 “옛 사람”이란 정초(鄭樵)를 가리키며, 그의 <칠음략> 서에서는 “구담(瞿曇)의 글은 중국에 들어올 수 있으나, 선니(宣尼)의 글은 발제하에 이를 수 없으니, 성음의 도에 장애(障礙)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 물론 이것은 한자의 표음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대왕 및 집현전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의미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인용한 부분을 뒤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이제 훈민정음으로써 번역함에, 소리가 운과 해협되어, 음화(音和), 유격(類隔), 정절(正切), 회절(回切)의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기다릴 것도 없이, 입을 들어 소리를 얻되, 털끝만큼의 차차(差錯)이 없는지라, 또 무슨 풍토가 같지 아니함을 걱정하겠는가

위의 음화, 유격, 정절, 회절 등은 모두 반절하는 방법이다. 곧 한자의 음을 반절법으로 표기하

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번거롭고 까다롭기만 했지, 한자음을 정확하게 적는 방법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에 비하여 훈민정음은 소리를 적는 글자이므로, 얼마든지 한자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으면, 바로 소리가 되는데, 털끝만큼의 어긋남도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두 및 반절법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훈민정음의 이 중성, 곧 우리 말은 물론 한자음까지도 다 적을 수 있는, 그러한 문자체계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게 한 음운이론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밝히는 일만 남았다. 이 문제를 다루는 까닭은 훈민정음은 소리글자인데, 소리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음운체계의 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훈민정음은 우리 말소리뿐만 아니라, 조선 한자음과 중국의 한자음까지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자체계이어야 했으므로, 그것에 바탕이 되는 음운체계는, 구체적인 일정한 한 언어의 음운체계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더욱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그것의 근거가 되는 음운 이론 또한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밑바탕이 되는 음운 이론은 일반 음운론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서에서 소리(聲)를 따라 음(音)은 칠조에 맞아, 삼극의 뜻과 이기의 묘함이 해괄되지 아니함이 없고, 스물여덟 글자로서도 전환이 무궁하다고 한것은 바로 그런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동국정운>의 신숙주 서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지적이 더욱 자세하게 나타난다.

청탁이 나뉘에 천지의 도가 정(定)하고, 사성이 바름에 사시의 운행이 순조로우니, 진실로 조화를 미봉(彌縫)하고 우주를 교갈하여, 묘한 뜻이 현관(玄關)에 계합(契合)되고, 신령한 기틀이 천뢰(天籟)에 통하는 것이 아닐진대, 어찌 능히 이에 이를 것입니까. 청탁이 선전하고, 자모가 서로 미루어, 칠균에서 십이율, 팔십사조로, 가히 성악(聲樂)의 바름과 그 대화(大和)를 함께 할 것입니다. 아, 소리를 살피어 음을 알고, 음을 살피어 악을 알고, 악을 살피어 정사(政事)를 아나니, 뒤의 보는 자가 그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곡을 찌르는 표현인가. 당시의 음운 이론은 이처럼 일반 원리를 꿰뚫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음운 이론이 당시의 철학이었던 성리학과 결합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훈민정음을 떠받들고 있는 음운 이론은 뛰어난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과 음운 이론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과 음운 이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음운 이론 자체에 대한 천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을 떠받치고 있는 음

운 이론 그것을 우리는 ‘삼분법(三分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분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데 그치려 한다.

삼분법이란 한 음절을 세 구성 요소, 곧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여, 그 짜임새를 밝히고, 이 세가지 요소들을 각각 그들의 음성자질의 특징에 따라 다시 하위를 분류하여, 체계를 세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 삼분법은 이두 표기 방법에서 터득한, 음절 단위의 인식 및 일부 종성의 인식 등 아직 철저한 분석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음절 인식 방법의 전통과 당시의 발달된 중국 성운학의 음절 짜임새에 대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그것들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보다 추상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말소리 분석 방법이다.

세종대왕은 이와 같은 과학적인 말소리 분석 방법을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이미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론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훈민정음의 창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우리 말소리 뿐만 아니라 한자음 등 그 밖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글자가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 밖의 일련의 어문정책 사업인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운>, <사성통고>,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등의 편찬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대왕은 이처럼 뛰어난 음운학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생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높은 식견을 가진 분이며,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도 겸비한 그런 성군이였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룩한 업적은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 흐름 가운데서, 그 물줄기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인류 문화 발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인물들을 가끔 만난다. 이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인간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는 획기적인 인물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넓게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좁게는 한 국가의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세종대왕이시다. 이러한 시각으로 세종대왕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룩한 업적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가 그러하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분명히 우리 문화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창제한 이에게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동안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반드시 한번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세종대왕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조금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 들을 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V

우리는 이제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은 물론, 이것의 간행 전후에 나온 몇 가지 문헌 자료, 특히 <동국정운>서, <홍무정운역훈>서, <직해동자습>서, 그리고 <세종실록> 등의 기록을 자세하게 검

토해봄으로써,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의 친제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의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훈민정음 창제와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어문정책 사업들, 곧 <동국정운>, <사성통고>,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등의 편찬에 관여한 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하고, 그와 관련 있는 어문정책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적으로 관할한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종대왕이다. 다음에는, 세종대왕의 어문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일반 서무를 주로 관장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동궁(문종), 진양대군(수양대군), 안평대군, 계양군, 화의군 등이었다. 이 가운데 문종은, 동궁으로 있을 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는데, 그가 훈민정음 창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동국정운>, <사성통고>,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등의 편찬에 직접 참여하여 속음을 채집하거나 전적을 상고하며, 한자음의 정운을 질정하는 등 실질적인 편찬 작업을 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열일곱 사람이다. 그 가운데 신숙주와 성삼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개, 조변안, 김증 등이 주로 그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란 새로운 문자체계를 창제하고, 그와 관련한 문서의 편찬이나 번역 등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을 만큼 당시의 성운학의 이론과 실제 등에 밝은 뛰어난 음운학자였다.

셋째,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대내적으로는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쉬운 문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한자음까지 바르게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훈민정음의 이중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이두의 우리 말 표기체계로서의 불완전함과 한자가 가지고 있는 표음성의 결여, 곧 반절법의 결함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과적으로 훈민정음은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소리글자이다.

넷째, 소리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표기 대상 언어의 음운 체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음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우기 훈민정음은 우리 말소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자음까지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진 문자체계이어야 하므로,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음운 이론은 보다 추상적인 일반 음운 이론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세종대왕은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음운 이론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삼분법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의 성리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충분한 바탕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친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문화사상 한 시기를 굿는 사건이므로, 그것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은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 종 대 왕 과 별 의 세 계

나 일 성
(연세대학교 교수)

1. 15세기란 어떤 시기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 후기의 천문학자 톨레미를 기억한다. 그가 저술한 과학의 고전〈알마게스트, Almagest〉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구 중심설, 일명 천동설'을 소개한 것인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 일명 지동설'을 주창하기까지의 1,500년 동안, 전 유럽의 과학계와 사상계를 지배한 과학책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책이 막강한 영향을 발휘한 1,500년간을 '과학의 암흑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혹평한다. 유럽의 과학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한 바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황청이 '제2의 성서'라고 할 만큼 절대시한 덕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누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하여 그 다음 세기에 나타난 갈릴레오와 케플러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방해를 받기도 했고, 또 그들 자신도 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시기인 15세기에는 위대한 과학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중국 대륙에는 톨레미를 1세기 앞선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년 또는 135-87년)의 〈사기(史記)〉의 〈역서(歷書)〉와 〈천관서(天官書)〉의 출현을 시작하는 장형(張衡, 78-139년)의 〈혼천의(渾天儀)〉, 하승천(何承天, 370-447년)의 〈원가력(元嘉曆)〉과 〈조일법(調日法)〉, 이순풍(李淳風, 602-670년)의 진서(晉書)와 수서(隋書)의

風, 602-670년)의 진서(晉書)와 수서(隋書)의 <천문지(天文志)>와 <율력지(律曆志)>등 시대가 바뀔 때마다 뛰어난 과학자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13세기 말에 곽수경(郭守敬, 1231-1316년)에 이르러 중국 과학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동시에 맞는다. 곽수경은 18세기에 이르러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시헌력(時憲曆)을 출판할 때까지 사용된 수시력(授時曆)을 만들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관측 기기였던 간의, 후극의, 입운의, 규표, 앙의, 일귀, 혼천의 등을 제작한 13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였다. 그러나 그 이후 14-18세기에 이르는 약 400년동안 중국은 역사적인 공헌이 전무한 쇠퇴기를 보냈다. 따라서 중국에도 15세기는 과학의 발전이 없었던 시기인 셈이다.

15세기는 세종대왕의 세기이다. 과학의 침체와 암흑기를 맞아 전세계 어디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이 기간에, 유독 빛을 발하고 과학 발전의 일대 도약과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곳이 있었으니, 그 곳이 한반도였고, 그 때가 세종대왕이 뜻을 펼치던 시기였다. 중국 대륙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곽수경의 천문학과 과학 기술이 황해를 동진하여 조선반도의 한양에서 계승 발전되고, 더 나아가 15세기를 새로운 창조의 세기로 만들어 낸 것이다.

2. 15세기를 빛낸 별과 별들

세종대왕(1397-1450년, 재위 1419-1450년)의 과학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색이 있다.

(1) 곽수경의 과학을 계승 발전 시켰다.

14세기 말, 원이 망하고 명이 중국 대륙에 등장했지만, 명은 천문을 관측하는 일을 사천대(司天臺)에 국한시키고 일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어긴 자를 극형에 처했다. 곽수경의 관측 기기는 북경에서 남경으로, 그 후 다시 북경으로 옮기는 과정에 깨지고, 결국에는 전부 없어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원대에 발달한 시계 산업을 중단시키고 해시계만을 고집함으로써 중국에는 그 후 기계 시계가 개발되지 못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곽수경의 관측 기기를 거의 전부 복원하였다. 그런 이유로 곽수경의 기기에 관해서는 중국에 없는 자료가 지금 한국에 남아 있다. 그 한 예를 들어 보자. <원사(元史)>에 '성귀정시의(星晷定時儀)'라는 별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학자들은 이 별시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인지를 정확히 알아 내지 못한다. 기록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실물이 없어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종 19년(1437년)에 제작한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라 불리는 해시계와 별시계를 합친 시계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이 시계의 부품이 지금도 남아 있다.

(2) 괄수경의 과학을 뛰어넘었다.

세종대왕과 그의 동역자들은 괄수경이 만들지 못한 새로운 기기들을 발명했다. ‘자격루’, ‘앙부일구’와 ‘측우기’가 그것이다. 자격루는 밤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이다.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각을 결정하는 일은 삼국시대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자격루는 복잡한 기계 장치를 물의 힘을 이용하여 움직이게 하는 동시에 시(時)와 분(分)을 북과 징을 치면서 자동적으로 알리는 자동 물시계이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자동 제어 장치를 갖춘 시계인 셈이다.

(3) 경복궁에 천문대를 세웠다.

세계 각국에 궁궐들이 많다. 그 중 역사적인 소장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있는 궁궐도 있고, 아직도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영국의 버킹검궁과 일본의 궁성과 같은 이름난 궁궐도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궁궐들은 건물들만 남아 있는 껍데기 궁궐이 지금 서울에만 있을 뿐이다. 왕실이 사용했던 살아 있는 물건은 별로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 분위기는 찾는 이를 을씨년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비관할 이유는 없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복궁은 큰 규모의 천문대를 가졌던 궁궐이기 때문이다. ‘경희루’를 중심으로 북쪽에 길이 14m, 높이 9.5m나 되는 ‘간의대’가 돌로 축조되어 있었다. 괄수경의 ‘간의(簡儀)’를 본따서 구리로 만든 간의(무게 약 5톤)와 ‘정방안(正方案)’이 이 간의대 중앙에 설치되었고, 앙부일구와 같은 작은 기기들이 여기 저기 있었을 것이다. 간의대 서쪽에는 높이 40척이나 되는 ‘규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 년의 길이와 계절의 변화를 해의 그림자로 측정하고 있었다. 이 규표 옆에는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속에는 ‘혼의’와 ‘혼상’이 있었다. 혼의는 ‘혼천의’이고 혼상은 1,460여 개의 별을 표시한 천구의이다.

경희루 남쪽을 보자. 이 곳에 자격루를 위한 ‘보루각’이 세워져 있었다. 자격루로 측정한 시각은 광화문의 병사의 중계를 받아 종로의 종각으로 통보되고, 이것은 즉시 사대문으로 릴레이식으로 전달 되었다.

경희루 동쪽, 즉 경희루와 세종의 침소 사이에는 ‘흙경각’이 있었다. 이 흙경각은 세종대왕이 장영실로 하여금 물시계를 설치하게 한 건물이다. 이 시계가 자격루보다 더 정교한 물시계인 ‘옥루(玉漏)’이다. 이렇게 보면, 경복궁의 천문대는 다양한 관측 기기들을 다 갖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천문대인 셈이다.

그뿐만이 광화문과 경희루 사이 어딘가에 유명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라 불리는 천문도가 새겨져 있는 큰 석판이 서 있었다. 이 돌의 크기는 높이 211cm, 너비 123cm나 된다. 이 돌의 한쪽 면에는 태조 4년(1395년)의 천문도가, 또 다른 면에는 세종 15년의 천문도가 각각 새겨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왕실의 권위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천문대에는 그 규모에 걸맞게 유능한 천문학자들이 많았다. 세종대왕을 ‘큰 별’이라고 한다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작은 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대략 나이순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골라 보자. 묶음표 안의 월일은 당해 연도의 <실록>의 월일이다.

정초(鄭招, ?-1434) : 태종 5년(1405년) 문과에 급제하고, 1407년에 증시에 합격한 후 벼슬자리에 나아갔는데, 세종 15년(1433년) 박연, 김진 등과 함께 새로 만든 혼천의를 보고 한 것이 천문학과 관련이 있는 첫 기록이다. (<실록>6월 9일). 이 해에 정인지와 더불어 <칠정산내외편>을 편찬한 것으로 <문헌비고>는 적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업적은 세종 19년 예문관 대제학으로서 소간의(小簡儀)의 서(序)와 명(銘)을 지은 것(<실록>4월 15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어떤 형태로든 소간의 제작에 참여했음을 말해 준다.

정홍지(鄭欽之, 1378-1439) : 태종 때(1411년)에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세종 15년(1433년) 정인지 등과 <칠정산내외편>을 편찬(<문헌비고>1:65)하고, 세종 19년 중추원사로 졸하였다. (<실록>4월 18일)

이천(李蕝, 1376-1451) : 세종 1년 공조참판일 때 곡산(谷山)과 신천(信川)의 은광을 시굴하였다는 <실록>의 기록(3월 21일)이 그에 관한 첫 기록이다. 그는 이 해에 무인으로서 대마도 정벌에 우군 첨총제, 부절제사, 좌군 동지총제, 경상 해도조전 절제사 등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참가했다. 그후 천문학자로서 직책을 바꾼 그는, 세종 14년(1432년)에서 20년(1438년) 사이에 목간의, 대간의, 소간의, 혼의, 혼상,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양부일구, 일성정시의, 자격루, 옥루 등을 제작하는 일과 감독을 맡았다. (<문헌비고>2:133), 이천은 장영실과 더불어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인 동시에 기술자였다.

장영실(蔣英實, 생몰년 미상) : 세종 14년(1432년)에서 20년(1438년)까지의 기간에 이천 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의기를 제작하였다고 <문헌비고>는 상세하게 적고(권 2:133)있으나,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세종 16년 물시계(漏器)를 이 날부터 비로소 쓰다(<실록> 7월 1일)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은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를 가리킨 것이다. 4년 뒤인 세종 20년 흙경각이 완성되었고, 이 때 그의 벼슬은 대호군이였다. 장영실이 만든 옥루가 이 속에 설치되었으나 기문(記文)은 우승지 김돈이 지었다. (실록 1월 7일)

김돈(金墩, 1385-1440) : 김돈은 세종 19년(1437년) 일성정시의의 서(序)와 명(銘)을 지었고(<실록> 4월 15일), 세종 20년에 장영실이 흙경각을 건설했을 때도 기문(記文)을 지은 점(<실록> 1월 7일)으로 미루어 그는 글을 짓는 데 더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박연(朴堧 또는 然, 1378-1458) : 박연은 음악가로 알려져 있으나, 천문에도 조예가 있었다. 그의 두드러진 업적은 세종 15년(1433년)에 정초, 김진 등과 함께 혼천의를 새로 만든 일이다. (<실록>6월 9일), 뿐만 아니라 그의 천문도도 만든 바 있다.

정인지(鄭麟趾, 1396-1478) : (<문헌비고> 상위고는 정인지를 천문학 고전을 연구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헌비고>2:133), 그의 천문에 관한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세종 15년(1433년)

에 정초 등과 더불어 <칠정산내외편(七情算內外篇)>을 편찬한 것일 것이다(<문헌비고>1:65). 정인지는 풍수학(風水學)에도 조예가 있었다. 풍수학 제조인 동시에 이조 판서인 민의생과 함께 산릉(山陵)의 광중(壙中)을 파는 법식에 대하여 연구하여 왕에게 보고한 바 있다(<실록>23년 8월 20일).

이순지(李純之, ? -1465): 이순지는 김담과 더불어 조선전기에 가장 뛰어난 천문 관측자 중 한 사람이다. 수리 계산에 능하여 세종 15년(1433년)에 <칠정산외편>을 편찬(<문헌비고>1:65)한 바 있다. 세종 18년 봉상판관으로 있을 때에는 상시로 간의대에 근무하여 천문을 측후한 기록(<실록>12월 26일)이나, 세종19년 호군이 된 후 “이순지가 역산에 정밀하여”라는 기록(<실록>4월 15일)이 이를 말해 준다. 그는 천문 계산과 관측 방법을 응용하여 토지를 측량하는 일도 김담과 함께 하였다(<실록>10월 25일). 그의 성공적인 측량사업은 후일 세종에 의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산학(算學)은 비록 술수라 하겠지만 국가의 긴요한 사무이므로, 역대로 내려오면서 모두 폐지하지 않았다.…… 근일에 전품을 고쳐 측량할 때에 만일 이순지, 김담의 무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쉽게 계량하였겠는가(<실록>25년 11월 17일).”세종의 찬사는 다음 해에도 되풀이된다. “공법(貢法)과 세수(稅收)의 많고 적음을 의논하니,……‘예전에 곽수경은 산술에 매우 정통하여 산천의 높고 낮음을 다 알았다고 한다. 지금 이순지, 김담이 다 산술을 정통하게 연구하였으니, 이들에게 이를 맡기고자 하는데, 그들이 마침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하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이순지는 좋겠습니다마는 김담은 지위가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맡기에는 어렵겠사오니, 청하건대 정인지로서 그 일을 맡게 하고, 이순지와 김담으로 종사관을 삼으면 좋게써줍니다’(<실록>26년 8월 12일). 이순지는 저서로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과 <일월교식법(日月交食法)>을 포함하여 몇 권이 있다.

김담(金淡, 1416-1464): 김담의 천문 업적은 이순지와 공동 작업이 많았으므로, 이순지를 참조하면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일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세종 18년 봉상판관 이순지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리가 비었다. 이에 세종은 “당시 집현정 정자(正字)로 있던 김담이 나이가 젊고 총명 민첩하며 영오하므로 순지의 역할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천거 받은 일(<실록>12월 26일)”이 그 하나이고, “세종 31년 전 서운부정(前 書雲副正) 김담에게 옷 1습과 쌀과 콩 10석을 내려 주고, 역법에 종사하기를 명하다. 이 때에 김담이 아버지의 상사를 입고 영천에 있는데, 특명으로 부른 것은 역법에 정통한 때문이었다(<실록>5월 21일).”라는 사실이 그 둘째이다.

기라성 같은 천문가들이 세종대왕의 주위에 이렇게 많이모였다는 사실은 세종대왕 자신이 훌륭한 과학자였기에 가능했다. 과학자를 아끼고, 그들에게 능력과 재능에 알맞은 직책을 주고, 항상 지도하고 감독한 그의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수완이 경희루 주변을 항상 바쁘게 일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다.

3. 경복궁은 세종의 천문대를 복원할 때 세계적인 궁궐로 다시 태어난다.

15세기는 과연 세종대왕의 세기였다. 그리고 그의 세기는 중국을 중심한 동양 과학의 마지막 세기였다. 이후부터 동양의 과학이 몰락한 것이다. 뒤를 이은 인물이 없었고, 또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유럽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 세기인 17세기에는 갈릴레오나 케플러가 법황청에 반기를 들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옹호하고 나선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아이작 뉴턴이 현대 과학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서양 과학만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길게 볼 가치가 있다. 몰락하여 자취를 감췄던 동양의 과학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적어도 서양 과학에 새로운 지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허황된 한낱 바람만은 아니다. 서양 과학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다. 과학은 인간이 경험한 지식을 축적하여 그것을 체계화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서양인의 체험이 언제나 완전한 것일 수 없으므로 서양 과학에도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고대인의 체험과 상상(想像)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천체 현상은 16세기로 부터의 서양인의 체험만으로 이해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이 체험한 기간이 동양에 비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고려사 천문지〉, 역지, 오행지)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는 한반도에 살았던 지성(知性)들이 체험한 생생한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다. 이 중의 많은 것들이 현대 천문학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자료를 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보다 서구에 더 많다. 서구인들은 자기들의 경험의 체계에 유익한 점을 더 잘 알기 때문인 반면에, 우리는 경희루 주변의 천문대가 없어진 사실조차 모른 채 안일하게 지내왔기 때문일 것이다. 체험하고, 축적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밟지 않는 우리에게서는 과거의 유물과 기록이 박물관의 진열장을 장식하는 품목의 숫자를 채우는 일 외에 더한 의미가 있겠는가.

경복궁에 간의대를 비롯하여 세종대왕 당시의 천문대를 복원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 복구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밑바탕을 상실하고, 전통과 역사를 망각하면서 서구 과학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흥내대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의 과학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영어를 배우고, 숫자를 서양식으로 셈하고, 수학 공식의 기호를 우리글처럼 구사하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는 등등의 선행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경지에 도달할 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늙어 버린다. 30대나 40대가 되어서야 겨우 가능할 것이다. 서구인들과의 경쟁이 이래

서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마치 100미터 경주를 하기 위한 예선 통과조차도 우리에게 불리한 경우와도 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파고들어갈 틈을 찾아야 한다. 경기의 규칙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인에게 결핍된 곳을 찾아서 우리의 옛 지혜를 가지고 끼어드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그 지혜를 더 갈급하고 있다. 다만 가지고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15세기의 경희루 주변에는 아직도 그 시대의 지혜의 조각들이 널려 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만 제시해 보자.

첫째에 해당하는 사례 두 가지를 먼저 보면, ① 오늘날 지구의 환경 변화와 보존의 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다. 사하라 사막의 경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비가 점점 오지않기 때문이다. 남북극의 기상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알아 내려면 오랜 세월 조사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10년, 20년은 턱없는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비의 양을 누가 가장 먼저 잴는가? 지구상 어느 민족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까마득한 옛날, 세종대왕은 그 일을 시작했다. '측우기'를 만들어 바로 경복궁 경희루 주변에서 시작한 것이다. 1770년부터의 생생한 기록이 지금 <승정원일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는가. 가뭄과 홍수, 이상 기온, 태풍과 우박 등등의 기록은 삼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 오고 있다. ② 많은 천문 현상 중에 별뚝별(流星)과 운석의 기록이 삼국 시대부터 수천 개나 남아 있다. 이 천체는 태양계 안의 아주 작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작은 조각들이 태양계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알아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경복궁 간의대 위에서 밤 하늘을 지켜 보던 측후관들이 남긴 기록이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둘째로 경복궁 천문대를 복원해야 할 이유를 들어 보자. 경복궁은 세계인들이 와 보고 싶어하는 궁궐이 될 것이다. 그들은 궁안에 있는 세종의 천문대와 관측 기기와 물시계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 단 하나라고 할 수 있는 '15세기의 과학'의 무대인 경복궁은 만인의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깊이와 넓이가 있는 옛 선인들의 지혜를 공개하고 공유하자는 이야기다. 누가 그 지혜를 찾아 내는가가 문제되지 않는다. 세계의 누구든 좋다.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 15세기의 세종대왕과 그와 함께한 지성들이 놓고 간 보물을 찾아 내기를 바랄 뿐이다.

세종대왕의 구리로 양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두 개 만들어서, 그 중 하나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혜정교 앞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그의 재위 16년(1434년) 10월이었다. 김돈의 명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그 곳에 세운 이유를, 첫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잘 이용할 것이며, 둘째,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계는 필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공중 시계일 것이다. 지금부터 560여년 전에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 정책을 이렇게 펼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는 이 시계를 널리 보급하려고 생각했다. 보고 뜻있는 사람은 만들어서 쓰라는 것이다. 그의 이 소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바랐던 대로 백성들은 나무로 만들기

도 하고 또 돌에 새기기도 하는등, 양부일구라는 해시계 제작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금세기 초까지도 한국에는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든 각양 각색의 양부일구가 제작되었는데, 상아로 만든 휴대용이 있는가 하면 또 부채 끝에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꺾꽂이형의 것도 있다. 지금도 새로 짓는 박물관이나 공공 기관에 오석으로 크게 새긴 양부일구를 만들어 설치하고 있으니, 이 해시계는 한국인의 정서에 꼭 맞는 모양이다. 양부일구는 세계에 알려진 해시계 중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기하학적 기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구성한 정확한 해시계이다. 어쨌거나 간에, 이 해시계에는 한국인의 애정도 함께 담겨 있는 세계적 보물이다.

聖君 世宗의 불행과 苦惱

탄신 6백주년을 기리며

辛 奉 承

(극작가, 예술원회원)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군왕이던 아니면 패전을 모르는 용장이던 어떤 개인의 삶에 '위대하다'는 찬사를 보내기는 그리 쉽지가 않지만, 한 인간의 삶을 두고 '위대하다'는 상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은 진실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성군 세종대왕의 삶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1397(태종 10)년 4월 10일(음력)이라면 올해의 5월 16일(양력)이 탄신 6백주년이 되기에 그분의 고뇌와 불행 그리고 찬연한 업적을 다시 상고해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종대왕 처럼 가정적으로 혹은 일신상의 불행을 많이 겪었던 군왕은 흔치가 않다. 그의 찬연한 업적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불행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세종대왕이 아무 근심걱정이 없는 아주 행복한 일생을 보낼수가 있었기에 그 많은 업적을 이룰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에서 그가 가정적으로 불행하다고 했는데 혹자는 임금에게 무슨 가정이 있는냐고 반문하겠지만, 아무리 대궐안 지밀(至密)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계시고 처자가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요, 그 범주 안에서 겪게되는 불행은 가정적인 불행일 수 밖에 없다.

세종대왕은 아직 약관이랄 수 있는 22세에 부왕(太宗)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고, 32년이라는 짧지 않은 재위(在位) 기간을 기록하였으며, 54세를 일기로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마감하였다.

세종대왕을 괴롭힌 첫 번째 고통은 끈임없이 이어지는 국상(國喪)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재위중에 아버지 태종대왕과 어머니 원경왕후 그리고 큰아버님 정종대왕과 사랑하는 아내 소헌왕후와의 사별로, 재위기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무려 10여년 동안을 상복을 입고 지내야 했다.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의 상중에 장대같은 빗줄기가 쏟아져서 그 빗물이 무릎에까지 차이는데도 빈소의 마당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놀란 신하들이 평상을 들고와서 올라 앉기를 애원하는데도 이를 가납하지 않았다고 그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면 10여년이나 계속되는 국상기간이 얼마나 상심되고 고통스러웠을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어디 그뿐이던가, 성군 세종이 누구보다도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던 정소공주(貞昭公主)를 잃었을 때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열 두살 어린 정소공주가 세상을 뜨자 세종은 너무도 상심하여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 어린 딸의 영혼을 달래고자 하였다. 제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아버지는 말하노라.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움직일 수 없는 바이지만, 부녀간의 지극한 정리는 스스로 끊을 수가 없도다. 슬프다! 너의 일생은 연약한 여식으로 태어나 자태가 단정하고 맑았으며 품성이 곱고 아름다웠도다. 내가 너의 손을 이끌고 다닐 때 너의 행실은 진실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어른같이 훌륭하여 자애의 정이 흘러 너를 어루만지고 사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도다. 네가 혼인하여 함께 편한 삶을 누리려 하였더니 어찌 하찮은 병에 걸려 좀더 오래 살지 못하고 마침내 이러한 슬픔을 당할 줄 뜻하였으랴.

내가 병구호를 잘못된 까닭이나, 너의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완연하건만 곱고 맑은 너의 영혼은 어디로 갔다는 말이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노라.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가슴을 적시는도다. 이제 현실에 지체하여 나의 슬픈 회포를 풀고자 하노라. 녀이여 삶이 있거든 이 내 말을 부디 들어 주려므나.

명문된 문장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여식을 애처롭게 여기는 아버지의 상심이 절절하게 넘쳐 흐르고 있다. 더욱이 정소공주의 시신을 안고 내주질 않아서 염이 늦추어졌다는 기록에 이르러서는 그분의 따뜻한 인간미에 눈시울까지 적시게 된다.

세종대왕을 괴롭힌 두 번째의 큰 불행은 병마와의 투쟁일 것이다.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을 만큼 극심했던 각기는 그분의 왕성한 활동력을 제한하였고, 몸을 돌아눕기조차도 어렵게 하는 창질(瘡疾)은 끝없이 이어지는 오한에 시달리게 하였으며, 조갈병(燥渴病: 요즘의 당뇨병)은 갖가지 합병증을 불러들여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할 무렵에는 눈 앞에 앉아있는 신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안질(眼疾)을 앓았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대소실료들이 전의(典醫)들과 의논하여 ‘검은 염소’를 고아드시기를 간곡히 청했을 때, 세종대왕은 먼저 ‘검은 염소’가 어느 나라의 짐승이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외국에서 들

어은 짐승이라고 대답하자.

—어찌 임금의 병을 고치고자하여 남의 나라에서 들여온 짐승의 씨를 말릴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로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 비답이야말로 그가 성인의 경지에 있었음을 입증하고도 남을 것이리라.

세종대왕을 괴롭힌 세 번째 고통은 그야말로 가정적인 불행이었다. 세종은 두 번에 걸쳐 나라의 세자빈(世子嬪)이요, 사사롭게는 맏며느리를 문초하여 폐출(廢黜)해야하는 고통을 겪었다.

첫 번째로 맞아들인 맏며느리 휘빈(徽嬪) 김씨는 점쟁이들이나 보는 비방서만 믿고, 세자(후일의 文宗)의 신발을 훔쳐다가 태운 재를 술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의 비열한 방법으로 투기(妬忌)를 일삼았다가 쫓겨남으로써 세종으로 하여금 맏며느리를 폐출케 하는 아픔을 감내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맞아들인 순빈(純嬪) 봉(奉)씨는 시녀 소쌍(召雙)과 동성연애(同性戀愛)를 하다가 또 다른 시비인 단지(端只)와의 삼각관계에 휘말리게 되어 역시 세종의 국문을 받고 폐출되었으며, 다시 세 번째로 맞아들인 권(權)씨가 비운의 인생을 살았던 단종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이지만, 세 여성 모두가 동궁의 후궁이었던 탓에 이른바 금혼령을 내려서 명가의 여식으로 세자빈을 간택하는 국혼(國婚)을 치를 수가 없었던 상심은 아무리 범상함을 넘어서는 세종대왕이라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같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고통과 불행속에서도 그가 국정에 임한 모습은 어짐을 이루고 (成仁), 의로움을 취하는(取義)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음을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

세종대왕은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과 더불어 순수한 우리 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마침내 서기 1446(세종 28년) 9월 초(양력 10월 9일)에 반포하였고, 이순지등의 과학자에 명하여서는 수많은 천문과화학기를 만들게 하면서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編)」과 같은 천문서적을 편찬 간행하였다.

「칠정산내외편」이 완간됨으로써 일식과 월식의 이치를 수리로 산출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 세계 최초로 일식과 월식을 예고하는 나라가 되었다.

또 박연(朴堧)으로 하여금 경석(磬石)을 찾게하여 마침내 중국과 다른 순수한 우리의 악기를 만들어 정악(正樂)의 틀을 세우면서 친히 2백 여곡을 작곡하기도 하였으며, 최윤덕, 이종무 장군에게는 왜적의 소굴인 대마도를 완전히 소탕하게 하여 화근의 씨앗을 뽑아내는 쾌거를 이루었고, 김종서에게 명하여 육진을 설치하게 하여 국토를 넓히고 국경을 정비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실은 익히 우리가 아는 일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세종특유의 인간성과 성군됨을 보여주는 대목도 부지기수로 많다.

그중에서도 세공(요즘의 세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마치 국민투표와 같은 찬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물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 각 고을에 경차관(監行御史)을 파견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게 하고 곧 시행될 세공의 책정방법을 설명한 다음 가부를 물었다.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았다. 이에 세종은 그 세공의 책정과 시행을 무기연기하고 정인지로 하여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게 하였으니 그 민주적인 사고방식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귀감이 되고

남을 것이다.

또 나라의 미풍과 양속을 보전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편찬하였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책의 한 쪽면은 그림으로 설명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거기에 담겨진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포은운명(圃隱殞命)」과 「길재항명(吉再抗明)」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포은운명」이라함은 정몽주의 충절을 그린 것이며, 「길재항명」은 조선왕조가 개국이 되었는데도 고려의 구신이라하여 절개를 지킨 것을 찬양한 것이다. 정몽주는 세종의 아버지(태조)에 의해 격살이되었고, 길재는 할아버지(태조)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두사람의 충절과 지조를 찬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귀감으로 삼게 하였던 것은 고려왕조에 대해서는 만고의 충절이요,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 지조 높은 선비였기에 조선왕조에서도 그들과 같은 충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조와 충절을 널리 알려져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포용력과 그의 정치철학은 실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인재를 등용하여 긴요히 쓰면서 아끼는 세종대왕의 자상함도 남다른데가 있었다. 세종시대의 천문·과학을 빛낸 걸출한 과학자는 단연 대호군 장영실(將英實)일 것이다. 그는 동래관노(東萊官奴)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공천(公薦)의 신분일 뿐, 실상은 다섯 형제가 모두 전서(典書)의 벼슬을 지낸 반가(本杆 牙山)의 핏줄을 이어받고 있었다.

장영실이 발명한 천문기기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가 항용 해시계라고 부르는 「앙부일구(仰釜日晷)」의 정확도는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세종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의 내용이 많은 혜정고(惠政稿: 지금의 삼각동에 있었다)와 종묘의 앞에 설치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였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세종 20년(1438)에 이르러 마침내 장영실은 그가 평생을 염원하였던 거대한면서도 신묘한 대형 시계를 완성하였다.

「흙경각(欽敬閣)」의 안에 가득히 장치되었던 대형시계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전각(殿閣)의 한복판에는 일곱 자 높이의 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물먹인 종이를 올려붙여 만든 것이었지만, 어찌나 정교하고 세밀한지 기슭마다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산(紙山)안에 설치된 「옥루전기(玉漏轉機)」가 작동하면서 물을 흘러보내기 때문이다.

오색 구름이 서려 있는 울창한 산마루 위에는 둥근 해가 떠 있었는데, 그 해는 하루에 한번씩 낮에는 산 밖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산 속으로 들어가며 <중략>…… 해 밑에는 옥으러 만든 여자 인형 넷이 구름을 탄 형상으로 서 있었고 그녀들의 손에는 금목탁이 쥐어져 있다. 그들의 위치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각 서 있어서 인시(寅時), 묘시(卯時), 진시(辰時)가 되면 동쪽에 있는 여자 인형이 두들겼고, 사시(巳時), 오시(午時), 미시(未時)가 되면 남쪽에 서 있는 여자 인형이 목탁을 쳤다. <중략>… 또 여자 인형 바로 곁에는 네 가지 귀형(鬼形)을 만들어 배치하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방향을 나타내는 일이다. 즉 인시가 되면 청룡신(靑龍神)이 북쪽으로 향하고, 묘시에는 동쪽으로 향하며, <중략>… 시간이 되면 시간을 맡은 인형이 종을 치고, 경(更)이 되면 경

을 맡은 인형이 북을 치고, 점(點)이 되면 점을 맡은 인형이 징을 치도록 되어있다. <중략>..., 또 산밭 평지에는 쥐(子) 소(丑), 범(寅), 토끼(卯), 용(辰),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 등 12간지를 나타내는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된 방위신들이 옆들여 있고 그 뒤에는 각각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평시에는 닫혀있으나, 자시가 되면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인형 옥녀(玉女)가 자시패를 가지고 나옴과 동시에 쥐 형상의 방위신이 벌떡 일어난다. 자시가 지나면 옥녀는 저절로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쥐 형상의 방위신도 도로 자리에 엎드린다. <중략>..., 또 오방위(午方位) 앞에는 대를 하나 세워놓고, 그 대 위에 그릇 하나를 놓았다. 그릇 북쪽에는 관 북을 입을 인형이 있어, 금병을 가지고 그 그릇에 물을 따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옥루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금병을 통해 끊임없이 그릇 속에서 흘러드는데, 가득 차면 엎어져서 다시 옥루전기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은 상상을 해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형상을 문자로 옮겨 본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전각 안에 뿔뿔히 설치되어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의 풍경과 함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찌 되는가.

세종대왕의 치세가 가장 훌륭했던 태평성대로 평가되는 것은 정법(正法)과 조화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였던 그분의 정치철학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정무를 살핍에 있어서도 상경(常經: 사람이 지켜야 할 변치 않는 법도)과 권도(權道: 왕명으로 임기응변에 대응하는 것)를 존중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특히 몸소 정법을 실행해 보이는 것으로 신료들로 하여금 귀감을 삼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보위에 오르면서 무려 7년 동안을 혹독한 가뭄에 시달린다. 스물 두살의 세종은 백성들의 고초와 아픔을 함께하는 일대 단안을 내린다. 바로 그것이 대궐안 경희루 동쪽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몸소 거기서 기거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고초를 체험하기까지 하였으니, 실록의 기록은 이렇다.

-임금이 경희루 동쪽에 버려둔 재목으로 별실(別室) 두 칸을 짓게 하였는데, 주초(柱礎)도 쓰지 않고 락(茅草)로 덮게 하였으니 장식은 모두 친히 명령하여 힘써 검소하게 하였다. 임금은 이때에 와서 정전(正殿)에 들지 않고 이 별실에서 기거하였다.

백성들의 고초와 아픔을 몸소 체험으로 감지하려는 세종의 지행(知行)함이 여기에 이르자 신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승과 판서들은 연일 세종이 기거하는 초가마당에 꿇어앉아 침전으로 들 것을 간청하였고, 소헌왕후(昭憲王后) 또한 눈물로 호소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세종장헌대왕실록」을 읽고 있노라면 그의 성군됨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갖가지 병마에 시달리면서 다른 왕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인적이고도 찬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성군 세종대왕은 무엇보다도 역사인식에 투철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치자(治者)의 도리는 아무리 되짚어도 손해될 것이 없다.

-대저 정치를 잘하려면 전시대의 치란(治亂)의 자취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치란의 자취를 살펴 보려면 오로지 역사의 기록을 상고하여야 한다.

요즘과 같이 우리의 현실이 참혹하게 뒤틀리는 때일수록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실천적인 정치 철학이 새삼 그리워지는 것을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예술원보 제41호에서〉

세종대왕 시대의 이야기 3

1

세종 시대 중기에 윤희(尹淮) · 신장(申穡) · 남수문(南秀文) 등 당대의 주호(酒豪)들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학덕과 문명을 떨치던 집현전의 학사들이었다. 이들이 모여 앉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두주(斗酒)를 불사하였는데, 시(詩)와 경서(經書)를 입에 담으면 해가 지는 것을 몰랐고, 재담을 시작하면 낮밤이 바뀌는 줄을 몰랐다 하여 당대의 사람들은 이들을 3주호라고 불렀다.

세종대왕은 이들을 한자리에 부르고 술 때문에 일찍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니, 과음을 삼가기를 간곡히 타이르고 특히 윤희와 신장에게는 한자리에서 세 잔 이상은 마시지 말도록 엄명을 내렸다. 그후 윤희와 신장은 세종대왕의 하교를 어떠한 경우에도 세 잔 이상은 마시지 않았으나, 아주 큰 그릇으로 세 잔을 마셨던 탓에 주량은 오히려 전보다 늘어난 셈이었다. 세종대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술을 덜 마시게 한 것이 술을 더 마시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탄식하였다.

신장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정승 허조(許稠)는 '술이 신장을 망쳤도다!'라고 한탄하였고 얼마 뒤 남수문마저도 세상을 버리자, 성군 세종대왕은 술의 해독을 명료하게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계의 윤음을 내리기도 하였다.

술의 해독은 매우 크다, 어찌 특히 곡식을 씹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사람의 위엄과 품위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를 봉양(奉養)하는 일마저 저버리게 되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그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안을 망치게 만들며, 그 해독이 작으면 성품을 거칠게 하고 생명을 잃게 만든다. 술이 강상(綱常)을 더럽히고 문란하게 만들어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일일이 그 예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세종대왕의 치세가 가장 훌륭했던 태평성대로 평가되는 것은 정법(正法)과 조화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였던 그분의 정치철학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정무를 살림에 있어서도 상경(常經: 사람이 지켜야 할 변치 않는 법도)과 권도(權道: 왕명으로 임기응변에 대응하는 것)를 존중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특히 몸소 정법을 실행해 보이는 것으로 신료들로 하여금 귀감을 삼게 하였다.

그 한 예로 대궐 안에 초가집을 지어 놓고 몸소 거기서 기거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고초를 체험하기 까지 하였다.

임금이 경희루 동쪽에 버려 둔 재목으로 별실(別室) 두 칸을 짓게 하였는데, 주초(柱礎)도 쓰지 않고 띠(茅草)로 덮게 하였으니 장식은 모두 친히 명령하여 힘써 검소하게 하였다. 임금은 이때에 와서 정전(正殿)에 들지 않고 이 별실에서 기거하였다.

세종의 지행(知行)함이 여기에 이르자 신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승과 판서들은 연일 지존이 기거하는 초가마당에 꿇어앉아 대전으로 들 것을 간청하였고, 소헌왕후(昭憲王后) 또한 눈물로 호소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세종장헌대왕실록』을 읽고 있노라면 그의 성군됨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갖가지 병마에 시달리면서 다른 왕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인적인 업적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이다.

세종대왕은 곁에 앉은 사람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만성적인 안질(眼疾)에 시달려야 했고, 옆구리에 난 창(瘡)과 풍질(風疾) 때문에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했으며, 각기(脚氣)가 심하여 보행조차도 자유롭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조갈증(燥渴症: 지금의 당뇨병)까지 겹쳐 있었다면 이만저만한 병고가 아니었다. 세종대왕은 그런 엄청난 곤경을 헤쳐 나가면서 수많은 과학기기를 발명·제작하게 하였고, 오늘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정음(正音: 한글)까지 창제하였다.

왕실과 조정은 세종대왕의 환후를 염려하여 검은 염소를 다려서 드실 것을 지성으로 청하였으나, 대왕은 검은 염소가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온 귀한 짐승이라 약으로 써서 멸종케 할 수 없다면서 완곡히 사양하였다. 실로 하늘이 내린 성군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성군 세종대왕이 소망하였던 가장 이상적인 국가란 어떤 것일까.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첫 대목에 그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리므로 꽃도 좋고 열매도 많느니라.

2

세종 시대의 천문·과학을 거론하자면 단연 이순지(李純之: ? - 1465)를 입에 올려야 하지만, 그의 빛나는 업적과 굴욕에 관한 에피소드는 뜻밖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기가 미국을 대표하는 역사소설가로 풀리처상(賞)을 수상한 바 있는 거들리 주니어(Guthrie, Jr)도 그 점을 극히 우려한 바가 있기는 하다.

역사는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고 있으며, 역사는 충분히 일반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어찌되었거나, 천문학의 대가 이순지는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 김담(金談)과 함께 조선 시대

역법(曆法)의 금자랍이라고 할 수 있는 「칠정산 내·외편(七政算 內·外篇)」을 편찬하였다.

「칠정산 내·외편」의 주된 내용은 놀랍게도 일식과 월식을 비롯한 천문전체를 고증검교(考證檢校)하고 있는데, 특히 이순지는 이를 집필하면서 「회회력법(回回曆法)」을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회회력법」이란 아랍의 역서임으로 말할 것도 없이 '태양력'이다. 이로 미루어 조선 시대 초기부터 아랍인(回回老人)들이 이땅에 살고 있었고, 또 조선 조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국의 문명을 전파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천문학자로서 당대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이순지에게 일찍 과부가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는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이른바 양성(兩性: 남녀의 성기를 모두 갖춤)인 사내와 오랜 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오다가 마침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그 사내의 이름은 사방지(舍方知), 아니 여자일 수도 있었기에 산사(山寺)로 숨어들어가 비구니를 범하다가 발각된 것이었다. 이 해괴망측한 일이 왕실과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이순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때는 세조(世祖) 4년(1462) 4월, 장령 신송주(申松周)가 처음으로 사방지의 소문을 듣고 세조에게 아뢰었다. 이때의 일을 「세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소상히' 적고 있다.

장령 신송주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연건방에 사는 고(故) 학생 김구석(金九石)의 처 이씨의 가인(家人) 사방지가 여복을 하고 종적이 괴이하다 하여 잡아다가 살펴보았더니, 과연 여장을 하였는데 음경(陰莖)과 음낭(陰囊)은 곧 남자였습니다. 그가 남자로서 여장을 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가두어 심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세조의 사위이자 정인지의 아들)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그를 승정원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라.”

하였다. 정현조가 영순군(永順君) 부(傅)와 함께 가보니, 머리의 장식과 복색은 여자였으나, 음경·음낭은 남자였다. 다만 정도(精道)가 경두(莖頭) 아래 있는 것이 다른 남자와 다를 뿐이었다. 승지 등의 임금에게 고하기를,

“이것은 이의(二儀: 곧 兩性이라는 뜻)의 사람인데 남자의 형상이 더 많습니다.”

라 했다. 임금이 다시 전교하기를,

“황당한 사람이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이순지는 가장으로서 이를 금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그르다. 그러나 간통한 것을 잡은 것도 아닌데 재상의 집 일을 경솔하게 의논하고, 또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을 미리 계품하지 않고 취초(取招)한 것은 심히 불가하다.”

하고 사헌부의 관리를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저녁에 승지에게 다시 묻기를,

“사방지를 가두어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가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김구석의 처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사방지와 사통한 것이 여러 해 되었고, 또한 김중렴 집의 계집종으로 여승이 된 이가 있었는데 사방지와 더불어 간통하다가 발각되었다. 임금이 도승지 홍응(洪應)에게 이르기를,

“이순지는 대부(大夫)의 가문이다. 애매모호한 일을 가지고 하루 아침에 흠을 받는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순지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사방지만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당시에 이씨는 부호라고 일컬었는데, 사방지의 복식이 화려한 것이 다 이씨가 준 것이었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평 성률(持平 成慄)은 사방지의 일을 김석손(金石孫)에게서 들었고, 김석손은 윤우(尹遇)에게서 들었으며, 윤우는 중비(仲非)에게서 들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중비도 아울러 국문하고 이순지를 파직하되, 사방지는 이순지에게 주라.”

하였다.

사인 권윤이 아뢰기를,

“사방지가 이씨의 집에 있을 적의 소행은 알지 못하나, 여종중비와 사통한 것은 확실하며, 중비와 아는 것을 청탁하여 김중렴의 집을 왕래하며 지원(智遠)과 간통하였고, 소녀(小女)와도 간통하였습니다. 중비가 아이 낳 것을 두려워하면 사방지가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잉태한 적이 없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하였다 하옵니다.”

장령 이문환이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관리가 사방지의 일 때문에 간헐하므로 신 등은 생각건대 핵심하기를 끝낸 뒤에 장차 사방지를 별도로 처치하실 것으로 여겨 왔는데 오히려 내버려 두고 묻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는 여복을 입고 남녀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죄를 가하지 않으시려거든, 청컨대 저 외방에 병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미 유사(宥赦) 전이라고 하여 석방하였는데 어찌 외방에 둘 수가 있겠느냐.” 하였다.

정언 이길보가 아뢰기를,

“어제 사방지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전교하기를 ‘유사 전이니 국문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시니 신 등의 생각에는 유사후에도 오히려 그 집에 있었는데 유사 전이라 하여 논하지 말게 하심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히려 그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집이냐?”

“김구석의 처 이씨의 집입니다.”

“네가 사방지가 범한 바를 자세히 아느냐?”

“그는 남자로써 과부의 집을 출입하였으니, 그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대저 간관이 된 자는 간하는 것만을 어진 것으로 여기고 대의는 알지 못하니, 매우 불가하다. 사방지의 일은 내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그를 다시 국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연유가 있다. 그의 양경이 남자 같으나 실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그 하나이며, 간통하는 현장을 잡지 않은 것이 그 둘이며, 일이 유사 전에 있던 것이 그 셋이다. 또 사방지와 김구석의 처는 한곳에 머물면서 잠시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출입하는 데 이르러서도 항상 데리고 다녔다 하여 추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러나 김구석의 처는 중추(中樞) 이순지의 딸이고, 그 아들 김유악(金由岳)은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의 사위이다.”

하였다.

인용이 길어진 것은 「조선왕조실록」이 정치적인 중대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지와 같은 풍속사범을 다스리고 벌주는 일도 세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를 적고 있으면서도 임금과 신하가 사소한 일일까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민주적인 분위기를 소개해 두고 싶어서였다.

3

세종 시대를 빛낸 또 한 사람의 걸출한 과학자는 대호군 장영실(大護軍 蔣英實)일 것이다. 그는 동래관노(東萊官奴)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공천(公賤)의 신분일 뿐, 실상은 다섯 형제가 모두 전서(典書)의 벼슬을 지낸 반가(본관; 牙山)의 핏줄을 이어받고 있었다.

소년 장영실은 이순지에게 발탁되어 세종대왕에게 천거되는 행운을 입었고,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론과 실제를 겸한 당대제일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장영실이 발명한 천문기기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가 항용 해시계라고 부르는 ‘양부일구(仰釜日晷)’의 정확도는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세종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의 내왕이 많은 혜정교(惠政橋: 지금의 삼각동에 있었다)와 종묘의 앞에 설치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였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세종 20년(1438)에 이르러 마침내 장영실은 그가 평생을 염원하였던 거대한 시계를 완성하였다.

그 시계의 형상은 이러했다.

전각(殿閣)의 한복판에는 일곱 자 높이의 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물먹인 종이를 오려붙여 만든 것이었지만, 어찌나 정교하고 세밀한지 기슭마다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산(紙山)안에 설치된 ‘옥루전기(玉漏轉機)’가 작동하면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오색 구름이 서려 있는 울창한 산마루 위에는 둥근 해가 떠 있었는데, 그 해는 하루에 한 번씩 돌

아서 낮에는 산 밖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산 속으로 들어가며, 그 운행하는 법칙도 모두가 천행(天行)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또 극(極)의 멀고 가까운 거리와 돌고 지는 분수(分數)가 각각 절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해 밑에는 옥으로 만든 여자 인형 넷이 구름을 탄 형상으로 서 있었고 그녀들의 손에는 금목탁이 쥐어져 있다. 그들의 위치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각 서 있어서 인시(寅時), 묘시(卯時), 진시(辰時)가 되면 동쪽에 있는 여자 인형이 목탁을 두들겼고, 사시(巳時), 오시(午時), 미시(未時)가 되면 남쪽에 서있는 여자 인형이 목탁을 쳤다. 서쪽과 북쪽의 인형들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 시간이 오면 목탁을 두들기도록 되어 있다.

또 여자 인형 바로 곁에는 네 가지 귀형(鬼形)을 만들어 배치하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방향을 나타내는 일이다. 즉 인시가 되면 청룡신(靑龍神)이 북쪽으로 향하고, 묘시에는 동쪽으로 향하며, 진시가 되면 남쪽으로 향하고, 사시가 되면 다시 서쪽으로 향하는 동시에 주작신(朱雀神)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방식은 청룡신이 행하는 것과 같다.

산기슭 남쪽에는 높은 축대가 있어 시간을 맡은 인형 하나가 붉은 비단옷 차림으로 산을 등지고 서 있는데 그 앞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인형 무사 세 사람이 손에 종과 방망이, 북과 북채, 징과 채를 들고 서 있다가, 시간이 되면 시간을 맡은 인형이 종을 치고, 경(更)이 되면 경을 맡은 인형이 북을 치고, 점(點)이 되면 점을 맡은 인형이 징을 치도록 되어 있다. 그때 비단 옷을 입은 인형도 각 시간, 경, 점이 되면 방향을 틀어 무사 인형들에게 시각을 알려라고 지시를 하게 되어 있다.

또 산밑 평지에는 쥐(子), 소(丑), 범(寅), 토끼(卯), 용(辰),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 등 12간지를 나타내는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된 방위신들이 엮여 있고, 그 뒤에는 각각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평시에는 닫혀 있으나, 자시가 되면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인형 옥녀(玉女)가 자시패를 가지고 나옴과 동시에 쥐 형상의 방위신이 벌떡 일어난다. 자시가 지나면 옥녀는 저절로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쥐 형상의 방위신도 도로 자리에 엎드린다. 축사가 되면 구멍에서 옥녀가 축시패를 들고 나오면서 역시 소의 형상을 한 방위신이 벌떡 일어난다. 인시·묘시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오방위(午方位) 앞에는 대를 하나 세워 놓고, 그 대 위에 그릇 하나를 놓았다. 그릇 북쪽에는 관복을 입은 인형이 있어, 금병을 가지고 그 그릇에 물을 따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옥루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금병을 통해 끊임없이 그릇 속으로 흘러드는데, 가득 차면 옆어져서 다시 옥루전기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위에 적은 형상은 상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형상을 문자로 옮겨 본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전각 안에 뿔뿔이 설치되어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의 풍광과 함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찌 되는가.

독자들이여, 당시에는 컴퓨터도 컴퓨터칩도 없었던 때였고, 정밀하게 깎고 다듬을 수 있는 설비도 물론 없었다. 그런데도 천지자연의 절묘한 이치를 하나의 건물 안으로 옮겨와 움직이게 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용인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설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치밀한 것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장영실의 손끝에 의해 만들어진 각가지 기물들이 얼마나 정교하였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경복궁의 경회루 곁에 우뚝하였던 이 전각의 이름을 ‘흠경각(欽敬閣)’이라고 지었다. ‘서경(書經)’요전(堯典)에 적혀있는,

공경함을 하늘같이 하여	欽苦昊天
백성들에게 절후를 알려 준다	敬授人時

라는 명구에서 따온 것이었다.

〈신봉승의 조선사 나들이에서〉

풍수지리설로 이름난 영릉

원 용 문

(한국교원대 교수, 여주문화원 이사)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 가운데 우리의 글인 훈민정음 창제의 뜻을 기려 능역 입구에 세운 훈민문을 통과했다. 좌우로는 아름다운 잔디밭이 전개되고, 왼쪽에는 작은 연못이 나타나고, 가운데로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시원스럽게 누워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 어찌나 맑고 깨끗했던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또 능역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울울창창한 송림은 얼마나 시원스러웠던가, 늦은 봄철이나 여름에는 이 산속에서 우는 두견새 소리가 애절하면서도 은은하게 들려온다고 한다. 하여간에 이 선생의 말을 빌리면 이곳을 성역화하기 이전에는 이 넓은 잔디 광장이 모두 습지대였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이 영릉의 구조를 설명해 준다.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낸 이 영릉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주산인 칠성산을 뒤로 얹고, 중허리에 봉분을 이룩했다. 좌우측에는 청룡백호를 이루었는데, 그것도 왼쪽에는 외청룡과 내청룡, 오른쪽에는 외백호와 내백호 등 2줄기가 그림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이상적인 명당터라는 것이고, 남쪽으로는 멀리 안산인 북성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서출동류(西出東流)라고 하겠는데, 그것은 마치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이 서쪽으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상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일섭 선생의 말대로라면 이 세종대왕 능역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지형을 압축시켜 놓은 축소판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통과한 곳은 홍살문, 이 문은 능 남쪽 150m 전방에 축조되었는데, 바로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문이라고 하겠다. 그 상층부의 살대는 법도의 곧고 바름을 의미하며 나라의 위엄을 상징한다. 어떻든 능역 입구에 우뚝 서 있는 이 홍살문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인간 세상과는 다른 성역화된 지역임을 암시해준다. 그 다음은 둘다리(神道)를 건너서 정자각(丁字閣)에 이르게 된다. 정자각의 앞 동서 양쪽에 수복방 또는 수라간이 있고, 다시 동쪽에 비각이 서 있다.

그러면 먼저 신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길이 100m, 폭이 3m의 화강석을 깔아놓은 길로 신분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게 되어 있다. 가운데 높은 길은 어로(御路)라 하여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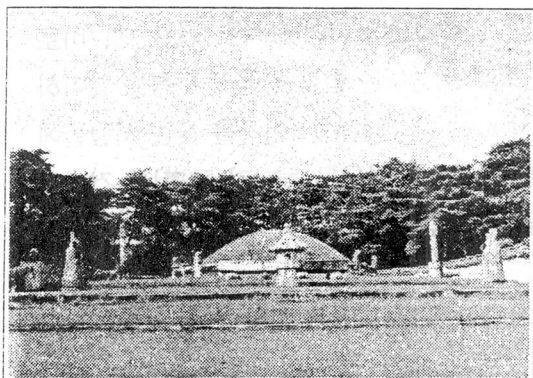
만이 다닐 수 있었고, 신하들은 동입서출(東入西出)이라 하여 들어갈 때는 동쪽 낮은 길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서쪽 낮은 길로 걸어나왔다고 한다. 그 정자각은 능에 제사를 드리던 집으로 구조는 간결하고 단청도 질박하여 화려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대들보에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순환하는 이치를 표현한 것이고, 뒷벽의 중앙간에 달린 문짝은 제사를 드릴 때에 열어놓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라간과 수복방은 무엇을 하는 집인가. 수라간은 다른 능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건물이며, 주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임금의 친행이 있을 때 제물을 마련하던 집이다. 주초석만 남아있던 것을 1977년에 옛모습을 상고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수복방은 제기를 보관하고 능을 지키는 수릉관 또는 수복이 거처하던 곳인데, 방 한칸, 마루 한칸, 곳간 한칸으로 되어 있다. 이 수복방은 원래 퇴락되어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77년에 초석을 찾아내어 옛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다음은 영릉비와 비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릉은 처음에 서울 현능에 있었는데 1469년 이곳 여주에 이장하였다. 영릉비는 1745년(영조21)에 세워졌고 비각 또한 이 때에 세워진 것이다. 비의 앞면에는 “朝鮮國世宗大王英陵昭憲王后祔左”라고 되어 있다. 비의 뒷면을 전부 소개할 수는 없고 그 머리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洪武三十年丁丑 四月十日誕生 永樂十六年戊戌受禪”이라고, 그리고 봉분(封墳)에는 호석(護石)을 두르고 석난간(石欄干)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그 호석 난간에는 연꽃 모양의 돌조각품을 사이사이 만들어 놓아 불교의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앞에는 합장릉임을 알 수 있는 2개의 상석과 장명등(長明燈)이 놓여 있었고, 좌우에 망주석(望柱石)을 세워놓았다.

석란외연(石欄外緣)에는 석양(夕羊)과 석호(石虎)를 서로 엇바꾸어 배치했는데, 이것들은 밖을 향하여 능을 수호하는 형상을 이루었다. 또 봉분의 동서북 삼방향에 곡담(曲牆)을 둘러싸서 외인이나 산짐승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밖에 이 담장은 겨울 한 복판에 차가운 북풍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풍벽 역할을 하도록 쌓은 것으로 이해된다. 봉분 앞 한층 낮은 제 1단에 문인석(文入石) 2쌍과 다시 제 2단에는 무인석(武入石) 2쌍을 세우고 문무석인(文武石人) 뒤에는 각각 석마(石馬)를 배치하였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세종대왕릉은 처음에는 광주에 있었는데, 1469년(예종 원년)에 현 능



지로 천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 지대가 풍수지리상 좋다 하여 천장한 것이지만, 이 영릉 천장을 했기 때문에 조선왕조(朝鮮王朝)가 백년(百年)은 더 연장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를 “英陵 加百年”이라고 한다. 하여간에 문외한의 눈으로 보아도 이곳의 지형이 대명당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풍수지리설에 의해 대 명당터로 알려진
‘여주의 세종대왕릉(영릉)’

그러면 세종대왕릉이 이곳에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세종의 능이 처음에 광주로 정해진 것은 그의 아버님 태종의 묘소 옆에 묻히고 싶어했던 세종 자신의 유언이라고 한다. 그 유언대로 묘를 쓰고 나니 당시 왕가에는 일대 파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위를 차지하는 왕위찬탈 사건이었다. 그 겨울에 생육신도 생기고 사육신도 생기지 않았던가.

어쨌든 세종의 스물 여덟이나 되는 아들들 가운데 수양대군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세종의 뒤를 이어 등극한 문종은 즉위한지 2년만에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어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자연적으로 세종왕릉에 대한 시비가 걸리게 되었고, 이장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풍수지리학자 육관도시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세종은 나름대로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선왕의 묘택 아래 낮은 곳에 자신의 묘를 썼는데, 그곳이 좋지 못한 자리로써 그만 화를 자초한 것이었다. 아무리 성스러운 대왕이라 할지라도 나쁜자리에 그 체백이 들어가니 자리의 운명이란 이토록 틀림이 없는 법이다. 말하자면 세종의 체백은 나쁜 유택에 들어가서 갖은 고난을 겪었으니, 동기의 자손들이 살아있는 동안 환란을 당한 것은 당연지사였던 것이다.

이에 예종은 개장할 길지 찾기를 명하는데, 지금의 서울 땅에서 1백리 이내에 묘택을 잡기로 하고 뛰어난 지사 여덟 명을 선발하였다”라고.어쨌든 예종 때에 이르러 성지관 안효례가 말하기를 “현릉 좌국의 풍수가 옛법에 맞지 않으니, 마땅히 능을 다시 세워 큰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아뢰었다. 그리고 예종께서는 개장할 길지 찾기를 명하는데, 포천, 문산, 고양, 김포, 여주, 이천 등지로 각각 지사들을 분산하여 보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한 일행인 노사신과 상지관 안효례가 여주 쪽을 답사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여주 강금산을 거쳐 북성산에 이르러 사면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지금의 영릉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묘터는 하늘의 신선이 내려오는 천신강탄형, 또는 신선이 단정하게 앉아 있는 선인단좌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이 예종께 보고되고 이곳으로 천장하려 했지만, 이곳에는 이미 광주 이씨 3대 손인 이인손의 묘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면 이인손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고, 그의 부친은 이지직(李之直)인데 청백리로 유명했고, 그의 조부는 둔촌 이집(李集)인데 고려말 절의와 명성을 함께 지냈던 분이라고 한다. 이처럼 다른 분의 묘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입장에서 함부로 이장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당시 평안도 관찰사로 있던 이인손의 맏아들 이극배를 몇 차례 조정에서 불러들여 은근히 당신의 뜻을 비쳤다고 한다. 이에 이극배도 아우들과 상의한 끝에 자리를 내놓게 되었고, 예종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세종이 먼저 계시던 현릉은 어떻게 그처럼 나쁜 사건이 일어났고 후에 와서 시비가

지 걸리게 되었던가? 1649년(예정 원년)에 파묘를 해보니 그 무덤 속에는 물이 가득차 있었다는 것이고, 그 현릉옆의 가시넝쿨과 잡목과 뿌리가 광중 안 가득히 뻗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영릉으로 이장하게 되었던 것이고, 광주 이씨들은 자신들의 선대 산소 자리를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재미난 일화가 전하기에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육판도사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이곳의 묘자리가 얼마나 훌륭했던가 하는 점이 저절로 증명된다고 하겠다. “지금의 영릉 자리는 원래 광주 이씨 3대손인 이인손의 묘택이 있던 곳이었다. 동고 이준경, 한음 이덕형 등을 비롯해서 영의정을 여러 명 배출한 명가문인 광주 이씨의 가문이다. 또한 이 가문은 조선왕조 5백년 동안 문과 무과 급제자 수만 해도 무려 5백 명에 이르는 명가문이 아니던가. 이 가문이 이렇게 번창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의 영릉 자리가 대명당이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광주 이씨네는 지관이 제시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처럼 대명당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

그러면 지관이 제시한 약속 내용은 무엇인가? 흐르는 개울물을 돌다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묘역에 사당이나 재실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그 지관은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고, 심지어는 자자 손손 지킬 수 있게 유언으로 남겨달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광주 이씨네 자손들은 그러한 유언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한 유언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조상 묘터를 내주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예종이 파견한 지사들은 북성산에서 사방을 둘러 보았고, 그러다가 어느 한곳에 정기가 서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그 정기가 서린 곳을 찾아 울창한 수림 속을 헤매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 날 산속을 헤매다 보니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게다가 예기치 않은 소나기까지 맞게 되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게 되었던 것이고, 그 피난처는 근처에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광주이씨네 자손들이 지어놓은 재실밖에 달리구할 수가 없었다. 지사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재실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막아서는 개울물. 그 개울물은 소나기를 맞아 갑자기 불어났던 것이고, 급류 현상까지 일어나 그냥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그 개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그들은 마침내 상류쪽에 있는 돌다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사들은 그 돌다리를 통해서 유유히 개울물을 건너게 되었고, 광주 이씨네 자손들이 지어놓은 재실 처마 밑에서 여름 소나기를 피하게 되었다. 그 비를 피하면서 자그마한 산 언덕 위에 있는 광주이씨네 산소자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그 산소 자리에 알 수 없는 정기가 서려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명당터는 예종임금께 보고 되었던 것이고, 광주이씨네 자손들은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세종대왕은 대길지에 묻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영원히 추앙받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집터에다 깨끗하고 멋진 집을 짓고서 살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사후

에도 그 체백의 안녕과 자손의 번영을 가져오는 대 명당터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좋은 명당터가 아무에게나 찾아올 리 없다. 선대 때부터 좋은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살고 공덕을 쌓아야 그러한 명당터가 찾아온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에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고 크나큰 공덕을 쌓으셨으니, 이러한 세계적 명당터에 묻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나는 풍수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영릉에 찾아오면 아름다운 산수와 깨끗한 주위 환경에 압도되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감탄사가 나온다. 그리고는 마음 마저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고 흐뭇한 감정을 갖게된다. 그러니 이곳을 자주 찾아 오지 않고 어찌겠는가. 찾아와서는 큰절 올리는 것으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려야겠다.

〈우리역사 탐방기에서〉

세종대왕 약사

- (사)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제공 -

세종대왕은 휘(諱)가 도(澍)이고 자(字)는 원정(元正)이다. 또 존시(尊諡)는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고, 시호(諡號)는 장헌(莊憲)이며, 묘호(廟號)는 세종(世宗)이다.

1397년(태조 6년, 1세)

4월 10일(양력 5월 15일): 한성부 북부 준수방에서 정안군(태종) 이방원과 여흥 민씨(원경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다.

1408년(태종 8년, 12세)

2월 11일(양력 3월 17일): 충녕군에 책봉된다.

2월 16일(양력 3월 22일): 우부대언 심온의 딸 심씨(소헌왕후)와 혼인하다.

1412년(태종 12년, 16세)

5월 3일(양력 6월 20일): 충녕대군에 진봉되다.

1418년(태종 18년, 22세)

6월 3일(양력 7월 15일): 왕세자에 책봉되다.

8월 10일(양력 9월 18일): 근정전에서 즉위, 조선조, 제4대 임금이 되시다.

1419년(세종 1년, 23세)

6월 17일 - 29일: 대마도를 정벌하다.

9월 20일: 고려사를 개수하게 하다.

9월 26일: 노상왕 정종이 승하하다.

1420년(세종 2년, 24세)

윤1월 23일: 대마도를 경상도에 편입시키다.

2월 22일: 강무장을 일정한 장소로 정하다.

3월 16일: 집현전의 기구를 확장, 궁중에 설치하고, 문신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고문에 대비하다.

7월 10일: 대비 원경왕후가 승하하다.

10월: 주자소에서 활자 경자자를 만들기 시작하다.

11월 17일: 서이궁이 낙성되다.

1421년(세종 3년, 25세)

1월 30일: 유관과 변계량 등이 수교 편찬한 고려사를 올리다.

3월 24일: 경자자를 완성하고 인쇄법을 개량하니, 하루에 20 배의 능률을 올리다.

6월 9일: 신장(罰杖)의 제도를 정하여 태장을 마구 못치게 하다.

10월 27일: 원자 향(문종)을 세자로 책봉하다.

12월 22일: 사죄 삼복계(死罪三覆啓)의 법을 엄히 하다.

1422년(세종 4년, 26세)

1월 15일: 도성을 수축하기 시작하다.

5월 10일: 태상왕 태종이 승하하다.

6월 20일: 새로 개조한 저울을 중의에 반포하다.

10월 29일: 주자를 개주하다.

1423년(세종 5년, 27세)

2월 26일: 경성 남산의 봉화대를 축조하다.

9월 16일: 조선통보를 주조하게 하다.

12월 24일: 정종과 태종 양조의 실록을 수찬하게 하다.

12월 29일: 고려사를 개수하게 하다

1424년(세종 6년, 28세)

2월 7일: 주전소를 경상도, 전라도에 두다.

4월 5일: 불교의 여러 종파를 선종, 교종 양종 36사로 통합하여 불도를 정하게 닦도록 하다.

6월 8일: 환자미의 출납을 철저히 다스리다.

8월 11일: 고려사를 수교 편찬 완료하다.

11월 15일: 본국의 지지(地志)와 주부군현의 고급 연혁을 편찬하게 하다.

11월 18일: 악기도감에서 악기를 제조하다.

1425년(세종 7년, 29세)

2월 24일: 악서를 찬집하게 하고, 악기와 악보법을 그리고 써서 책을 만들게 하다.

5월 13일: 서강 효령대군 별서의 이름을 희우정이라 짓다.

8월 26일: 경기 남양에 옥인(玉人)을 보내어 돌을 캐어 가지고 와서 석경을 고체제대로 만들어 시험하게 하다.

9월 25일: 평양에 단군사당을 별도로 세우게 하다.

12월 5일: 태조실록을 재필사하다.

1426년(세종 8년, 30세)

8월 15일: 춘추관에서 정종실록을 올리다.

12월 3일: 속육전과 등록을 편찬 완료하다.

12월 11일: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는 이를 뽑아 사가 독서하게 하다.

1427년(세종 9년, 31세)

5월 15일: 경기 남양에서 나는 돌로 1틀(12개)의 편경을 만들어 올리다.

9월 4일: 종학을 설치하게 하다.

9월 11일: 향약구급방을 간행하도록 하다.

1428년(세종 10년, 32세)

10월 3일: 효행록을 편찬하게 하다.

11월 29일: 육전과 등록을 편찬하다.

1429년(세종 11년, 33세)

5월 16일: 정초 등이 농사직설을 찬술하다.

1430년(세종 12년, 34세)

7월 5일 및 8월 10일: 공법(貢法)의 편의 여부를 각도의 수령과 인민들에게 물어 가부의 숫자를 파악하다(우리 나라 최초의 여론 조사)

9월 27일: 수차(水車)를 장려하다.

9월 29일: 주척(周尺)을 바로잡게 하고, 악보를 찬하게 하다.

10월 19일 및 25일: 공처 노비 산아 휴가에 대한 법을 정하다.

11월 21일: 사람의 등에 매질하는 편배를 법으로 금하다.

윤12월 1일: 아악보가 이룩되다.

1431년(세종 13년, 35세)

1월 12일: 대소신민의 가사제도(家舍制度)를 정하다.

3월 17일: 춘추관에서 태종실록 편찬을 완료하다.

4월 18일: 광화문이 이룩되다.

4월 25일: 태조, 정종, 태종실록을 충주사고에 봉안하다.

12월: 향약채취월령을 편찬하다.

1432년(세종 14년, 36세)

1월 19일: 맹사성 등이 신찬 팔도지리지를 편찬하다.

6월 9일: 설순 등이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다.

1433년(세종 15년, 37세)

1월 4일: 황희 등이 신찬 경제속육전을 올리니, 인쇄하게 하다.

4월: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 등이 파저강 야인 이민주를 토벌하다.

6월 1일: 자성군을 설치하게 하다.

6월 9일: 정초, 박연, 김진 등이 새로 만든 혼천의를 올리다.

6월 11일: 향약집성방을 편찬 완료하다.

8월 11일: 정초, 이천, 정인지, 김빈 등이 혼천의를 올리니 천체를 관측하게 하고, 이로부터 세종이 세자와 함께 매일 간의대에 이르러서 정초 등과 함께 혼천의의 제도를 의논해 정하다.

9월 12일: 민속가요를 채록시키다.

9월 16일: 장영실이 자격궁루(自擊宮瀾)를 만들다.

1434년(세종 16년, 38세)

2월 14일: 함길도 관찰사 김종서가 석막의 영복진 백안수소로 옮겨 배설하고, 이곳을 중심

으로 이 일대에 종성군을 설치하다. 이리하여 세종 31년(1449)까지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 등 6진을 모두 개척하다.

6월 26일: 자치통감훈의 편찬에 들어가다.

7월 2일: 이천 등이 조판 주조의 법을 개량하고, 새활자 갑인자를 만든다.

10월 2일: 처음으로 양부일구를 혜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다.

1435년(세종 17년, 39세)

9월 12일: 주자소를 경복궁 안에 옮겨 두다.

1436년(세종 18년, 40세)

10월 5일: 공법(貢法)을 제정하다.

12월: 납활자 병진자를 만든다.

1437년(세종 19년, 41세)

4월 15일: 주야 측후기인 일성정시의가 이룩되다.

9월 7일 - 16일: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 등이 파저강 아인을 정벌하다.

10월 20일: 경원성과 경흥성을 쌓다.

1438년(세종 20년, 42세)

1월 7일: 대호군 장영실이 건설한 흙경각이 이룩되다

11월: 신주무원록 음주가 이룩되다.

1439년(세종 21년, 43세)

7월 3일: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짓게 하다.

8월 6일: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공협진과 윤관의 구성터를 조사하게 하다.

1440년(세종 22년, 44세)

3월 8일: 성혼기를 정해서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하다.

5월 13일: 종루가 이룩되다.

7월 27일: 대소 신민 제사(第舍)의 제도를 한정하다.

1441년(세종 23년, 45세)

4월 29일: 세자가 비가 올 때, 구리를 부어 만든 그릇을 궁중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피인
문수를 시험 하다.

6월 28일: 정인지 등에게 치평요람을 편찬하게 하다.

8월 18일: 측우기를 제작 비치하고, 양수표를 세우다.

9월 29일: 명황계감이 이룩되다.

1442년(세종 24년, 46세)

5월 8일: 측우의 제를 상정하다.

8월 12일: 신개, 권제 등이 찬술한 고려사를 올리다.

9월 4일: 태조, 정종, 태종의 실록을 수개하게 하다.

1443년(세종 25년, 47세)

- 1월 7일: 성훈기를 재조정하다.
- 4월 17일: 세자(문종)에게 서무를 섭행시키다.
- 11월 13일: 전제상정소를 설치하다.
- 12월 30일: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다.

1444년(세종 26년, 48세)

- 2월 16일: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다.
- 10월 11일: 집현전에서 오례의주를 상정하게 하다.
- 11월 13일: 전제상정소에서 전분 6등, 연분 9등의 제도를 정하다.

1445년(세종 27년, 49세)

- 1월 7일: 신숙주, 성삼문, 손수산을 요동에 보내어 운서를 질문하여 오게 하다.
- 3월 30일: 화전, 화포를 개량하니, 천자화포, 지자화포, 황자화포, 가자화포, 세화포의 사정거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다.
- 3월 30일: 이달에 치평요람이 이루어지고, 제가역상집이 이루어졌으며, 또 칠성산내외편을 편찬하다.
- 4월 5일: 용비어천가 10권을 지어 올리니, 주해를 붙여 판에 새겨 발행하게 하다.
- 10월 28일: 의방유취가 이루어지다.
- 11월 21일: 태조, 정종, 태종 실록을 춘추관의 실록각, 충주 사고, 전주 사고, 성주 사고에 나누어 갈무리하게 하다.

1446년(세종 28년, 50세)

- 2월 29일: 이달에 환자 분급의 법을 상정 하다.
- 3월 24일: 왕비 소헌왕후가 수양대군 제택에서 승하하다.
- 7월 19일: 소헌왕후를 영릉에 장사하다.
- 9월 상한(양력 10월9일): 훈민정음을 반포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루어지다.
- 9월 27일: 새 영조척으로 곡, 두, 승, 흡의 체제를 정하다.
- 10월 11일: 고려사를 다시 교정하게 하다.
- 11월 8일: 언문청을 설치하다.
- 12월 26일: 이과와 이전 취재 때에는 훈민정음도 아울러 시취하게 하다.

1447년(세종 29년, 51세)

- 2월: 용비어천가의 주해가 완성되어 간행하다.
- 6월 5일: 치화평, 취풍형, 여민락 등의 악보를 이룩하다.
- 7월 25일: 석보상절이 이루어져 간행되고, 월인천강지곡이 이루어지다.
- 8월 30일: 새로 승례문을 짓게 하다.
- 9월 29일: 이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다.
- 11월: 신숙주가 사성통고를 편찬하다.

1448년(세종 30년, 52세)

3월 28일: 집현전에서 언문으로 사서를 번역하게 하다.

7월 17일: 문소전 서북의 공지에 불당을 짓게 하다.

10월 17일: 동국정운이 간행되어 반사하다.

1449년(세종 31년, 53세)

1월 4일: 전찬(前撰)한 고려사를 다시 수교하게 하다.

1월 28일: 고려사의 보수를 춘추관에서 하도록 하고, 김종서, 정인지, 이선제, 정창손에게 이를 감장하게 하다. 사리영응기를 간행하다.

1450년(세종 32년, 54세)

2월 17일(양력 4월 8일): 세종대왕이 영응 대군 사저의 동쪽 별궁에서 승하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6월 12일: 소헌왕후 심씨가 안장된 영릉 서실에 합장하다.

1451년(문종 1년)

8월 25일: 지춘추관사 김종서 등이 고려사를 새로 편찬 완료하다.

1452년(문종 2년)

2월 20일: 세종대왕의 신도비를 영릉에 세웠으니, 공조판서 정인지가 비문을 짓고, 안평대군 용이 전액을 썼다. 지금은 발굴하여 세종대왕 기념관 앞뜰에 있다.

2월 22일: 세종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다.

1452년(단종 즉위년)

11월 28일: 고려사를 인쇄하게 하다.

1454년(단종 2년)

3월 30일: 춘추관에서 세종장헌대왕실록을 편찬 완료하다.

1455년(단종 3년)

2월: 홍무정운역훈을 간행하다.

1469년(예종 1년)

3월 6일: 영릉을 여흥부치(지금의 여주)의 북쪽 성산의 남향한 언덕에 천안하다.

여주의 명소를 찾아

석 봉 도 자 기 미 술 관
목 아 불 교 박 물 관

편 집 실

석봉 도자기 미술관



꿈속에 그린 모습 진흙으로 빚었어라.
 발가벗은 알몸일랑 불길속에 던져놓고
 미인이 되어 환생하길 두손모아 축수한다.
 탄생의 숭고함을 누리서 모르라만
 땀범벅 젖은 옷에 긴긴시간 잠재우고
 언젠가는 소스라쳐 함께 태워버릴 꿈을 꾸다.
 너와 한몸이라는 것을 느낀다.



설립자 도예가 조 무 호

韓國하면 高麗靑磁를 떠올릴 정도로
 우리는 찬란했던 陶磁器 歷史를 지닌
 문화민족의 후예들입니다.
 그 찬란했던 도예문화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짓밟히어 동강나고 말았으니
 오늘에 사는 우리는 그 단절된 문화를 이어
 더욱 꽃피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현대사에 맞는 세계적인 도예문화를
 재창조 하는데 있다 하겠으며,

21세기 도예문화는 실험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문화의 고장,
 여주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며
 그 동안 빚어 온 작품과
 세계 각국의 陶藝作家 作品을 한곳에 모아
 관람과 체험의 장소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 많지만 어린이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도예 후학들에게는
 실습장으로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관람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陶磁器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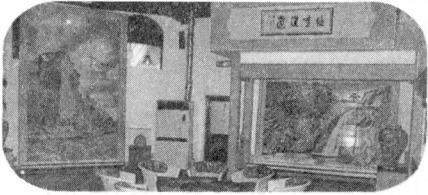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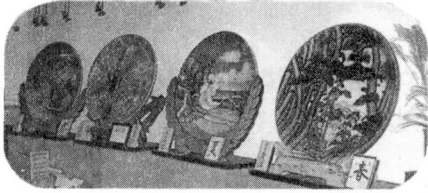
大皿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歷史속에서 새로운 文化
 가 창조되고 또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陶
 藝라 볼적에, 본 大皿도 그 윤회과정에서 一部
 를 감당할 수 있는 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년의 세월속에서 그 형태와
 색감등의 변질이 없는 고려청자에서, 크게 감
 동을 받아 그 무엇인가 실험적인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춘, 하, 추, 동 사계절을 명석만한
 접시에 담아 남기니 완성된 성취감에 피로가
 물러갑니다.

제1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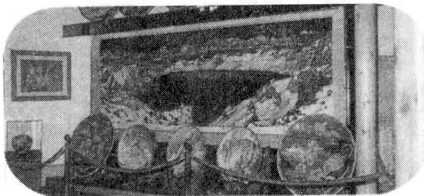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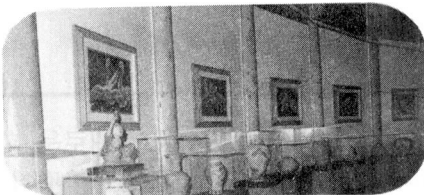
여러점의 大皿이
 展示되어 있으며

자기로 만든 큰 접시를 뜻하는 大皿은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값지고 희귀한 作品입니다.



제2전시관

여러장의 陶版위에
自然 그대로의 豊景을
정밀하게 재현해낸 陶壁은
傳統陶藝 技法과
現代文明과의
接木으로 이루어낸
선생의 끊임없는
도예사랑의 산물입니다.



陶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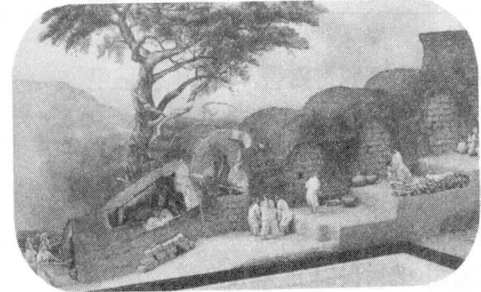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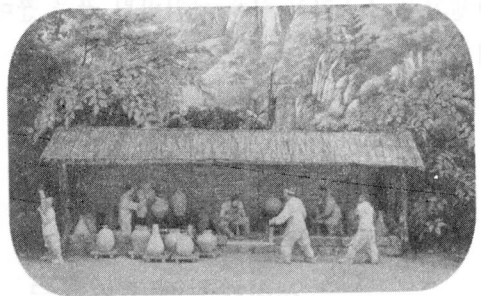
도토를 사각판으로 성형 구성하여 1,300℃
고열에서 구워낸 큰 도자기벽 작품을 말한다.
본 작품은 도지가관에 회화적 기법을 접목시킨

창조적인 作品으로 평가되며, 석봉 도자기 미
술관의 자랑이자 도예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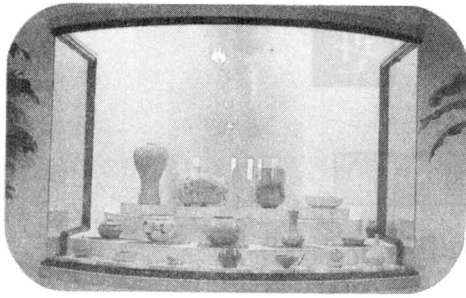
모형관

도자기에 대한 지식을 제토과정에서 부터 성
형, 장식, 시유, 소성과정에 이르기 까지 도자기



인형을 이용,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한국 도자기의 역사와 민속문화 및 제조과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모형관의 한쪽에 전시된 고대자기 전시장은
옛 조상들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도자기에 대한 역사와 그
우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석봉 도자기 미술관은 대중문화 진흥을 위해 연2회 도예캠프를 개최 분기별로는 도예문화강좌 등을 개최하여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 느끼고 체험하는 미술관입니다.

국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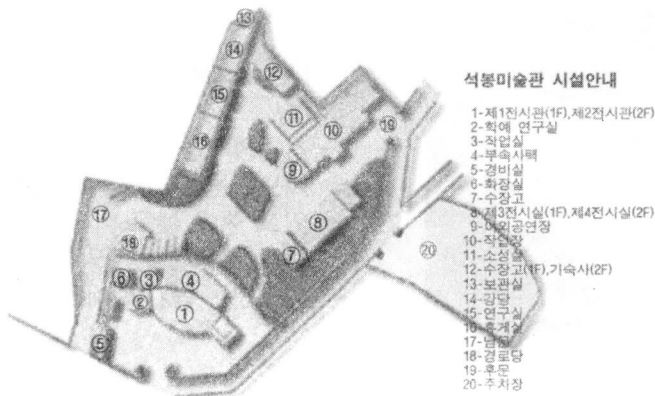
유명한 국내작가들의 의욕적인 작품은 물론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진귀한 도자기를 모아 전시해 놓아 여러가지의 도자기 제조방식 및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한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면 웅장한 한옥식 전시관 외부 2층 전면에 도자기판으로 만든 도벽화(150×275cm) 7점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전시관 내부 1,2층에 마련된 도판화 및 도벽화 그리고 대명(도자기 접시)은 그 크기나 작품의 깊이에 있어서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으며, 한편에는 석봉 선생이 그간 모아둔 200여점의 선생의 청, 백자작품들이 선보인다. 또한 별관에 마련된 모형관은 도자기 인형을 이용, 도자기 제작에 관하여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별관 2층에 마련된 국제관은 국내외 도예작가들의 의욕적인 작품들이 선보인다.

그외 미술관 사업으로는 연2회 개최하는 도예캠프 및 분기별로 개최하는 도예문화 강좌를 열어 대중의 문화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선생의 아들인 조원혁교수가 몸담고 있는 여주전문대학 도예과와 자매결연을 맺어 방학중 학생들의 실습현장으로 이용, 학점을 이수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단순히 보여주는 공간으로만 활용되었던 미술관이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장소로 바뀐 석봉도자기 미술관은 방문객들에게나 미술애호가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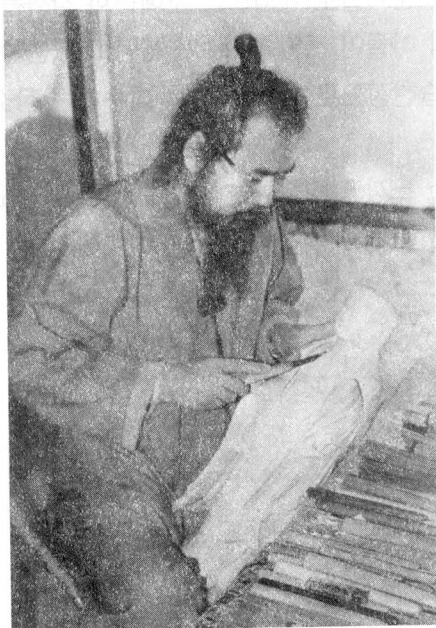


불심의 새싹을 틔우는 곳 장인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

설립자 목아 박찬수

목아 박찬수선생은 불교목공예가로 1986년 아시안게임기념 불교미술기획전에서 종합대상인 종정상을 받고 1989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법상을 출품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불교미술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70년대와 80년대 공예산업을 선도하기도 했던 목아선생은 그 수익금을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박물관을 설립하였으며, <불교목공예> <수미단> 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불교목공예를 쉽게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불교 목공예의 맥을 잇는 작업을 인정받아 지난 96년 12월 무형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받았다.



전시실 안내

● 지하(명부전/영상실)

지하실에는 영상실과 명부전이 갖추어져 있다. 영상실에는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20분 짜리 영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가 수시로 상영되고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명부사왕이 봉안되어 있다.

● 1층(기획전시실/공예품판매장)

1층은 전시실과 매장으로 구분된다. 전시공간에서는 다양한 불상 불화 유물과 함께 동자상을 비롯한 목아선생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매장은 불교공예품과 전통공예품들을 전시 판매한다.

● 2층(나한전/공구전시실)

2층에는 공구실과 나한전이 마련되어 있다. 나한전은 목아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500나한이 모여져 있으며, 공구실은 목공예에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볼 수 있고, 그외 절에서 쓰였던 여러 유물이나 불교관련 목공예품들을 함께 볼 수 있다.

● 3층(불교조각상실)

3층에는 불교조각상실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상과 사천왕·인왕·십이지 등의 호법신장들이 함께 전시되어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신(神)들의 이름과 모습을 익히기에 좋은 교육장이 되고 있다.

야외 조각공원

야외에는 미륵삼존대불, 백의관음, 삼층석탑, 자모관음보살, 비로자나불좌상 등이 전시되어 있고 현대 불교 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현대미술과 전통미술이 교차하는 공간을 이루고 있다.



▲ 야외조각공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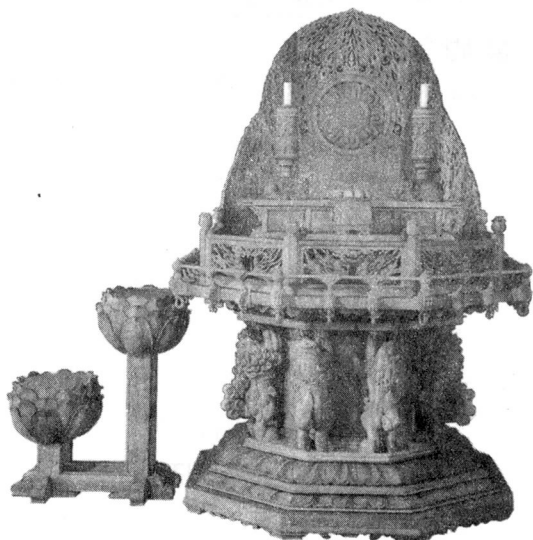


목아박물관 연혁

목아 불교박물관은 무형문화재 제108호(목조각장)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수집한 6,000여 점의 불교관계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전문 박물관이다. 1989년에 시작하여 1990년 4월 본관전시실이 완공되면서 전통공예관이로 출발하였다. 이후 부속건물들을 건립하여 1992년 12월 국가 제28호로 박물관 지정을 받아 1993년 6월12일 성대한 개관식을 가졌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전시관에는 불화, 불상등의 유물과 함께 동자상을 비롯한 불교관계 목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야외조각공원에는 미륵삼존대불, 비로자나불, 삼층석탑, 백의관음, 자모관음상 등이 조화롭게 자리잡았다.

본 관소장의 「예념미타도량참법」 「묘법연화경」 「정원본 대방광불화엄경」은 각각 보물 제1144호, 1145호, 114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밖에도 불교사찰에서 전해 오던 많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어 매년 기획전과 특별전을 통해 유물들을 공개하여 불교문화와 미술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역할에 힘쓰고 있다.



▲ 법상-1989년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 동자상

불교전통문화강좌 개설

박물관의 '불교전통문화강좌'는 문화체육부로 부터 지역 문화학교로 지정받아 운영되는 지역 문화교육의 장입니다.

일반인들의 문화적인 안목과 지식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학교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우수문화학교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일반인들의 문화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박물관 학예실에서는 이밖에도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박물관 부대시설 안내

방생법회장

100여평의 실내 방생법회장이 박물관주차장에 서 근거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면 방생할 물고기를 준비해 드립니다.

전통음식점/전통찻집

전통음식점에서는 한식과 선식을 조화시킨 여러 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통찻집에서는 대추차·생강차·솔잎차 등 우리 차를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여주특산도자기/기념품판매장

여주의 특산품인 각종 도자기와 불교용품, 방문기념품 등을 전시·판매합니다. 다량일 경

우 주문판매와 배달도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개방

박물관 중앙잔디밭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과 기구들은 알선해 드립니다.

소반정사/해와달의 집 운영

주차장 윗편의 소반정사는 숙식시설과 법당(해와달의 집)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의 M/T나 답사에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박물관 후원회 모집

박물관 후원회는 박물관 설립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불교 미술 및 전통공예의 전승과 불교문화의 대중화, 활성화를 위한 전체 박물관 활동을 함께 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분들을 모십니다.

●회원구성

학생회원 (년2만원), 일반회원 (년3만원)

가족회원 (년10만원), 정회원 (50만원)

특별회원 (100만원)

●회원에게 드리는 특전

박물관 무료입장

박물관 주최 세미나, 기획전 초대

박물관 카렌다, 호신불 우송(정회원, 특별회원)



향토사료관 유물소개

경자자본 문장정종 (庚子字本文章正宗)

정유자본어정두륙천선 (丁酉字本御定杜陸千選)

교 지 (教 旨)

과 지 (科 紙)

홀 (笏)

무문백자소주병 (無紋白磁小酒瓶)

책 장

침 상 (寢 床)



향토사료관전경

경자자 본 문장정종(庚子字本文章正宗)

편집실



경자자본문장정종

1420(세종20)년에 금속활자를 만들어 인쇄한 책으로 조선조에 들어와서 1403년(태종3)에 만든 계미(癸未)자 다음으로 두번째 만들어진 활자 인쇄본이다. 이 경자자를 만들어 인쇄된 책은 문장정종, 자치통감 강목의 10여종의 책이 인쇄되었는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극히 희소하다 더구나 이책은 맨 첫면에 보면 사육신중에 한 분인 이개(李塏)가 생존시에 소장하고 공부하던 책으로 그의 도장이 「한산세가」(韓山世家) 자고(子高) 이개(李塏)라는 3가지 인기(印記)가 찍혀 있어 더욱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인기(印記)의 뜻은 한산세가는 한산이씨가에 세전(世傳) 되는 책이란 뜻이고 자고(子高)는 그의 자가 백고(伯高), 자고(子高), 청보(淸甫)인데 그중에 하나 자고(子高)란 도장이고 이개(李塏)는 자신의 성명이다. 이와 같이 옛부터 책 주인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두고 소장한것을 손때가 묻은 것이라 하여 수택본(手澤本)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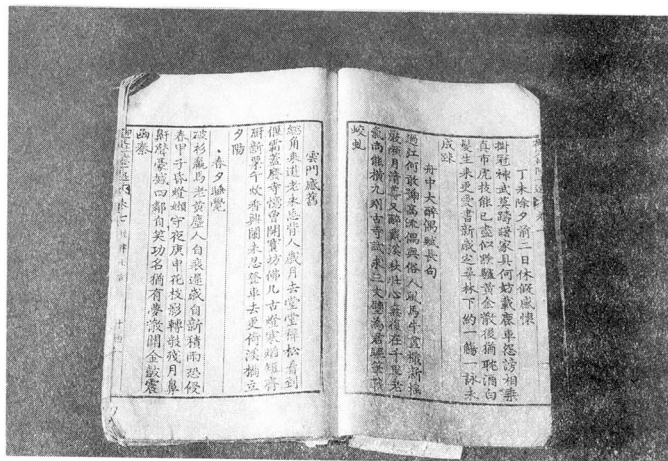
경자자(庚子字)는 대자(大字)와 소자(小字)가 있는데 이책은 대자와 소자를 병용하였으며 대자는 11행(줄) 21자의 규격이고 소자는 22행 21자의 규격으로 조판하고 반곽단선(半郭單線) 상하어미(上下魚尾) 상하 대흑구(上下大黑口)로 조판되었으며 지질(紙質)은 저지(楮紙=닥종이) 장지(두텁게 뜯종이)다.

정유자본 어정 두륙천선(丁酉字本 御定 杜陸千選)

정조대왕 정유년(1777)에 만든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1799년에 인쇄된 책 정유자(丁酉字)=1777년에 정조대왕이 전 평안도 관찰사 서명응(徐命膺)에게 명하여 기영(箕營)에서 만든 활자로 이미 세종16년(1434)에 만들어진 갑인자(甲寅字)를 자모로하여 15만자를 주조하였다. 어정두륙천선(御定杜陸千選)은 정조대왕이 편집한 시집(詩集)으로 8권 4책이다.

10행(줄) 18자로 배열 조판하고 4주단변(四周單邊)이며 판심(版心)은 상화문어미(上花紋魚尾)다.

권말(卷末)에 편집 인쇄한 사실의 기록이 있어 금속활자의 주조와 인쇄과정에 대한 조선 중기의 서지학 연구에 자료가 된다.



정유자본 두륙천선

교 지 (教 旨)

教 旨

淑夫人李氏爲貞夫人者

庚熙二十四年十月 日

折衝將軍守慶尚右道兵馬節

度使李基夏妻依大典併夫職

교지는 조선시대 임금의 신하에게 내리는 사령장으로 종래에는 왕지(王旨)라고 쓰다가 1425(세종7)년에 개칭된 것이다. 교지에 찍힌 어보(御寶)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고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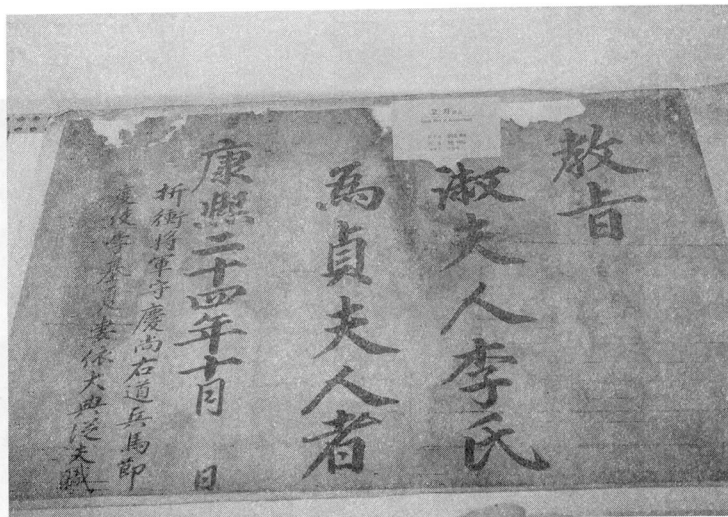
내용: 숙부인(남편의 직위가 삼품 담상관 통정대부)

이씨를 정부인(남편의 직위가 二品일 경우)으로 한다.

강희24년(숙종11년 1685년) 10월 일

절충장군 경상도우도 병마절도사 이기하의 아내로

법전에 의하여 남편의 직급에 따라 올려줌



교지(이기하처)

교 지(教 旨)

李浣爲資憲大夫漢城府判尹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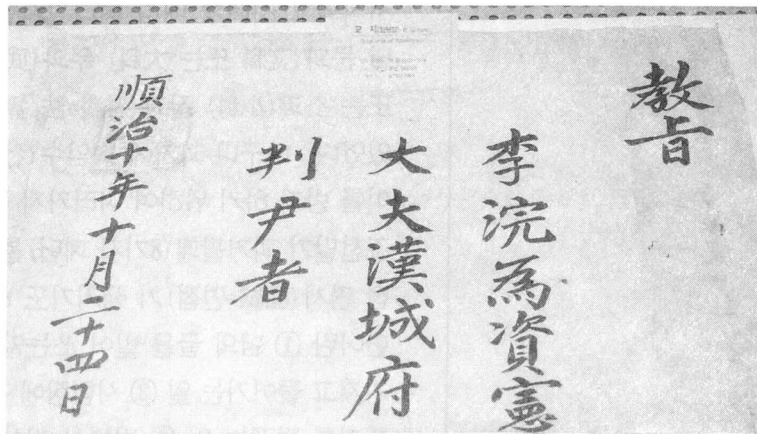
順治十年 十月 二十四日

교지 (전자 참고)

이완을 자헌대부(資憲大夫 = 종2품)

한성부 관윤으로 한다.

순치10년 (1653년 효종4) 10월 24일



교지(이완)

과 지(科 紙)

옛날 왕조(王朝)시대에 시험 답안지다. 시권(試卷)이라고도 한다. 맨 오른쪽에 잔글씨로 응시자의 성명·생년, 그아버지의 직함·성명, 할아버지의 직함·성명, 외조부의 직함·성명을 표시하여 그 출신 가문을 명시하므로 동명 이인일 경우를 방지하고 가문을 알게 하였으며, 「문운(問云)」이라고 한것은 출제(시험문제)는 같은 과장에서는 동일하게 방을 붙였으므로 문제는 기재를 생략하는 「문제에 이르기」라고만 기재 한 것이다. 그 다음 부터는 문제에 의한 답안을 쓰게 된것이고 붉은 글씨로 차상(次上)이라고 쓴것은 채점결과다.

과거는 신라 원성왕4(788)년에 독서 출신과로 부터 시작되어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천 해왔다. 훗날 문과(文科 또는 大科) 무과(武科) 생진과(生進科 또는 소과(小科) 잡과(雜科=法, 算, 醫, 書, 地理 등)가 있었다. 더구나 과거에 속임수(컨닝)의 폐단이 많아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종말 조선말기 과거팔폐(8가지 폐단)를 없애기 위하여 직접 면시(面試=면접)가 생기기도 하였다. 과거의 8폐단이란 ① 남의 글을 빌어 쓰는일 ② 책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일 ③ 시험장에 관계외인 출입 ④ 시험지를 바꾸는 일 ⑤ 밖에서 써서 드려보내는 일 ⑥ 시험문제를 미리 알아내는 일 ⑦ 시험관계 종사자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일 ⑧ 답안지를 고쳐주는 등 농간을 부리는 일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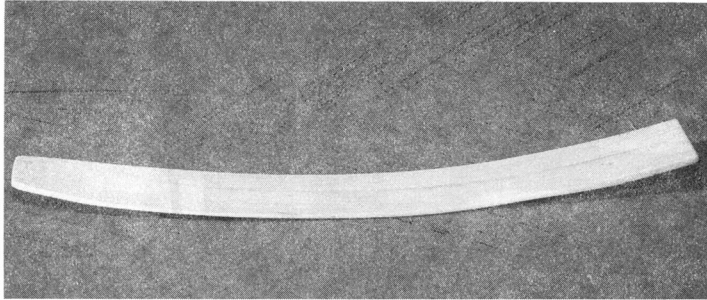
처음에는 매년 시험을 치르다가 조선태조 2년(1393)부터 자(子) 오(午) 묘(卯) 유(酉)년 즉 12년 동안에 4번을 치르고 그사이 증원의 필요가 있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때등 증광과(增廣科)라고 하여 식년이의에도 시행했다.



과 지

홀 (笏)

조선 시대 관리가 임금을 알현할 때나 국가의 행사 또는 문묘 기타 의식때 조복(朝服), 제복(祭服), 공복(公服)을 입을때 두손으로 쥐는 의포(儀票)로 넓이는 6cm정도, 길이는 30cm정도다. 정 1품부터 4품까지는 상아홀 그 이하는 목홀(木笏)을 사용 하였다. 향리는 공복(公服)에만 목홀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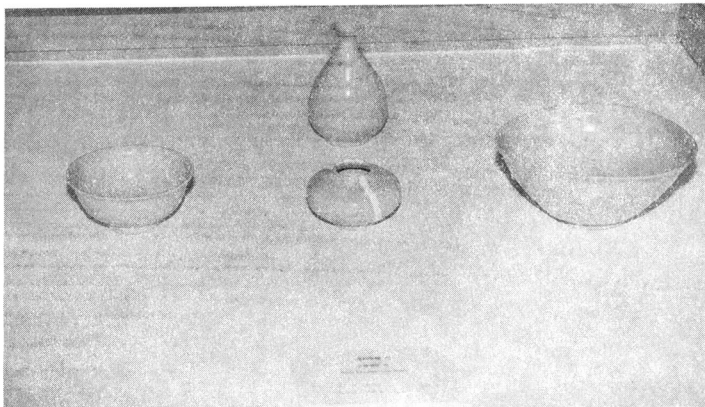


상 아 홀

무문백자소주병(無紋白磁小酒瓶)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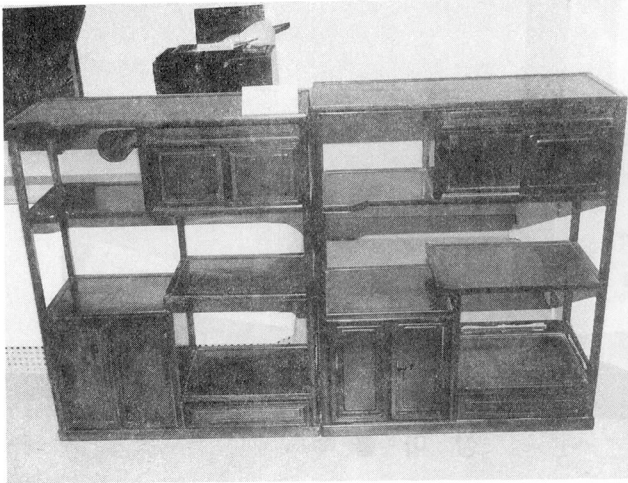
- ① 작은주병 ② 필사리(붓을 푸는 그릇) ③ 탕기 ④ 대접
가남면 심석리에서 출토된 것임.



무 문 백 자 소 주 병

책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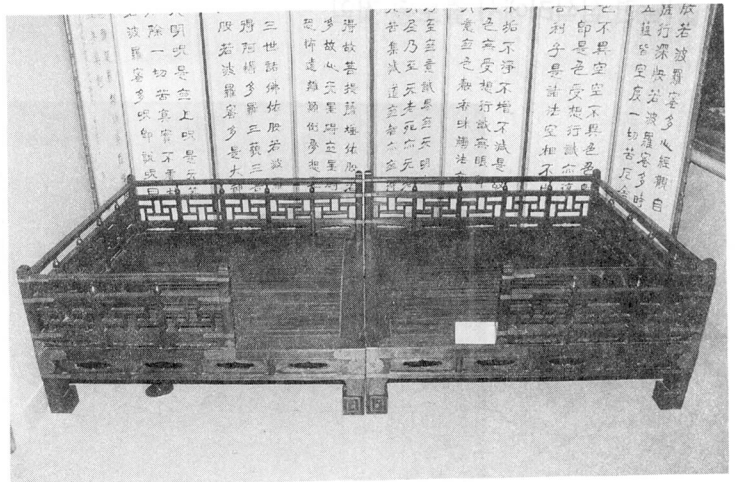
조선 시대 책을 올려 놓고 밑으로는 중요한 문서를 넣도록 제작되었다. 기둥과 판을 괴목(槐木=느티나무)과 배나무를 섞어서 만들어진 2개 한쌍이다.



책장 1쌍

침 상 (寢 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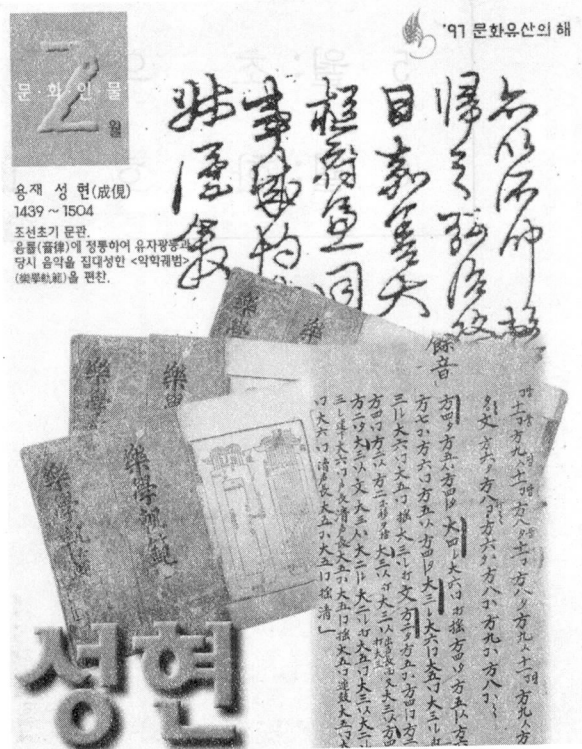
침상은 잠잘때 사용되던 가구(침대)로 전체를 1개로 또는 2짝으로 3짝, 만드는데 이것은 두짝을 합쳐 사용하던 것으로 가에는 난간을 만들고 바닥은 좁은 판을 수십개로 깔아 부착 시킨 것이다.



침 상

문화부가 선정한 97년 문화인물

1 월: 송 석 하	7 월: 이 세 보
2 월: 성 현	8 월: 박 제 가
3 월: 최 윤 덕	9 월: 박 진
4 월: 이 중 환	10 월: 장 지 영
5 월: 초 의	11 월: 왕 인
6 월: 한 호	12 월: 송 진 우





'91 문화유산의 해

임곡 최윤덕(崔潤德)
1376 ~ 1445
조선초기 무신.
아종무와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였고,
함길도를 침입한 어진 이만후를 대파.

公生
日收
究之
浦水
分左
國朝
名臣
錄



최윤덕



'91 문화유산의 해

청담 이종환(李鍾煥)
1690 ~ 1756
조선후기 대지리학자.
30년간 우매의 항랑생활을 하면서
지리, 사회, 경제를 연구.
저서: 백리지



백리지
이종환의 지리서
이종환은 우매에서 백리지라는 필명을 쓰며 지리, 사회, 경제를 연구하였다. 그의 저서인 백리지에는 조선 후기의 지리, 사회, 경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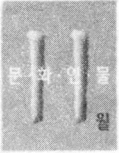
이종환







'97 문화유산의 해



왕인 (王仁)

연도 미상

4세기, 백제 근초고왕때 학자.
일본 오진왕의 요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유학과 인문을 전파하고 한국문화의 전입.

美新美成道和祥焉此後
志意最忠介初被意深達
寺門時以而後又振揚
后是過改教曰名爲新



왕인

王仁 王仁 王仁 王仁 王仁 王仁 王仁 王仁 王仁 王仁

'97 문화유산의 해



고하 송진우 (宋鎭禹)

1890 ~ 1945

언론인, 정치인, 교육가.
일제하 이종무장 유적보존운동을 일으켜
아산 현충사 동측, 만보산 사건 진상폭로 등
독립운동에 헌신함.

저 뜻을 모르고
조국 나라와
하고 일하고
남강 선생은
다 이 희로운
에 새김새
하 감을 과 회로
하 소녀 하
어 드린
故主降一凡



송진우

自然과 壽石



여주수석인 연합회장 김 정 식

文化遺蹟地가 많은 문향의 고장 驪州는 남한강의 中心地로 壽石의 產地가 전국에서 제일 좋고 많은 곳이다. 산지로는 이포, 대신 사격장, 내양리, 왕터, 양섬, 신흥사 앞, 금모래벌, 강천리, 삼합리 등이 있다. 그래서 전국에 수석동호인들은 驪州 南漢江을 壽石의 聖地라고도 많은 愛石人들은 말하고 있다. 全國에 愛石人들은 여주 南漢江들을 좋아하며 한두점 이상을 다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全國 各地域 壽石展에 어디를 가보아도 여주 南漢江 수석은 몇점씩 出品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한강에서 나오는 壽石은 오석과 초코석 紋樣石의 다양한 壽石이 많이 나온다. 色에 質은 윤기가 많이나며 강도가 아주 높고 좋다. 이런 色과 강도가 좋은 돌에서 산수경석 이나 物形과 紋樣石은 一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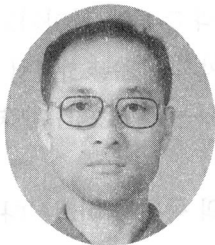
千態萬象에 자태를 뽐내고 있는 大自然이 우리에게 준 축소판의 小自然을 家庭 안에서 大自然을 연상하며 말없는 太古의 創造物인 돌과 無言에 對話는 끝이 없는 連續이며 우리 壽石人 들에 마음을 사로잡는다. 壽石은 물과 바람 海石은 파도와 모래와 그리고 햇살을 받아 數億年에 歲月속에서 깎이고 달아서 한점의 壽石이 誕生 되는 것이다. 돌처럼 강인함과 변치않고 묵묵히 악천우를 견디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必要한 敎訓이 되는가 壽石은 人工이 가미되지 않고 自然狀態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藝術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自然의 섭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한 壽石人이 될수가 없을 것이다. 꽃이 아름답지만 10일을 넘길수 없다고 했다. 국화꽃 향기롭기만 10일 以上 持續될 수 없다. 花紋石에 아름다운 꽃은 永遠 할 것이다. 數億年이 지나도 변치않는 그 아름다운 돌꽃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향기는 永遠 하며 그 아름답고 오묘한 各種의 돌꽃은 自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創造物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大自然을 사랑한다. 높은 山이나 우거진 숲속 大自然의 호수나 강과 바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아름다운 꽃을 좋아한다. 나는 永遠히 지지않는 돌꽃속에서 살고있다. 太陽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해바리꽃 그래서 太陽을 象徵하는 꽃이다. 收穫의 季節 상징하는 가을 국화꽃은 아름답고 향기롭다. 그외 카네이션 꽃, 장미꽃, 목단꽃, 벚꽃, 매화꽃 여러가지 돌꽃속에서 매일같이 꽃과 더불어 그리고 千態萬象에 축소판인 大自然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나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층 石室에 올라가 돌꽃속에서 마음의 향기를 吟味하면서 또 大自然과 無言에 對話도 나누면서 나의 남은 餘生을 만끽하고 있다. 驪州에서는 壽石文化 趣味生活 하기가 전국에서 가장 條件이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주에서 더 많은 愛石人이 驪州文化 發展은 물론 驪州壽石 發展의 동참을 바라본다.



展示會 을 마 치 며



동구서숙 원장 전 기 중

때로는 연례행사 처럼 때로는 큰마음을 먹고 치루었던 우리의 會員展이 벌써 六回라니 나도 놀랍고 대견스럽다.

기획 단계에서 세종탄신 六百周年이라는 대명제 아래 일단 한글로만 작품을 이루어 보기로 하고 분주히 글감을 찾아서 각자에게 제법 그럴싸한 글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중에서도 一農이 6폭 병풍으로 쓴 옛농요인 기음노래는 자신의 농경생활과 일치하였고, 靜林은 부모은중경을 열두폭 병풍에 가득채워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였다.

魯丁의 비나리 열폭 병풍은 끝부분에 가서 우리 여주의 지리와 역사와 풍광을 노래하고, 군민의 안녕을 비는 역작이었으며, 호은의 류시화시를 쓴 액자는 그림의 立體的 바탕위에 자유스러운 운필과 결구를 선보여 일반관객과 전문가들로 부터 동시에 찬사를 받은 秀作이었다. 誠峰과 반릉의 옛목판체로 쓴 글은 古拙함이 베어 나왔고, 友月 女史와 아은의 가리개 작품은 본문의 글 내용과 치마부분에 들어간 그림이 잘 조화를 이루어 연서의 연륜보다 한결 노숙해 보였다. 芳村은 총무 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실한 필획으로 서력이 쌓인 원숙미를 과시하였다.

우리지방에서 열리는 유일한 서예전시회라서 그런건지 고위공직자나 단체장, 지역유지분들의 作品감상 태도는 구태의연하여(서예를 감상하지



는지 액자자체를 감정하시는 건지?) 언급할 가치도 없고 오히려 장소가 도자기축제 주행사장과 이웃하다 보니 수준 있는 外地人들의 來訪으로 그 허전함을 메울수 있었으니 어떤이는 作者와의 대화를 원하기도 했고, 구매의사를 타진하는 이도 있었고, 하나하나 적어가며 두시간이상 머무르는 사람도 있었다. 여흥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체관람도 인상 깊었으며, 유례에 없는 外國人의 관람도 있었다.

展示會와 同時에 전개한 家訓씨주기 行事는 많은 外地人들의 호응과 성원으로 성황을 이루어, 9월의 興川面民의 날 행사와, 10월의 예능협회행사에 불러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용기를 내어 개인적으로 기백만원씩 들여서 준비했던 이번 전시회의 미비했던점과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여 內賣과 外華를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늦가을에 실시한 李浣將軍墓碑 탁본행사는 행사에 치우쳐 실기습득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금년에는 지역 금석문 탁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나라경제가 흔들리는 속에 지난 1월 실시한 철야행군은 각자의 정신력을 새롭게 하고 회원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일조 했다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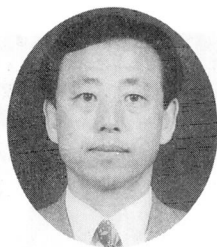
끝으로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항상 문예의 본향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올해도 지나온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회원들의 분발을 재촉해 본다.

아울러 우리 여주를 지키며 활동하고 계신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과 그 가족들도 열악한 지역의 창작환경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서로 다독이며 격려하여 세종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여주에서 활동했던 우리들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확인 해 줄수있는 그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모아 사진연구회 발전계획

회 장 조 두 현



그 어느때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을 보내고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늦게나마 새해인사 드립니다.

사진이 발명된 것은 1893. 1. 7 프랑스화가 다게레오(Daguerre)가 은판 사진법을 발명하고 Arago라는 사람에 의하여 프랑스 과학원에서 1893. 8. 19 공표함으로서 이날을 사진발명의 날로 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시대에 Comera Obscura(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 暗箱子를 뜻함)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고, 1826년 Niepce라는 사람이 영화은을 발라서 자기집 정원을 8시간동안 노출하여 촬영한 작품인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작품입니다. 그후 1853년 영국에서 사진협회가 창립되고, 1857년 영국의 레즐렌더라는 작가가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1861년 필름이 등장하였고, 1933년 칼라필름이 발명되었습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이제는 8,000분지 1초까지 빠른속도로 촬영하는 카메라가 개발되어있고, 암흑같은 밤을 낮처럼 촬영할수도 있으며, 필름없이 영상을 기억시켰다가 컴퓨터를 통하여 재생함은 물론 색, 형태 등을 변경하거나 변형시킬수도 있는등 첨단과학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기는 물론 의학, 과학, 우주과학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배출되는 사진학과 출신이 매년 2천여명에 이르고, 취미로 활동하는 씨클회원, 전문적인 작가, 직업사진인등 1백만명이 넘고 있으며, 한국예총산하 한국 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된 사진예술인이 4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어느 예술단체 보다도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추어 취미씨클이 많은것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술행위는 결국은 관객이 있을 때 성공하는 것이며, 관객은 곧 모든 국민들이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인류의 공통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분야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수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사진은 감상에 있어 어려움이 없고 부담이 없어 국민과 친숙한 예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술인들 사이에서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말로 무시해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근들어 사진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예술로서 크게 자리메김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자치단체, 기업등에서의 지원이 매우 적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각박한 사회에서 그나마 예술활동마저 미약하다면 사람이 사는 사회는 일하고 먹고 잠자고 생리

적인 작용만하는 동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진예술의 국가 기여도와 앞으로 사진예술의 역할을 감안하여, 금년을 “사진영상의 해”로 선포하여 정부적 지원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산하 각단체별로 다양한 행사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빛모아 사진연구회에서도 정기회원전의 2-3개 사업을 계획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러한 사업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 빛모아 사진연구회 연혁

- 1989. 12. 4 군청내 사진에 관심있는 공무원 9명으로 시작하여
- 1991년 첫 전시회 개최후 지난해까지 7회의 정기 회원전과 1회의 합동전, 경기동부지역 합동전 2회등 8회의 전시회 개최와 2회의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회원은 20명이고,
- 그동안 꾸준한 연구와 각종 세미나, 강좌 등에 참여하는등 빛모아 사진연구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상호간의 노력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2명, 전국영상인연합 회원3명, 월간사진 및 영상지 초대, 추천, 추대 작가 7명이 탄생되었습니다.

■ 지난해 성과

- 매년5월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과 도자기 축제에 맞추어 개최하는 회원전에 경기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순수 자부담으로 일곱번째 회원전을 무사히 마쳤고,
- 매월1회 회원촬영회를 실시하면서 우수작을 선정, 사진등용문인 전국공모전에 회원 8명이 15회의 입상을 하였으며,
- 강종희 회원은 96년에 이어 2년 연속 산사진 공모전 “동상”을 차지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금년도 계획

(확정된 사업)

1. 정기회원전

- 기간: 5월 16일 - 5월 18일 (3일간)
- 장소: 군민회관
- 주제: 우리나라 야생화(여주의 들, 강가, 산, 설악산등 주요산의 희귀 야생화를 군민에게 보여줌으로서 자연생태계의 보존에 관심을 갖게하기 위함)
- 규격: 16×20인치 40점
- 소요액: 4,000천원

2. 정기출사 - 월1회

3. 여성 취미교양 강좌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청회의실에서 6주동안 사진강좌를 실시할 예정임.

(예산 미확보 사업)

○ 그때를 아십니까? 사진전

□ IMF 경제시대를 적합한 70년대 새마을사업 사진

(초가집, 공병수집, 절미저축, 마을안길 포장, 마을전경, 여주시가지 모습 …… 등)

□ 소요사업비 - 5,000천원 (지원 3,500, 자부담 1,500)

⇒ 지원금 없어 추진지난

※ 단체나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 앞으로 발전계획

○ 빛모아 10년 작품집 제작

2000년 5월에 빛모아 사진연구회 10년간의 작품을 모아 이를 선보일 계획임.

○ 모든 회원의 전문작가화

현재 20명중 전문작가로 등록할 사람은 2명뿐이나, 향후 모든 회원이 전문작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군민의 취미활동 지원 및 지도

여성 취미교양강좌, 등을 통하여 사진취미 인구를 확대해 나감.

(후원단체, 기업…모집)

○ 빛모아 사진연구회를 후원해주실 단체나 기업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되시면 사보 및 정기간행물의 표지사진등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며,

○ 홍보책자, 연하장, 팸프렛... 등 제작에 필요하신 사진촬영 비용을 최저가격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회원 추가모집)

사진예술에 관심있는 분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본회에 가입후 회원간 사랑으로 친목을 우선하고 사진예술에 심취하여야만 합니다. 열의가 있다면 1년이내에 전국단위 공모전에 입상할 수 있으며, 입상후 4년간 열심히 노력하면 사진작가로 등용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시는 10만군민들께서 앞으로 사진예술에 대한 많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을 끝맺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경기도 학생 백일장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명단

◆ 시 부문

구 분	이 름	성별	학 교	학년/반
도지사상 (대상)	윤 영 선	여	수 원 정 자 초 등 학 교	6-6
	손 승 화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3-2
	곽 은 경	여	여 주 고 등 학 교	1-6
도의회의장상 (금상)	차 재 영	여	여 주 초 등 학 교	5-6
	장 선 미	여	흥 천 중 학 교	3-1
	심 효 선	여	창 명 여 자 고 등 학 교	2-춘
여주군수상 (은상)	백 선 영	여	수 원 매 원 초 등 학 교	6-2
	강 소 영	여	장 호 원 고 등 학 교	3-3
	이 선 진	여	광 주 동 중 학 교	2-1
	이 선 아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1-2
	박 명 균	여	창 명 여 자 고 등 학 교	1-춘
	이 민 정	여	여 주 고 등 학 교	1-6
군의회의장상 (동상)	양 혜 진	여	수 원 정 자 고 등 학 교	5-4
	이 가 람	여	대 신 초 등 학 교	6-1
	김 희 연	여	용 인 초 등 학 교	5-3
	홍 남 희	여	창 명 여 자 중 학 교	2-난
	경 현 주	여	흥 천 중 학 교	3-1
	임 지 혜	여	이 포 중 학 교	2-1
	염 창 선	남	가 평 종 합 고 등 학 교	2-3
	황 정 호	남	이 천 고 등 학 교	1-5
	주 장 호	남	이 천 고 등 학 교	1-3
여주교육장상	조 용 경	여	이 천 남 초 등 학 교	6-1
	강 명 순	여	분 당 정 자 중 학 교	1-4
	전 지 현	남	용 인 고 등 학 교	2-5

한 글

정 자 초 등 학 교 6학년
윤 영 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나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글 한글

이 곳, 저 곳에 걸린
외래어들은
551년을 면면히 이어온 한글을
화려하게 짓밟고 있다.

이 나라가
나라님이 다스리던 조선 맞는가?
사람들은 한글을 낳은
집현전을 잊어가고 있다.

눈병을 앓아가며
밤을 세워가며
위대하게 탄생 된
우리의 말 한글

세계속의 한국인이 되도록
우리문화의 자존심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신 나라님

한글을 주신
세종대왕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종 의 덕

여주여중 3학년
손 승 화

늘 푸르름과
끝없는 덕이 공존하는
세종상 아래

맑은 호수 위로
하늘을 따라
구름을 따라
작은 파장을 일으키며
물고기가 출렁인다.

하지만 작은 파장에 불과하던
그 움직임은
이내 세종의 높은 뜻으로
번져 오르고……

영릉의 곳곳으로 이어진
가지 가지 소나무 잎이
오로지 한 끝으로
오로지 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듯이

평생을 한글을 위해
애쓰며 끈게 걸어오신
대왕의 위대한 정신

세종의 얼이 한아름 깃든
넓은 길을 따라 세종의 덕은
더 멀리 퍼져만 간다.

허 수 아 비

내게 웃음주며 다가왔던 사람들
하지만 남겨진 건 눈물 뿐이었지
누군가의 웃음에 또 다시 상처 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다가설 수 없었지
나 혼자일 때 너 또한 혼자였지
나 네게 웃음지으며 다가섰지만
너 아무말 없이 날 바라보기만 했지
오랫동안 널 바라봤지만 여전히 넌
변함없는 네 모습에
나 웃음도 슬픔도 받지 않고 뒤돌아 섰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힘이들면 또 다시 너를 찾을지도.....
내게 웃음 지어주지 않지만
슬픔 또한 주지 않는
네 모습 그리워.....

여주고등학교 1학년
곽 은 경

◆ 산 문 부 문

구 분	이 름	성별	학 교	학년/반
도지사상 (대상)	신 현 주	여	오 화 초 등 학 교	6-1
	윤 미 현	여	강 천 중 학 교	3-2
	김 금 순	여	여 주 여 자 고 등 학 교	2-숙
도의회위원장상 (금상)	최 윤 선	여	이 천 남 초 등 학 교	5-1
	손 정 희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1-3
	김 태 인	남	대 신 고 등 학 교	2-2
여주군수상 (은상)	강 수 진	여	여 주 초 등 학 교	6-6
	장 윤 희	여	여 주 초 등 학 교	6-1
	유 정 립	여	광 중 동 중 학 교	2-3
	박 정 희	여	흥 천 중 학 교	3-1
	홍 미 희	여	점 동 종 합 고 등 학 교	2-1
	이 상 정	여	여 주 여 자 고 등 학 교	1-숙
군의회위원장상 (동상)	양 해 란	여	수 원 정 자 초 등 학 교	4-3
	이 용 우	남	수 원 정 자 초 등 학 교	6-4
	정 효 경	여	이 천 초 등 학 교	6-6
	남 해 진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2-7
	이 하 늘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2-8
	장 광 덕	남	여 주 동 중 학 교	2-1
	김 태 욱	남	용 인 고 등 학 교	2-6
	김 명 선	여	점 동 종 합 고 등 학 교	1-1
	임 수 정	여	창 명 여 자 고 등 학 교	1-춘
여주문화원장상 (장려상)	김 슬 기	여	수 원 정 자 고 등 학 교	5-2
	이 혜 경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3-8
	윤 효 정	여	점 동 종 합 고 등 학 교	1-1

영릉에서의 약속

오학초등학교 6학년

신 현 주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영릉을 찾았다.

정문에 들어서니 세종대왕님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능이라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웬지 세종대왕님의 동상앞에서 마음이 엄숙해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짐을 느꼈다.

세종대왕님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한글의 창제라 말할 수 있는데 그 한글은 우리나라의 글로써 자랑이다.

한글이 반포된 당시에는 업신여김을 받고 잘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한글은 그 과학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훌륭한 언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언어가 우리나라의 글이라는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데, 정작 써야 할 우리글은 사용하지 않고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고 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영어가 써있는 간판이 아주 많이 있다.

그것 외에도 당장, 어린이들의 옷만보아도 영어가 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뜻도 모르는 팝송을 듣고 같이 따라서 흥얼거리고 학생들도 외제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좋아하며, 거기다가 유식해 보이려고 외국어를 사용하여 우리글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다.

심지어는 ‘텐뿌라’ ‘쓰메끼리’ ‘바게스’ 등 일본어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겨레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아직도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수치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나도 얼마전, 아니 조금전 까지도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곳 영릉에 와서 비로써야 우리 한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언젠가 그 나라의 글은 그 나라 민족정신의 뿌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글 또한 우리민족의 기틀이요, 민족정신의 기반인데 그런 한글이 외국어와 한자어, 그리고 일본어 속에 갇혀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아쉽다.

한편으로는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호되게 꾸짖으실 것같아 죄송한 느낌이 든다. 나는 이곳 영릉에와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가장 세계화 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외국문화를 배우기전에 꼭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외국어를 배우기전에 우리나라의 글, 한글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글을 아끼고 사랑하여 우리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깊은 뜻을 기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 영릉을 다시 찾을 때, 지금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 분께 묵념을 올릴 것이다.

아침! 그리고 다시 올 때에는 순수한 우리나라의 글이 써져있는 예쁜 옷을 입고 와야겠다.

나는 오늘, 단순한 유적지나 놀이장소로만 알고 있었던 영릉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 이곳 영릉에 온 것이 행운이라 느껴진다. 나의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리라’는 중요한 약속을 스스로에게 한 것이다.

왠지 앞으로는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같은 예감이든다.

외삼촌께 배운 교훈

강천중학교 3학년

윤 미 현

낙엽이 물드는 계절인 가을. 파란 하늘이 더 커버린 느낌이다. 지금 나는 푸른 잔디에 앉아 가을 향의 바람을 맞는다. 나뭇잎에 비친 빛이 영롱을 한결 더 포근하게 비추는것 같다. 이곳 영롱을 찾을때면 상쾌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인자하신 세종대왕님의 미소를 떠올릴 때면 이곳의 모든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것만 같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이다. 주위에는 여러곳에서 온 아이들에서 원고지를 점점이 물들이고 있다. 나는 내 활자 속으로 빠질 때쯤 지난 설날의 일이 생각 났다.

설날 이라서 모두가 분주했다. 특히 그날은 외갓집 식구들이 온다고 한날이었다. 엄마와 나는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당으로 들어오는 차 소리에 얼른 밖으로 뛰어 나갔다. 어린 사촌들 때문인지 우리 집은 금방 놀이터로 변해 버렸다. 사촌 동생들이 손에든 주머니에는 뭔가가 잔뜩 들어 있었다.

“이 다마 내꺼야!”

“아니야, 내꺼야.”

“이 선을 넘어 왔으니깐 내꺼야.”

나는 큰 소리가 나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사촌 동생들이 싸우고 있었다. 이소리를 들은 삼촌이 나오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 하셨다.

“주원이 주광이 미현이도 작은 방으로 건너 오너라”

나는 뜨끔했다. 내가 동생들에게 신경을 안써주어서 외삼촌께서 화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앉아 삼촌의 말씀을 들었다.

“너희들 싸우는 소리 들었다. 다마 때문에 싸우는것 같구나, 근데 다마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란다.”

나는 궁금했다. 그래서 삼촌께 말했다.

“다마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데요?”

“그런게 문제 되고 있는 거지. 그외도 쓰봉, 오봉, 바께스, 쓰메끼리등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단다.”

나는 온몸에서 땀이 났다. 부끄러움이 내 몸을 짓누르는것 같았다. 우리 조상들의 아픔도 배어 나오는듯 했다. 어둠의 시대가 남기고간 상처가 들어 나듯이 말이다.

외삼촌의 말씀을 듣고난 후부터 나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다시 되새겨 본다. 우리말이 아닌 곳은 없는지 하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사용할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외삼촌께서 주시고간 선물이다. 우리말을 한번더 생각하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교훈이기도 하다. 외삼촌께서 설날때 말씀을 안해 주셨다면 지금까지 내 행동을 되돌아 보지 못했을 뿐더러 반성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뒤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너무 웃었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그 동안 외래어를 사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고친다면 옛 조상들에게는 내가 받은 선물의 몇 배는 더 할 것이다.

우리글 우리말을 관심있게 보고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상처도 쉽게 아물 것이다.

나는 푸른 잔디의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 한다.

외삼촌께서 나에게 우리 한글을 사랑하라는 교훈은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말이다.

10월이 되면 매년 오는 영릉이지만, 오늘은 푸른 잔디와 은행 나무가 길게 늘어진 길을 벗어나기가 쉽다.

한글의 세계화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2학년

김 금 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 보다는 남의 것을 더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그것에 기준이 뚜렷히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란 속담에서 처럼 그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과 자기것으로 만들려는 정복욕이 그 기준이 된다. 이로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하고 냉대하게 되는 것이다. 한글 역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소홀히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교육적인 면에서 조차 국어인 한글보다 외국어인 영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르치고 있다. 세살, 네살된 아이들에게 조기교육을 시킨다며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이 한글도 자신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A, B, C.....를 외우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세계화라고 부르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화란 우리것을 세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뜻을 잘 못 이해하고 외국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글은 세계적인 언어로 발돋움할 충분한 한글이 로마문자보다 세계적 언어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한글은 쓰기 쉽고 알기 쉽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기 보다는 천하다하여 아녀자나 천민들의 문자라고 단정지어 졌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자를 소홀히 대하였기 때문에 좋은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남의 것을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의 것을 알려 세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글 역시 세계적인 언어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전하여 세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일반부문

구 분	이 름	주 소
여주군수상 (대상)	이 춘 희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
군의회위원장상 (금상)	김 경 미	여주군.읍 홍문리 반석아파트
여주교육장상 (은상)	서 근 옥	여주군.읍 홍문리 현대아파트
여주문화위원장상 (동상)	이 경 섭	여주군.읍 상리 유원로얄아파트

가을이 준 선물

이 춘 희

언제나 그렇듯이 아침시간 식구들이 바쁘게 차리고 나선 뒷정리를 하고 설겅이와 청소로 이어지는 일상의 노동(?)을 마치고 나면, 햇살은 어느새 마루 깊숙히 들어와 키작은 바이올렛꽃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때쯤이면 라디오 FM에서는 철지난 팝을 들려주는 DJ의 느긋함을 만날수 있고 창밖으로는 끝없는 황금들판을 뒤로 하고 흰강아지 담비가 보아주지도 않는 재롱을 부리고 있다.

이제부터 무얼할까 생각하며 눈을 돌리다 보니 어느새 무성했던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에 주렁주렁 콩깍지를 달고 서있는 콩밭에 시선이 머문다.

여름내 힘들여 심어놓으시고 요즘은 이웃집 일을 도와주신다며 거뒀을 시간도 없다시던 엇저 녀어머님 말씀이 생각나 운동화로 갈아신고 밭으로 나갔다.

봄에 터를 마련하고 새로 이사와서 작지 않은 텃밭을 일구시는 동안 나는 내 일을 핑계로 김을 매거나 모종일을 전혀 도와드리지 않았다. 밭일을 할 줄도 몰랐을 뿐더러 어머님 영역이라 생각하고 뭘수 있으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가지 아래를 손으로 휘어잡고 빼려하니 땅이 말라서인지 뽑히지 않았다. 흔들어 보려하니 벌어진 콩깍지 사이로 콩이 쏟아져 나올것만 같아 조심스러웠다. 힘을 주어 두 손으로 잡아당기니 콩가지가 뽑히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언제 다 뽑나 싶어 이번에 꺾어보기로 했다. 손이 찢리고 허리가 아파와 땅바닥에 털썩 주저 앉아보지만 뒤통으로 콩가지가 꺾인 깨끗해진 밭을 보니 새로이 힘이 났다.

새삼 이 많은 콩을 혼자 심고, 김메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으로 목욕하시면서도 며느리인 내게 너도 같이 하자고 말씀 한번 안하시던 시어머님의 깊은 속정이 느껴져 왔다.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거들어 드렸으면 얼마나 수월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이제라도 쉬지 말고 많이 거두어서 어머님이 돌아오셨을 때 놀라시게 해 드려야지 욕심이 생겼다.

한참을 하고 허리를 펴서 뒤를 돌아보니 행해진 밭위로 콩가지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언젠가 남의 밭에서 본 기억을 살려 모듬을 지어 거꾸로 세웠다 한 무더기, 두 무더기 봉긋 봉긋한 콩무덤이 생겨나고 있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포만감에 가슴이 벅차왔다.

농부들이 불별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고 고통을 마다않고 땅과의 오랜 씨름끝에 거두어 들이는 것이 곡식뿐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을에 비로서 깨달았다.

한글과 어머니

김 경 미

“이녀석아! 이 글자는 “꽁”이 아니라 “꽹”이야”

이제 겨우 한글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는 아들 녀석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머리에 알밤 한번 쥐어 박으며 여느때 처럼 실랑이를 벌인다. 이따금씩 나 어릴적 어머니께서 칠남매 맏며느리로서 숨 쉴틈도 없이 바쁜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학교 입학 전에 꼭 한글을 익혀서 학교에 보내시려던 어머니 생각이 나 가슴이 찡 해온다. 그리고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땅 바닥에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한글을 받아쓰던 장면이 떠오르면 피씩 입가에 웃음이 나오곤 한다.

“이녀석아! 엄마가 너만 했을때는 한글을 줄줄 읽었었다”

또다시 엄마 욕심에 차지 않는 아들녀석을 나무라며 목에 힘을 준다.

“애! 이럴땐 모습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엄마, 그게 아니라 모순이 있다고 하는거예요”

“여보게, 이렇게 쓰면 되는가?”

“네, 장모님! 글씨가 천하명필이시네요”

“이 사람이 놀리기는……”

딸과 사위가 친정집에가면 항상 오가는 대화 내용이다.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자였었지만 여자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배워야 된다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셨다고 한다. 외삼촌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학년에 바로 입학했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하고 외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학교를 그만두게 되셨단다. 그래서 지금도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일이 있을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 원망하시는 모습을 자라면서 너무나 많이 보면서 자라왔다.

당신께서 못 배우신게 일평생 한이되신 나의 어머니 당신 자식들에게 만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켜 당신께서 못 배운 한을 풀고 남앞에 당당하게 나서게 하고 싶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굳은 의지 덕분에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어머니의 힘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다.

‘어머니! 부를수록 가슴이 저려움을 느낍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자식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주신 사랑의 백분의 일이라도 내 자식에게 베풀며 어머니처럼 강하고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께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시도록 친절히 나무라지 않고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그 동안 못다한 효도 하면서 살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자에게 한글을 잘 가르쳐 우리 한글을 세계에 빛 낼수 있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키울게요’

가을날의 회상

서 근 옥

하늘빛이 맑고 찬란한 이 계절이 오면 가을날의 떨림같은 한가닥의 추억이 나를 미소짓게 만든다.

9년전 우리 가족은 시아버님의 칠순잔치로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가게 되었다.

지난 여름의 괄 비행기 추락사고 같은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일이 있을까봐를 대비해 박씨문종에 핏줄 하나는 남겨야 한다고 우기시는 아버님 때문에 장손인 조카를 제외하고 25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비행기를 탔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혼여행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고만 고만한 어린 조카들, 동서들, 부모님 모두 설레는 마음이었다. 용두암에서 정방폭포에서의 시원한 물줄기, 제주민속촌에서의 널뛰기, 그네뛰기,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노랗게 익은 굴밭에서 익새풀이 무성한 한라산에서 우리가 사는곳과 전혀 느낌이 다른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겨 나오는 열대가로수의 밤거리를 거닐며 10년후에 팔순잔치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또 다시 참여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러한 다짐을 한지 9년째.

며칠전 아버님 생신을 치루고 분당중앙 공원으로 모두 산책을 가게 되었다.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을 보니 생각난것이 아! 내년이로구나. 내년이 10년 되는해로구나.

금년 들어서 부쩍 노쇠하여지시는 것을 보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월은 사람을 안타깝게 한다. 더 약해지시기 전에, 다리힘이 빠지기전에 우리 가족모두 가을여행을 떠나야겠다.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지난날 남편과 떨어져 주말부부로 살다 3년전 여주로 이사와 함께 생활하다. 3년전 여주로 이사와 함께 생활하여 기뻐했던 순간 아이를 키우며 힘들고 기쁘고, 가슴이 벅찼던 순간,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한때는 문학소녀를 꿈꿨던 시절도 있었을텐데. 일기한장, 편지한장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것은 아니었을텐데.

백팔번뇌속에서의 신선놀음(?) 하던 시절 그러한 모든 일을 뒤로 한채 살아온 날들이 안타깝기만하다.

바람이 불어 가듯이 세월 또한 꿈결처럼 흘러간다. 이제 나도 불혹의 강을 건너야 하는 이 시점에서 보니 마냥 아쉽고 그리운것 소중한것이 많다. 그래서 이 가을은 더욱더 빨리 지나가는것 같다. 더 아쉬워하기전에 더 소중한것을 놓치기 전에, 삶의 끈을 바짝 당겨본다. 이번이 없는한 우리는 내년을 기약하며 시아버님의 팔순잔치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모두가 건강하게 가을여행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그때까지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빌어본다.

〈동 상〉

사색의 계절 가을에

이 경 섭

눈이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나는 펜스레 눈물이 난다.

수정같이 투명한 하늘, 그위로 끝없이 열려있는 우주, 그 무한한 우주의 공간속에서 숨쉬는 아주 작은 나를 생각하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요. 우주의 계절이라더니 어느새 가을을 가슴으로 느끼는 나이가 되었나 보다.

내 유년의 가을은 유난히도 아름다운 감성의 계절이었다.

소양강 상류에 자리한 나의 고향은 많은 안개속에 가을의 새벽을 열곤했다. 벼가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일무렵 코스모스와 국화가 피어나며 싱그러운 가을을 알린다.

높고푸른 하늘과 더불어 싱그러운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국화의 짙은 향내와 코스모스의 청초한 모습은 가을의 느낌을 한결 더해준다.

안개길을 따라 다녔던 여고시절 들국화와 코스모스가 나를 반겨 주었고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해주는 갈대와 억새 또한 나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다. 작열하는 태양과 폭풍우속에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결실을 맺어온 황금들판을 바라보며 풍요로움을 배웠다.

붉게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 아래서 정열을 배우며 미래를 설계했고 노랗게 채색된 은행나무 아래서 고운 인생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계절에,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기전에 향수에 잠긴다. 바람에 일렁이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나는 고뇌하는 인간이 되고만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성실하고, 성숙된 인간으로, 멋진 세상을,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조언을 해주는 엄마가 되기위해 이 가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감흥하기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좋은 아내가 되는길은, 아이들이 존경하는 부모가 되는길은 부단한 노력과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보다 아름다운 나무들도 각각의 채색된 옷을 벗고 나뭇잎이 되어 묵묵히 힘든 계절을 맞이 하리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해 인고의 계절을 조용히 맞이하는 것이리라.

때로는 서리를 맞으며 고달픈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모습은 얼마만큼 머물어 가고 있는가? 겸허히 서있는 나무와 자연을 보면서 나 자신은 왜 버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거머쥐고 있는지 모르

졌다. 버리리라. 더덕더덕 달려있는 욕심의 앞들을 한앞두었…… 그리하여 나목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리라.

이 계절 가을이 주는 아름다움 그대로, 풍요로움 그대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보라고 말하리라 곱게 채색된 가을의 색 그렇게 멋지게 인생의 그림을 그리라고 나의 아이들에게 말하리라. 고뇌하는 인간은 아름다우며 그만큼 성숙 되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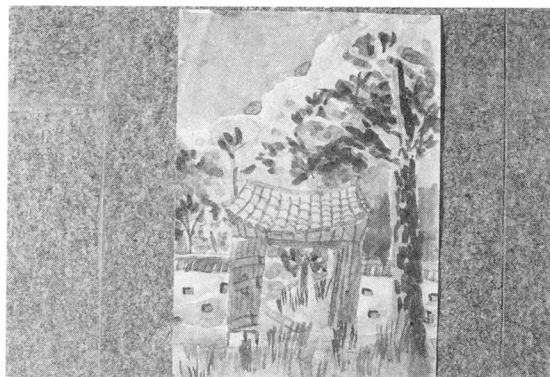
광활한 우주속에 이슬같은 나, 그러나 내가 있기에 우주가 아름다운것이 아닌가?
저물어 가는 가을속에 나도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자연인이 되어 겸허히……

◆ 그림그리기 부문

구 분	이 름	성별	학 교	학년/반
여주군수상 (대상)	방 예 현	여	대 신 초 등 학 교	3-1
	배 지 혜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2-5
	정 해 강	남	대 신 고 등 학 교	3-3
군의회위원장상 (금상)	강 은 지	여	이 천 초 등 학 교	4-6
	탁 송 이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1-3
	박 희 정	여	여 주 고 등 학 교	3-3
여주교육장상 (은상)	함 재 연	여	북 내 초 등 학 교	5-1
	김 승 아	여	능 서 초 등 학 교	3-사랑
	김 화 인	여	여 주 동 중 학 교	2-4
	강 현 정	여	창 명 여 자 중 학 교	2-난
	이 수 빈	여	여 주 여 자 고 등 학 교	2-진
여주문화원장상 (장려상)	최 진 희	여	이 천 고 등 학 교	6-5
	신 현 숙	여	매 류 초 등 학 교	6-1
	장 용 훈	남	점 봉 초 등 학 교	5-2
	조 술 이	여	북 내 초 등 학 교	3-2
	이 지 은	여	능 서 초 등 학 교	2-지혜
	김 보 배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2-7
	이 은 숙	여	여 주 여 자 중 학 교	2-8
	민 지 해	여	여 강 중 학 교	2-1
	김 수 희	여	창 명 여 자 중 학 교	1-춘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 경기도 학생백일장.그림

여주군수상 수상(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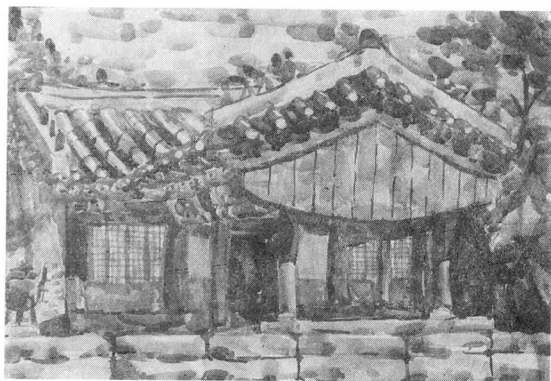


대신초등3-1 방 예 현

군의회위원장상(금상)



이천초등 4-6 강 은 지



여주여중 2-5 배 지 혜



여주여중 1-3 탁 송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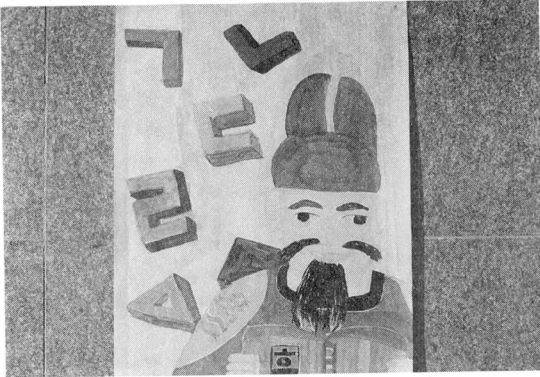


대신고3-3 정 해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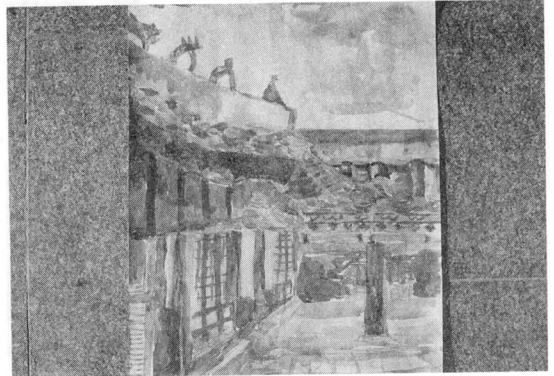


여주고3-3 박 희 정

여주교육장상(은상)



북내초등학교 5학년 함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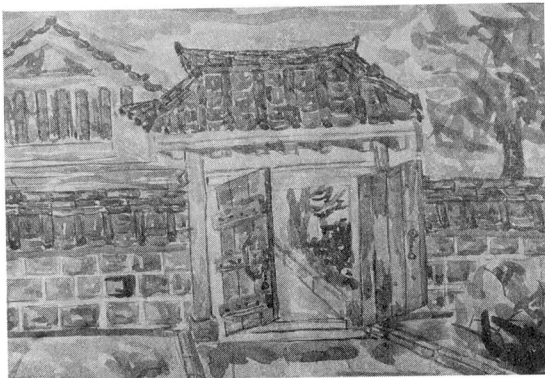
창명여중 2-난반 강현정



능서초등학교 3-사랑반 김승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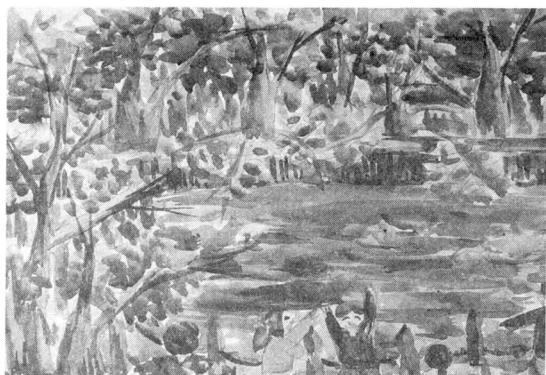


여종고 2-진반 이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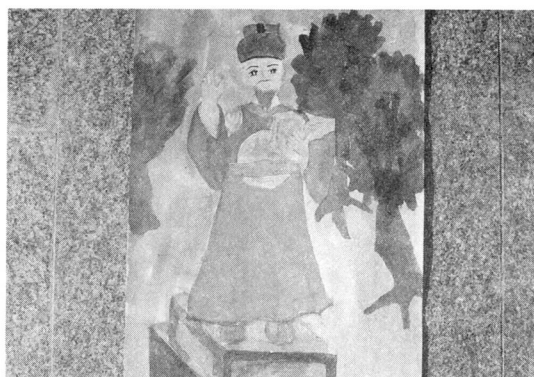


여주동중 2-4 김학인

여주문화원장(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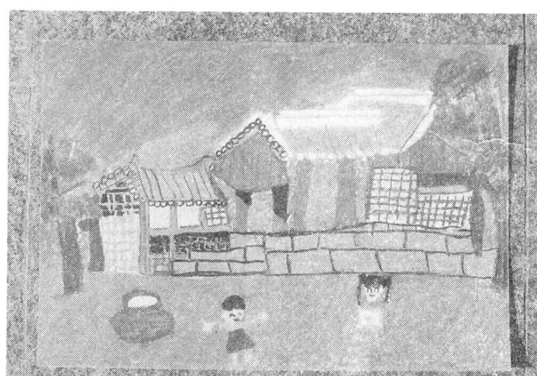
이천초등 6-5 최진희



북내초등 3-2 조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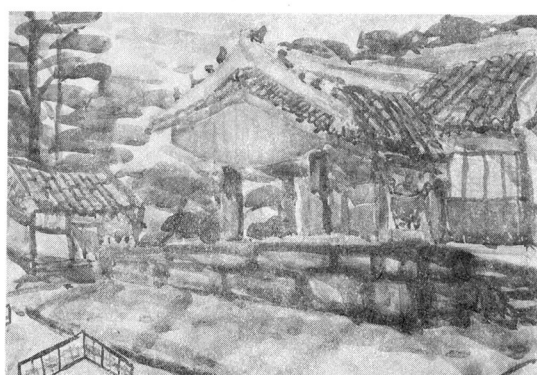
매류초등 6-1 신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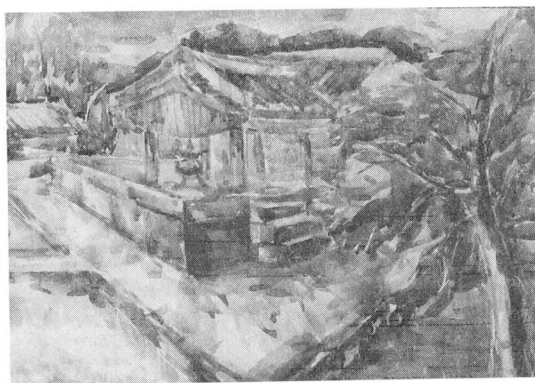
능서초등2-지혜반 이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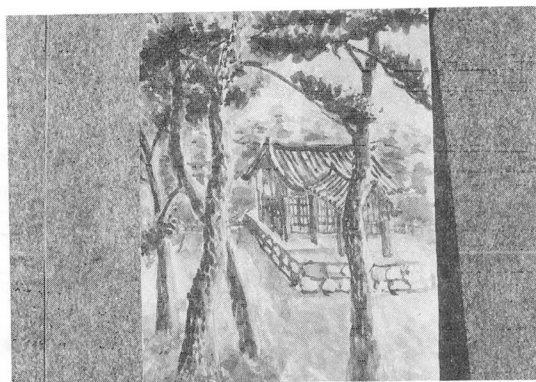
점봉초등 5-2 장용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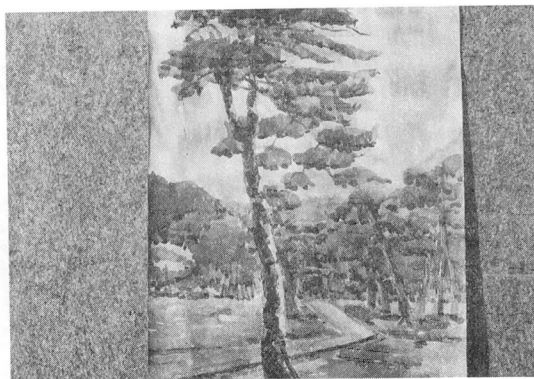
여주여중2-7 김보배



여주여중 2-8 이은숙



여강중학교 2-1 민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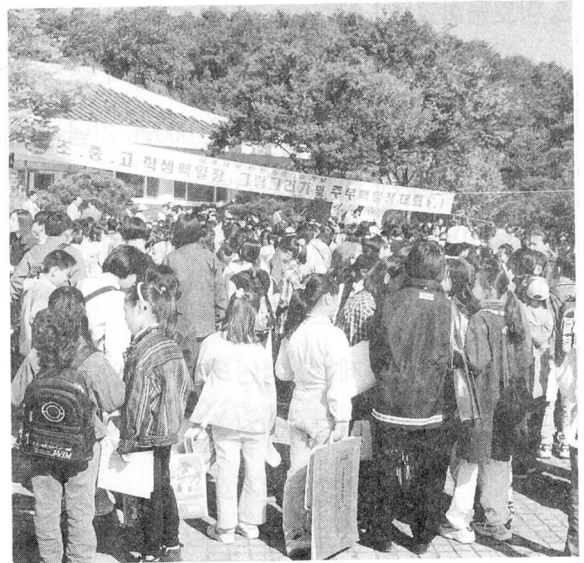


창명여중 1학년 춘반 김 수 희

'97문화원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량	사 업 기 간
1. 민속행사	민속예술제 (경기도) -노력상 수상-	1회	9. 25 - 9. 26
2. 향토문화교육	어린이, 주부프로그램 (문화사랑방 주관)	5종 50회	7. 21-8. 30
	주부생활강좌 "이상벽" 초청공연	1회	11. 20
3. 문화행사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 어가행차	1회	5. 15
세 종 대 왕 탄 신	태동인전시회	10일간	5. 9 - 5. 18
600돌 및 도자	한글시화전	5일간	5. 19 - 5. 23
기대축제 기념	천문공개관측대회	1회	5. 17
문화행사	제2회 청년작가 5인전	7일간	5. 10 - 5. 16
	한글서예전	4일간	5. 14 - 5. 17
	미술인전시회	6일간	6. 3 - 6. 8
	연극공연	2일간	5. 17 - 5. 18
	빛모아사진전시회	4일간	5. 24 - 5. 27
	학생미술전	5일간	5. 28 - 6. 2
	청소년세종영화제	1회	5. 17
4. 음악회	서울내셔널오케스트라 공연	1회	10. 9
5. 세종문화큰 잔치	백일장		
	경기도 초·중·고등학생부, 일반부(글짓기, 그리기, 시부분) 1,053명 참가 65명 시상	1회	10. 9
	은모래 사진전시회	40점	10. 9 - 10. 12
	수석전시회	30점	10. 18 - 10. 20
	미술전시회	25점	11. 14 - 11. 18
6. 불우이웃돕기	베로니카의 집 노인돕기 (여성위원)	1회	11. 25
7. 문화유적답사	문화탐방	2회	5. 23 - 10. 21

세종대왕탄신 600돌기념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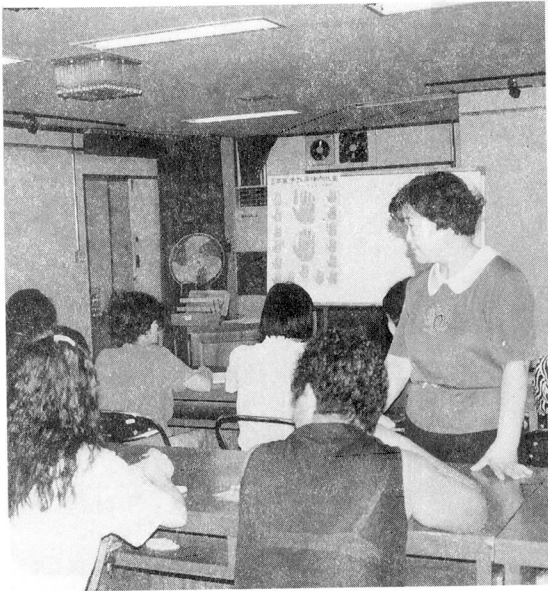
어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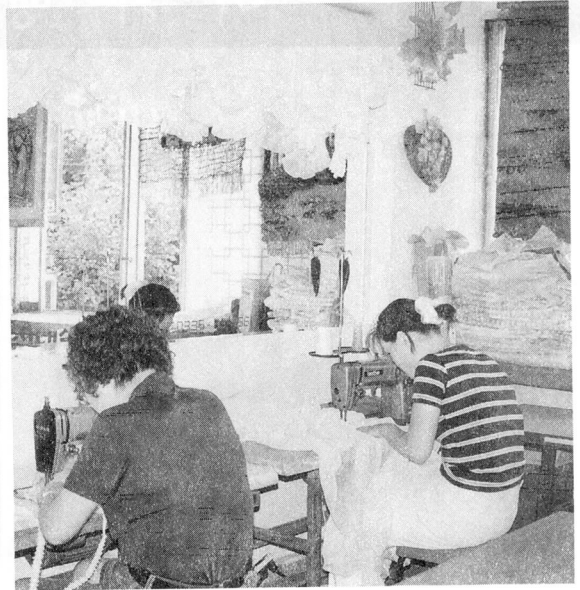
향토유물탐사



주 부 강 좌



〈수 지 침〉



〈홈 패 션〉



〈주 부 미 술〉



〈붓 글 씨〉

어 린 이 강 좌



〈박물관 탐방〉



〈종 이 접 기〉



〈유 아 체 조〉



〈어 린 이 미 술〉



〈동 요 부 르 기〉



〈신 문 활 용 교 육〉

청 소 년 강 좌



〈영 화 특 강〉



〈영 화 제 건 학〉

〈초 청 강 좌〉



〈이상벽 선생 특강〉

유 적 답 사



〈영 월〉



〈오 죽 현〉

문 화 재 현 황

구 분	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향 토 유 적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천 연 기 념	민 속 자 료	소 계	문 화 자 료	도 유 형	기 념 물	민 속 자 료	소 계	묘 지	여 수 정	서 원
계	25	25	1	19	3	1	1	18	3	10	4	1	13	11	1	1
여주	13	2		2				7	2	4	1		4	4		
점동	2							2		1	1					
가남	3	1		1				1		1			1	1		1
능서	4	3		2	1								1	1		
흥천	2							1		1			1	1		
금사	3							2	1	1			1	1		
산북	2	1		1				1			1					
대신	4	2			1		1	1			1	1			1	
북내	19	13	1	10	1	1		2		1	1			4	4	
강천	4	3		3				1		1						

국가지정 문화재

지 정 별	문 화 재 명	소 재 지
국보 4	고달사지 부도	상교 산47-1
보 6	원종대사 혜진탑 귀부 및 이수	"
보 7	원종대사 혜진탑	"
" 8	고달사지 석불좌	"
" 91	창리 3층 석탑	상리 산36
" 92	하리 3층 석탑	"
" 180	신록사 조사당	천송리 282
" 225	신록사 다층석탑	"
" 226	신록사 다층전탑	"
" 228	신록사 보제존자 석등	"
" 229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비	"
" 230	신록사 대장각기비	"
" 231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앞 석등	"
" 844	창덕궁 측우대	왕대리 83-1
" 8456	양부일구	"
" 874	완양부원군 이충원 교서	산북면 백자리 244
" 941	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가남면 심석리 66
" 1144	예념미타도장창법	목아박물관
" 1145	묘법연화경	"
" 1146	대방광불화엄경	"
사 195	영.녕릉	왕대리 83-1
" 251	파사성	천서리 산9
" 382	고달사지	상교리 47-1
천 209	백로, 왜가리	신접리 285
민 126	김영구 가옥	보통리 190-2
보물(보), 사적지(사), 천연기념물(천), 중요민속자료(민)		

도지정 문화재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자 3	여주향교	교리
" 37	영월루	상리 산36
" 75	기천서원지	이포리 산26-1
유 20	강한사	하리 200-1
" 35	포초골 미륵불	외평리 454-4
" 41	명성황후 탄강비	능현리 250-2
" 46	명성황후 생가	"
" 84	대로사비	하리 200-1
" 98	마애여래 입상	계신리 5
" 128	신흥사 극락보전	천송리 282
" 139	여산송씨 족보	심석리 산66
" 145	여주군 경수연도	부평리 186-1
" 148	정대년 신도비	원부리 산2-2
기 16	이완 장군묘	상거리 산19
" 36	서희 장군묘	후리 산53-1
" 132	석우리 선돌	석우리 260
" 133	처리선돌	처리 88-6
민 2	해시계	보통리 190
문화재자료(자), 경기도유형(유), 도기념물(기), 민속자료(민)		

군지정 문화재(향토유적)

지 정 별	문 화 재 명	소 재 지
향토 1	원두표장군묘신도	장암리 321-2
향토 2	원호 장군묘	"
향토 3	원유남 선생묘	"
향토 4	민정중 장군묘	하거리 363
향토 5	민유중 선생묘	능현리 250
향토 6	민진후 선생묘	안금리 113
향토 7	홍영식 선생묘	문장리 455-11
향토 8	최시형 선생묘	주륙리 37-1
향토 9	박준원 선생묘신도	가업리 49
향토 10	매산서원	번도리 321-4
향토 11	단종 어수정	상구리 64
향토 12	임원종 선생묘신도	능현리 산24-8
향토 13	상방하원석실묘	상교리 138

군내 보호수 현황(도나무)

일련 번호	소재지	수종	수령 (년)	수고 (m)	둘레 (m)	수목면적 (㎡)	소유자(관리자)
1	여주읍 우만리	향나무	300	3	1.6	17	한국도로공사(이호선)
2	흥천면 계신리	은행나무	500	30	5	40평	흥천면 계신리 193
3	강천면 간매리	은행나무	524	15.6	10.2	30평	곽씨종중

여주군 보호수 현황(군나무)

일련번호	소재지	수종	수령 (년)	수고 (m)	둘레 (m)	수목면적 (㎡)	소유자(관리자)
1	북내면 천송리	은행나무	600	18	3.3	40	신록사
2	여주읍 우만리	느티나무	300	15	6.8	30	우만리
3	점동면 덕평리	느티나무	430	25	4.3	30	덕평1리
4	가남면 금당리	느티나무	350	10	5	20	조기섭
5	능서면 왕대리	느티나무	300	9.3	5.5	68	문화재관리국
6	흥천면 상대리	은행나무	500	15	1.8	60	리소유
7	흥천면 삼백리	향 나 무	500	5	1.2	10	리소유
8	흥천면 귀백리	느티나무	350	20	3.0	30	이원복
9	흥천면 대당리	향 나 무	300	5	1.7		경문현
10	흥천면 신근리	은행나무	680	25	5	20	정씨종중
11	금사면 이포리	은행나무	600	35	5.8	12	한희섭
12	금사면 이포리	느티나무	500	20	4	5	김창선
13	금사면 이포리	느티나무	300	30	5.3	30	이포리
14	금사면 도곡리	느티나무	450	16	2	20	도곡리(리소유)
15	금사면 도곡리	느티나무	300	25	4.5	30	도곡리
16	금사면 외평리	느티나무	530	19	5.7	5	김광선
17	북내면 천송리	향 나 무	500	5	1.3	25	신록사
18	북내면 상교리	느티나무	400	20	6	40	이강영
19	북내면 석우리	느티나무	300	13	5.2	40	한명기
20	북내면 중암리	은행나무	300	16	4	35	흥왕사
21	북내면 신접리	은행나무	300	30	3.5	30	민승각

여주군 보호수현황(면나무)

일련 번호	소재지	수종	수령 (년)	수고 (m)	둘레 (m)	수목면적	소유자 (관리자)
1	여주읍 교리	은행나무	200	30	3.4	15	향교
2	여주읍 떡곡리	향나무	250	7	1.6	20	리, 박철석
3	점동면 뇌곡리	은행나무	700	30	6	100평	리, 권혁천
4	점동면 장안리	느티나무	250	15	3	25	리, 김재창
5	가남면 대신리	은행나무	250	17	8		주길용, 유학현
6	가남면 안금리	느티나무	320	25	5	50평	안금2리
7	능서면 왕대리	전나무	200	25	1.9		문화재관리국
8	능서면 용은리	느티나무	200	16	4	10	리
9	흥천면 내사리	은행나무	200	10	5.70	40	임창호
10	흥천면 양촌리	소나무	200	30	1.9	30	경석문
11	흥천면 율곡리	은행나무	200	20	3	30	심중섭
12	금사면 이포리	느티나무	300	15	2.8	15평	이갑표
13	금사면 도곡리	썸배나무	300	9	50	4평	리, 조해동
14	금사면 하품리	느티나무	600	22	7.5	100평	박수영
15	"	"	400	18	6	35평	리, 박성식
16	"	"	400	18	6	35평	"
17	"	"	400	17	5.7	32평	"
18	금사면 배지리	"	400	18.9	5.8	45평	리, 임씨종중
19	"	"	400	18.9	5.8	45평	"
20	"	"	400	18.5	5.6	45평	이석주
21	"	"	400	18.5	5.6	45평	"
22	대신면 하림리	"	210	18	3.5	30평	부락공동
23	대신면 도룡리	오리나무	200	25	2.5	60평	"
24	대신면 당남리	느티나무	250	17		50평	이용하
25	대신면 초현리	"	200	22	5	100평	부락공동
26	북내면 내룡리	"	250	18	4.2	30평	이종만
27	북내면 내룡리	"	200	17	3	30평	"
28	북내면 지내리	"	220	8	2	14평	김경배
29	북내면 가정리	"	250	9	3	30평	리, 심익섭
30	강천면 간매리	"	200	8	5.7	95평	리
31	"	"	200	9	7.20	17평	리

여주골프장 현황

골프장명	코스길이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	휴장	이용료(비회원)		도로망과교통편	비고
여주골프장	27홀	여주 월송리 35-10 469-800	(0337) 82-5881	夏 05:00 -20:30 冬 07:00 -18:00		주 중 25,000 (70,000)	주 말 36,000 (85,000)	서울 강남, 동서울 ⇒ 영동고속도로 ⇒ 여주T.G ⇒ 여주골프장	골프카 사 33,000원 골프채 대 10,000원 ※ 부대시 골프연식
금강골프장	18홀	가남 본두 산1-2 469-880	(0337) 84-9951 F84-5155	夏 05:00 -20:30 冬 07:00 -18:00		28,000 (70,000)	32,000 (85,000)	서울 강남, 동서울 ⇒ 영동고속도로 ⇒ 여주T.G ⇒ 금강골프장	골프카 사 33,000원 골프채 대 10,000원 ※ 부대시 골프연식
자유개발골프장	18홀	가남 삼군 산44 469-880	(0337) 84-8400	夏 05:00 -20:30 冬 07:00 -18:00		29,000 (66,000)	33,000 (81,000)	서울 강남, 동서울 ⇒ 영동고속도로 ⇒ 여주T.G ⇒ 자유개발골프장 서울 ⇒ 국도(충북행) ⇒ 가남면 ⇒ 자유개발골프장	골프카 사 33,000원 골프채 대 10,000원
한일골프장	36홀	가남 양귀 산69-1	(0337) 84-7000 F83-1400	夏 05:00 -20:30 冬 07:00 -18:00		26,000 (70,000)	30,000 (85,000)	서울 강남, 동서울 ⇒ 영동고속도로 ⇒ 여주T.G ⇒ 한일골프장 서울 ⇒ 국도(충북행) ⇒ 가남면 ⇒ 한일골프장	골프카 사 33,000원 골프채 대 10,000원 ※ 부대시 골프연식
이포골프장	18홀	금사 장흥 산1 469-830	(0337) 84-3131	夏 05:00 -20:30 冬 07:00 -18:00		25,000 (70,000)	28,000 (90,000)	서울 강남, 동서울 ⇒ 중부고속도로 ⇒ 곤지암T.G ⇒ 양평방향 ⇒ 이포골프장	골프카 사 20,000원 골프채 대 10,000원 ※ 부대시 골프연식
크립700	18홀	대신 상구 산11-1 469-840	(0337) 84-0701 F83-8039	夏 05:00 -20:30 冬 07:00 -18:00		25,000 (60,000)	32,000 (80,000)	서울 강남, 동서울 ⇒ 영동고속도로 ⇒ 여주T.G ⇒ 크립700 상봉동 ⇒ 양평 ⇒ 대신 ⇒ 크립700	골프카 사 20,000원 골프채 대 10,000원
신라골프장	27홀	북내 덕산 산3-1 469-850	(0337) 86-3030 F86-3037	夏 05:00 -20:30 冬 07:00 -18:00		11,000 (71,000)	11,000 (85,000)	서울 강남, 동서울 ⇒ 영동고속도로 ⇒ 여주T.G ⇒ 신라골프장 상봉동 ⇒ 양평 ⇒ 북내 ⇒ 신라골프장	골프카 사 33,000원 골프채 대 10,000원
금사대영	18홀	산북 상품 산108	02-420-4167		공사중				
대영	27홀	북내 운촌 산89-1	84-1317					공사중('97년 1월 부분개장 예정)	
두양힐스	18홀	강천 부평 산51-1	86-8657					공사중('98년 3월 개장 예정)	
에이스	18홀	점동 현수 산10-1	02-596-6700					미착수	

편집후기

빛도 너무 밝으면 보이지 않고
소리도 너무 커도 들리지 않는 법이라 했다.

세종대왕 탄신 600돌을 맞아 새삼 대왕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그동안의 무심함에 죄송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다. 늘 곁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 분의 높은 정신과 깊은 은덕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
다.

오늘의 우리를 우리이게 하신 이가 바로 대왕이 아니시던가!

이 부끄러움을 그 분이 너무 밝고 크신 분이어서 범인들로서는 쉽게 헤아리기 어려웠던 탓이라
자위해 보며 이제부터라도 대왕에 관해 새롭게 알고자하는 결심을 세우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
다.

여주 문화 1호는 지난호들과는 달리 지금의 추세에 맞게 관형을 바꾸었다. 겉모습이 변한 만큼
내용도 알차져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여주문화발전에 변치 않고 큰 관심을 보여오신 이현구 선생님, 김정식 회장님, 전기중
원장님, 조두현 회장님 등의 옥고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린다.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조 성 문

여

백

驪州文化 (제4호) 비매품

인 쇄: 1997 년 12월 일

발 행: 1997 년 12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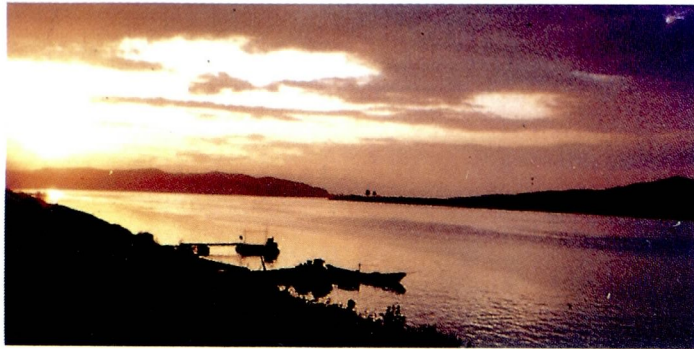
발 행 인: 조 무 호

발 행 처: 여 주 문 화 원

이책은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여

백



『驪州八景』

神勒暮鍾

신록사에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馬巖漁燈

마암앞 고기잡이배의 등 밝히는 풍경

鶴洞暮煙

강진너 학동에 저녁밥 짓는 연기

燕灘歸帆

강여울에 돛단배 귀가하는 모습

羊島落鴈

양섬에 기러기떼 내리는 모습

八藪長林

오학리 강변의 무성한 숲이 강에 비치는 전경

二陵杜鵑

영릉과 녕릉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

婆娑過雨

과사성에 여름철 소나기 스치는 광경

